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비교연구

- 중모리를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Seo Yong-Seok school and
Won Jang-Hyeon school Daeguem sanjo
-fouced on Joogmori-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이 헌 준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비교 연구

- 중모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우 진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이 헌 준

이헌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김 경 아 (인)

부위원장 정 소 희 (인)

위 원 金宇振 (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중모리를 비교 및 분석하여 두 산조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선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두 유파는 공통적으로 C청 계면조에서 가장 많은 상이선율이 나타난다. 두 유파의 차이점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C청 계면조에서의 상이선율 비중이 높으며, 원장현류가 서용석류에 비해 B♭청 평조의 상이선율이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악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내드름조 · 평조 · 계면조의 악조가 동일하게 사용되며, 조의 출현 순서는 내드름조-평조-계면조 순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는 C청 계면조 선율의 비중이 높고, 원장현류 중모리는 B♭청 평조 선율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장(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 장(章)과 원장현류 중모리 장(章)의 공통점은 기-경-결-해 유형의 4장단형 기본형식 장(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유파의 차이점은 확대형식 장(章)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확대형식 장(章)에는 기-경-경-결-해와 기 - 경-결-해-해 유형의 5장단형 장(章)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확대형식 장(章)에는 기-경-경-결-해-해 유형의 6장단형 장(章)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변조와 변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에는 C청 내드름조(우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나고 일시적 변청에는 C청 계면조와 F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난다. 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돌장에는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나고 일시적 변조에도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난다.

다섯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은 총 491개이고, 원장현류의 총 257개로 서용석류가 234개가 더 많다. 두 유파의 장단 중, 가장 적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의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 중모리가 4개, 원장현류 중모리가 2개이다. 반대로 두 유파의 장단 중, 가장 많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의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 중모리가 14개, 원장현류 중모리가 10개이다.

여섯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동일선율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의 동일선율 호흡선은 총 92개이고 원장현류는 72개이다. 서용석류 호흡선이 20개가 더 많다. 한주환류 대금산조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늘어나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호흡선으로 연주하고, 원장현류는 더 적은 호흡선으로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흡선과 꾸밈음이라 할 수 있다. 서용석류 중모리는 많은 호흡선과 적은 꾸밈음으로 연주된 특징이 있다면, 원장현류 중모리는 적은 호흡선과 많은 꾸밈음으로 연주된 것이 큰 특징이다.

주요어 : 서용석, 원장현, 중모리, 대금산조, 장(章), 호흡선
학 번 : 2017-24829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표 목 차 ····· vi
악보 목차 ····· vii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문제 제기 ····· 1
2. 선행연구 ····· 5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2
4. 서용석과 원장현의 학습과정 ····· 20

Ⅱ.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특징 ····· 24

1. 악조 ····· 24
2. 장(章) ····· 32
3. 변청과 변조 ····· 41
2. 호흡선 ····· 44

Ⅲ.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특징

1. 악조 ····· 54
2. 장(章) ····· 62
3. 변청과 변조 ····· 70
4. 호흡선 ····· 75

Ⅳ.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비교

1.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 선율 비교 ····· 82
2. 악조 비교 ····· 101
3. 장(章) ····· 103
4. 변조와 변청 ····· 104
5. 호흡선 ····· 106

Ⅴ. 결 론 ····· 129

참고문헌 ····· 132
Abstract ····· 137
부록 ····· 142

표 목차

〈표1〉 이보형의 우조 ····· 26
〈표2〉 서용석류 중모리 악조 구분 ····· 32
〈표3〉 서용석류 중모리 장(章) ····· 40
〈표4〉 서용석류 변조와 변청 ····· 44
〈표5〉 서용석류 중모리 호흡선 유형 ····· 51
〈표6〉 서용석류 중모리 호흡선 ····· 53
〈표7〉 이보형의 우조 ····· 56
〈표8〉 원장현류 중모리 악조 구분 ····· 62
〈표9〉 원장현류 장(章) ····· 70
〈표10〉 원장현류 변조 ····· 75
〈표11〉 원장현류 호흡선 유형 ····· 80
〈표12〉 원장현류 중모리 호흡선 ····· 81
〈표13〉 서용석류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 동일선율 ····· 98
〈표14〉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유사선율 ····· 99
〈표15〉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꾸밈음 비교 ····· 99
〈표16〉 서용석류 원장현류 상이선율 ····· 100
〈표17〉 서용석류 원장현류 악조 ····· 102
〈표18〉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중모리 악조 비교 ····· 103
〈표19〉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장(章) 비교 ····· 104
〈표20〉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변청 및 변조의 악조 ····· 105
〈표21〉 서용석류 원장현류 호흡선 비교 ····· 107
〈표22〉 유파별 호흡선 비교 ····· 126
〈표23〉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동일선율 호흡선 비교 ····· 127

악보 목차

〈악보1〉 서용석류 중모리 내드름조(우조) 시김새(제1장단～제4장단) ····· 25
〈악보2〉 C청 내드름조 ····· 26
〈악보3〉 서용석류 중모리 평조 시김새(제6장단～제8장단) ····· 27
〈악보4〉 B♭청 평조 ····· 28
〈악보5〉 서용석류 중모리 계면조 시김새(제34장단～제40장단) ····· 29
〈악보6〉 C청 계면조 ····· 31
〈악보7〉 서용석류 중모리 기본형식(기-경-결-해, 제13장) ····· 33
〈악보8〉 서용석류 2장단형 축소형식 장, 기-해(제14장) ····· 34
〈악보9〉 서용석류 3장단형 축소형식 장, 기-결-해(제3장) ····· 35
〈악보10〉 서용석류 5장단형 확대형식 장, 기-경-결-결-해(제5장) ····· 36
〈악보11〉 서용석류 5장단형 확대형식 장, 기-기-경-결-해(제1장) ····· 37
〈악보12〉 서용석류 7장단형 확대형식 장, 기-경-경-결-결-해-해(제11장) ···· 38
〈악보13〉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제12장단～제13장단) ····· 41
〈악보14〉 C청 계면조 ····· 42
〈악보15〉 서용석류 중모리의 일시적 변청(제18장단) ····· 43
〈악보16〉 F청 계면조 ····· 43
〈악보17〉 서용석류 중모리 4 호흡선형 장단(제49장단) ····· 45
〈악보18〉 서용석류 중모리 5 호흡선형 장단(제21장단) ····· 45
〈악보19〉 서용석류 중모리 6 호흡선형 장단(제10장단) ····· 46
〈악보20〉 서용석류 중모리 7호흡선형 장단(제41장단) ····· 46
〈악보21〉 서용석류 중모리 8호흡선형 장단(제27장단) ····· 47
〈악보22〉 서용석류 중모리 9호흡선형 장단(제33장단) ····· 47
〈악보23〉 서용석류 중모리 10호흡선형 장단(제4장단) ····· 48
〈악보24〉 서용석류 중모리 11호흡선형 장단(제11장단) ····· 48
〈악보25〉 서용석류 중모리 12호흡선형 장단(제42장단) ····· 49
〈악보26〉 서용석류 중모리 13호흡선형 장단(제23장단) ····· 49
〈악보27〉 서용석류 중모리 14호흡선형 장단(제17장단) ····· 50
〈악보28〉 원장현류 내드름조(우조) 시김새(제1～4장단) ····· 55
〈악보29〉 C청 내드름조 ····· 56
〈악보30〉 B♭청 평조 ····· 57
〈악보31〉 원장현류 중모리 평조 시김새(제7장단～제10장단) ····· 57

〈악보32〉 B♭청 평조 ····· 59
〈악보33〉 C청 계면조 ····· 59
〈악보34〉 원장현류 중모리 계면조 시김새(제39장단～제45장단) ····· 60
〈악보35〉 원장현류 중모리 기본형식, 기-경-결-해(제22장단～제25장단) ····· 63
〈악보36〉 원장현 중모리 축소형식, 기-해(제6장) ····· 64
〈악보37〉 원장현류 중모리 축소형식, 기-결-해(제5장) ····· 65
〈악보38〉 원장현류 중모리 축소형식, 기-경-해(제10장) ····· 66
〈악보39〉 원장현류 중모리 확대형식, 기-경-경-결-해-해(제9장) ····· 67
〈악보40〉 원장현류 중모리 확대형식 기-경-경-결-해-해(제12장) ····· 68
〈악보41〉 원장현류 중모리 돌장(제4장) ····· 71
〈악보42〉 C청 계면조 ····· 72
〈악보43〉 B♭청 평조 ····· 72
〈악보44〉 원장현류 중모리 일시적 변조(제26장단) ····· 74
〈악보45〉 B♭청 평조 ····· 74
〈악보46〉 원장현류 중모리 2호흡선형 장단(제31장단) ····· 76
〈악보47〉 원장현류 중모리 3호흡선형 장단(제17장단) ····· 76
〈악보48〉 원장현류 중모리 4호흡선형 장단(제34장단) ····· 76
〈악보49〉 원장현류 중모리 5호흡선형 장단(제14장단) ····· 77
〈악보50〉 원장현류 중모리 6호흡선형 장단(제37장단) ····· 77
〈악보51〉 원장현류 중모리 7호흡선형 장단(제6장단) ····· 78
〈악보52〉 원장현류 중모리 8호흡선형 장단(제38장단) ····· 78
〈악보53〉 원장현류 중모리 9호흡선형 장단(제15장단) ····· 79
〈악보54〉 원장현류 중모리 10호흡선형 장단(제42장단) ····· 79
〈악보55〉 동일선율(서용석류 제1장단 - 원장현류 제1장단) ····· 82
〈악보56〉 동일선율(서용석류 제2장단-원장현류 제2장단) ····· 84
〈악보57〉 동일선율(서용석류 제3장단-원장현류 제3장단) ····· 85
〈악보58〉 동일선율(서용석류 제4장단-원장현류 제4장단) ····· 86
〈악보59〉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장단-원장현류 제6장단) ····· 88
〈악보60〉 동일선율(서용석류 제6장단-원장현류 제11장단) ····· 89
〈악보61〉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1장단-원장현류 제39장단) ····· 90
〈악보62〉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2장단-원장현류 제40장단) ····· 91
〈악보63〉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3장단-원장현류 제41장단) ····· 92
〈악보64〉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4장단-원장현류 제42장단) ····· 93
〈악보65〉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5장단-원장현류 제43장단) ····· 94

〈악보66〉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6장단-원장현류 제44장단) ····· 95
〈악보67〉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7장단-원장현류 제45장단) ····· 96
〈악보68〉 유사선율(서용석류 제8장단-원장현류 제9장단) ····· 97
〈악보69〉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1장단-원장현류 제1장단) ····· 108
〈악보70〉 한주환류 전승선율(제1장단) ····· 109
〈악보71〉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2장단-원장현류 제2장단) ····· 110
〈악보72〉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장단) ····· 111
〈악보73〉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3장단-원장현류 제3장단) ····· 111
〈악보74〉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4장단-원장현류 제4장단) ····· 112
〈악보75〉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장단-원장현류 제6장단) ····· 113
〈악보76〉 한주환류 전승선율(제7장단) ····· 114
〈악보77〉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6장단-원장현류 제11장단) ····· 115
〈악보78〉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1장단-원장현류 제39장단) ····· 116
〈악보79〉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2장단-원장현류 제40장단) ····· 117
〈악보80〉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3장단-원장현류 제41장단) ····· 118
〈악보81〉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7장단) ····· 119
〈악보82〉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4장단-원장현류 제42장단) ····· 119
〈악보83〉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8장단) ····· 120
〈악보84〉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5장단-원장현류 제43장단) ····· 121
〈악보85〉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9장단) ····· 122
〈악보86〉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6장단-원장현류 제44장단) ····· 122
〈악보87〉 한주환류 전승선율(제30장단) ····· 123
〈악보88〉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7장단-원장현류 제45장단) ····· 124
〈악보89〉 한주환류 전승선율(제31장단) ····· 125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문제 제기

산조는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의 기량이 잘 드러나는 음악 중 하나이다. 19세기 말에 김창조(金昌祖 1865～1919)[1] 및 한숙구(1849～1925)[2]에 의해 가야금산조가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이후, 백낙준(白樂俊, 1876-1930)에 의해 거문고 산조[3]로, 박종기에 의해 대금산조[4]로 확장되었다. 뒤이어 피리산조, 해금산조, 아쟁산조, 단소산조[5]와 철현금산조[6]로 다양한 악기로 파생되었다.

산조의 확장성은 전통음악의 교육 방식인 구전심수[7]와 관련이

---

1) 김창조는 19세인 1884년 무렵에 가야금산조의 틀을 짰다고 한다. 문재숙, “김창조 가야금산조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5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7), 285쪽.

2) “한숙구의 고향인 능주와 동복의 촌로들에 의하면 대금산조와 가야금산조를 연주하였다고 한다. 이후 대금산조는 한수동, 한주환에게 가야금산조는 한수동, 안기옥, 서공철, 김윤덕 등에게 전해졌다.” 김세종, “전남 화순지역의 명인명창과 음악적 전승실태”, 『한국음악사학회 논문발표집』 제7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7), 179쪽.

3) 거문고산조가 처음 연주된 시기는 1914년-1918년 무렵 사이로 전한다.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5집(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5), 175～208쪽.

4) 한숙구 한수동 등이 대금산조를 먼저 연주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근거는 없고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박종기의 유성기 음반이 최초이다. 박환영, “대금산조의 변천 과정 연구”, 『한국학연구』제 34권(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70쪽.

5) “추산(秋山) 전용선(全用先1890～1965)에 의해 단소로는 연주가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산조가 만들어져 단소의 주법과 음악적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용구, “추산 전용선의 단소 산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쪽.

6) “철현금은 김영철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고, 철현금 산조 또한 김영철에 의해 처음 연주되었다.” 고보석, “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 및 전승에 대한 음악적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논문, 2016, 1쪽.

7) 전통적인 음악교육의 방법. 입으로 전해주고 마음으로 가르침을 이르는 말로 가

있다. 구전심수로 전수 된 음악은 학습자의 색깔이 첨가되어 악기별로 많은 유파가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산조의 악보 작업이 진행되며, 구전심수의 전승 방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8)]

대금산조도 구전심수의 방식을 통해 전승되었다. 대금산조를 연주한 초창기 명인으로는 한숙구(1849-1934), 박종기(朴鍾基, 1879~1941)등 여럿이 있으나[9)], 그 중,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은 박종기의 유성기 음반이다.[10)] 그 후, 대금산조는 크게 두 더늠[11)]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는데, 시나위더늠 산조[12)]와 소리더늠 산조[13)]가 그것이다. 박종기로부터 시작된 소리더늠 산조의 계보는

르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변미혜 외, 『국악용어사전』(서울: 민속원, 2012), 20쪽.

8) 송혜진은 전통음악의 전승방식 변화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구전심수의 교육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듣고 배워 외우고 독공의 시간을 거쳐 음악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전심수의 교육 방식은 일제강점기부터 20세기 후반에 걸쳐 점차 사라졌다. 그 이유로는 "음악의 업을 이어온 전승 집단이 해체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체계와 방식"으로 악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송혜진, "현대 국악, 그 원형성과 변화·생성", 『한국음악문화연구』 제6집(부산: 한국음악문화학회, 2015), 29쪽.

9) "초창기 대금산조를 연주한 인물로는 한숙구(1849-1934)와 그의 아들 한수동(1895-?), 박종기(1879-1941), 전용선(1888-1964), 편재준(1913-1963), 강백천(1898-1982), 최옥삼(1905-1956), 한주환(1904-1963) 등으로 알려져 있다." 박환영, "대금산조의 변천 과정 연구", 『한국학연구』 제34권(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70쪽.

10) 박환영, 위의 논문(2010), 70쪽.

11) 이전에 없던 소리를 더 넣었다는 뜻. 변미혜 외, 앞의 책(2013), 31쪽.

12) 시나위 더늠 산조라는 용어는 강백천이 산조를 만들 때 시나위나 육자배기를 차용해 생긴 용어이다. 음악적으로는 음을 흘러내리는 미분음기법이 자주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박환영, 앞의 논문(2010). 또한, 배병민은 그의 논문에서 강백천류 대금산조(시나위더늠 산조)에서 계면조 선율만 나타나고, 한주환류 대금산조(소리더늠 산조)는 다양한 악조가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며 소리더늠 산조와 시나위더늠 산조의 차이점이라고 기술하였다. 배병민, "김동진류 대금산조 연구", 『한국국악학술대회 학술자료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14), 140쪽.

13) 소리더늠 산조는 박종기가 춘향가의 군로사령나가는 대목이나 봉장취 등 판소리의 몇 대목을 산조에 도입해서 생긴 명칭이다. 계면조 이외의 다양한 악조의 선율로 구성된 것이 시나위더늠 산조와 차이가 있다. 박환영, 앞의 논문(2010),

제1세대의 생성기, 제2세대의 전승기, 제3세대의 확장기를 거치며 현재의 유파로 확대되었다.[14]

소리더늠 대금산조의 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박종기에게 한주환이 대금산조를 배웠으며[15], 한주환으로부터 3세대인 서용석[16], 이생강[17], 원장현[18]은 대금산조를 직간접적으로 학습하였다.

대금산조의 확장기인 3세대에는 대금산조가 다양한 유파로 분파되는데, 3세대의 대금산조 유파들은 박종기와 한주환의 대금산조를 바탕으로 이연주 경향과 본인들의 음악적 개성을 첨가하여 자신들의 유파를 완성하였다.[19] 하지만, 현재까지의 3세대 대금산조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금산조의 세대 간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 선율 비교가 중심이 되어왔다.[20]

본 논문의 목적은 3세대 대금산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

14) 임재원, “大笒散調의 生成 및 傳承과 擴張”,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56쪽.

15) 박종기로부터 한주환이 대금을 배웠다는 사실은 이생강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생강에 의하면 한주환이 30세쯤에 유성기 음반으로 박종기 대금산조를 듣고 광주에서 박종기를 만난 뒤 목포에서 자주 배웠다고 증언하였다. 이진원·김가람, 『대금산조』(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37쪽.

16) 서용석은 1959년부터 한주환에게 대금을 배운 적이 있다. 오경수, “남도살풀이춤의 대금반주선율 연구: 서용석의 시나위와 산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7, 8쪽; 서용석이 처음 대금을 배운 김광식도 박종기에게 대금을 배워 박종기-김광식-서용석으로 이어지는 사사 계보가 이어진다. 이진원·김가람, 위의 책(2007), 121쪽.

17) “이생강은 1948년에 한주환에게 약 3주간 대금을 배웠으며 이후 부산에서 다시 만나 1951년부터 1962년까지 대금산조를 배웠다. 이후 한주환의 사후에는 생전에 함께 활동했던 한일섭 명인을 통해 대금산조 가락을 전해 배웠다.” 권용현, “한주환류와 이생강류 대금산조 선율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쪽.

18) 원장현은 한주환에게 한일섭을 통해 간접으로 사사했다. 1969년 한일섭 명인에게 한주환류 대금산조를 전해 배웠다. 한일섭 명인은 아쟁산조의 창시자이고, 한주환과 음악활동을 같이하며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원완철, 『원장현류 대금산조』(서울: 도서출판 무송, 2017), 8쪽.

19)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56쪽.

20) 3세대 대금산조를 비교한 논문들은 대금산조의 전승선율을 밝히는 목적으로 사용된, 동일· 유사선율과 상이선율을 구분하는 연구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이는 다음 장인 2.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것이다. 3세대의 대금산조 유파 중 독창적으로 평가되는[21] 서용석류 대금산조(이하 서용석류)의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이하 원장현류)의 중모리를 선율 비교와 더불어 악조, 장, 호흡선의 기준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21)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3세대 대금산조들의 선율을 비교했을 때, 서용석류와 원장현류가 비교적 높은 상이선율의 비율을 보인다.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이생강류 대금산조의 동일유사선율은 53.2%이다.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동일유사선율은 17.2%이다.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의 동일유사선율은 32%이다. 권용현, "한주환流와 이생강流 대금산조 선율비교-자진모리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건형, "한주환류, 서용석류 대금산조 선율비교연구-자진모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서정미, "한주환 원장현의 선율비교 연구-자진모리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 선행연구

전통음악에서 대금산조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현재까지 대금산조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최초의 대금산조에 관한 연구물은 1984년에 발표된 김순옥의 석사학위논문 "대금산조 진양조의 조와 선율비교: 한범수류를 중심으로"이다.[22] 김순옥의 논문은 대금산조 진양의 악조를 우조, 평조, 계면조, 진계면, 변계면으로 구분하고, 한범수류 대금산조를 박종기의 소리더늠 산조의 계보로 규정하였다.[23] 이후 발표된 논문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종기의 대금산조가 남긴 음악적 유산과 그 계보를 밝히는데 천착하였는데 그 연구방법으로서 선율비교를 사용하였다. 1세대의 대금산조와 2세대, 3세대의 대금산조의 선율을 비교하여 동일・유사선율과 상이 선율을 구분하고, 동일・유사선율 대금산조의 계보를 증명하고, 보편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먼저, 1세대인 박종기류 대금산조와 2세대로 분류되는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한주환류 전승 계보를 밝힌 연구자로는 박환영, 권선정, 이주항이 있다.

박환영은 박종기류 대금산조와 한주환류 대금산조의 음악적 연관성을 밝히고, 한주환의 창의적 계승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소리더늠 산조와 시나위 더늠 산조의 유래와 전승계보를 밝히고, 그 중, 소리더늠 산조의 전승과 변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박종기류 대금산조와 한주환류 대금산조의 선율 비교 분석을 통해, 환주환류 대금산조에 전해진 박종기의 음악적 유산과 한주환의 창의적 계승에 관해 분석하여,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중중모리장단의 추가, 둘째, 변청의 사용, 셋째, 계면조 선율의 압도적 증가, 넷째, 산조에 판소리 성음을 도입한 것이다. 박환영은 한주환

22) 이현창, "대금산조 연구사의 분석적 검토와 문제점 고찰", 『음악과 민족』 제27권(부산: 민족음악학회, 2004), 234쪽.
23) 김순옥, "대금 산조의 조와 선율비교-한범수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의 창의적 계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주환의 다채로운 사사 이력[24], 한주환의 창극 단체 경력, 산조 아쟁의 출현과 판소리의 서편제화 등을 들었다. 끝으로 박환영은 새로운 대금산조를 위한 창의적 계승의 방법 다양한 리듬과 새로운 음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25]

권선정은 박종기류 대금산조와 2세대인 한주환류와 한범수류의 진양조를 비교 연구하여 1세대에서 2세대로 전승된 선율과 새롭게 창작된 선율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한범수류가 한주환류에 비해 박종기류 대금산조의 선율을 더 많이 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하여, 한주환류는 우조 창작선율이, 한범수류는 계면조 창작선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분석하였다.[26]

다음으로, 2세대인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3세대인 서용석 원장현 이생강의 대금산조를 연구하여 그 전승 계보를 밝힌 연구자로는 황규일, 이용구, 변제남, 서승미가 있다.

황규일은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비교 분석하여 그 전승 계보를 파악하였다. 황규일은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직접 채보하여,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한주환류 대금산조를 바탕으로 선율을 변화시키고, 독립선율을 삽입시키면서 새로운 산조를 만들었다고 결론 지었다.[27]

이용구는 1세대인 박종기류 대금산조로부터 2세대 한주환을 거쳐 3세대인 이생강류 대금산조까지 변이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

24) 한주환은 박종기에게 대금산조를 배우기 이전부터 한숙구 한수동 등에게 시나위 삼현육각 줄풍류 등 갖가지 대금 음악을 배운 상태였다. 박환영, 앞의 논문(2010), 93쪽.

25) 박환영, 앞의 논문(2010).

26) 권선정 “대금산조의 전승과 생성-박종기류와 비교한 한주환·한범수의 생성된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05.

27) 황규일, “서용석류 대금산조 선율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용구는 박종기류 대금산조와 한주환류 대금산조 이생강류 대금산조의 선율분석을 통해 박종기에서 한주환으로 전승된 가락과 한주환에서 다시 이생강류로 전승된 가락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박종기에서 한주환으로 전승된 가락은 진양조에 있어 모두 20장단, 한주환류에서 이생강류로 전승된 가락은 모두 55장단으로 밝혔다. 아울러 박종기류에서 한주환류를 거쳐 이생강류까지 전승된 가락은 모두 13장단으로 밝혔다. 더하여 이용구는 "산조는 결국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창시되었으나 전승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선율일지라도 많은 변이가 일어나며 새로운 선율이 첨가되어 온 것"으로, 그 변이의 유형을 7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음 또는 부분적인 선율이 첨가 및 삭제된 경우, 둘째, 동일 음 또는 동일선율이 늘어나거나 축소된 경우, 셋째, 부분적으로 선율이 변형된 경우, 넷째, 리듬의 변형이 나타난 경우, 다섯째, 시김새가 변형된 경우, 여섯째, 동일선율의 위치를 바꾼 경우, 일곱째, 동일 음을 당기거나 미룬 경우이다.[28]

서승미는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중심으로 한주환류 대금산조와 김동진류 대금산조와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서정미는 원장현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토대가 된 김동진류 대금산조와 한주환류 대금산조의 선율 비교를 통해 그 전승 계보를 증명하였다. 그 결과, 원장현류 대금산조가 소리더늠 산조인 한주환의 영향과 시나위더늠 산조인 김동진류 모두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토대로 원장현의 독창적인 선율이 있음을 증명했다. 원장현류 대금산조 전체 359장단 중 한주환류와 김동진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은 118장단(13%)이고, 원장현의 독창적인 가락은 241장단(67%)으로 밝혔다.[29]

---

28) 이용구, "대금산조의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변이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9) 서정미, "원장현류 대금산조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변제남은 한주환류 대금산조 진양조의 선율과 한범수,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의 대금산조의 진양의 선율비교를 통하여 그 전승계보를 파악하였다. 그 방법으로 한범수,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의 대금산조에서 드러나는 한주환류 대금산조와의 유사선율과 독창선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한범수류 대금산조의 경우 한주환류와 유사한 선율이 우조 56.33%, 평조 16.66%, 계면조 9.37%이다. 이생강류는 우조 100%, 평조 75%, 계면조 13.21%, 변청계면조 46.66%이다. 서용석류는 우조 100%, 평조20%, 계면조 9.3% 변청계면조는 4.16%이다. 원장현류는 우조100%, 평조 75%, 계면조7.5%, 변청우조 2장단, 변청계면조 5.25%로 밝혔다.[30]

이후, 3세대의 산조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대금산조의 계보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선율분석방법을 고수하였는데, 두 산조 간의 동일 유사선율과 상이선율을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해당 연구자로는 장진엽, 박희진 이민주가 있다.

장진엽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중중모리를 비교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 두 대금산조의 유사선율과 동일선율을 구분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 중중모리를 분석한 결과 총 144장단 중 유사선율은 12장단으로 나타났고 동일선율은 36장단이다. 반면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중중모리를 분석한 결과 총 82장단 안에서 유사선율은 8장단으로 나타났고 동일선율은 11장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5.5%이고,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중모리의 9.7%에 해당하며, 동일선율 34장단은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중모리의 23.6%이고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중모리의

30) 변제남, “대금산조의 유파별 선율비교 -한주환류 진양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41.4%에 해당한다.[31]

박희진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자진모리를 비교하였다.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두 대금산조의 동일선율과 유사선율을 구분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의 대금산조의 동일선율은 총 16장단, 유사선율은 총 7장단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나면, 동일선율의 경우 서용석류 자진모리의 9.9%에 해당되며, 원장현류의 자진모리에 12.8%이 해당한다. 반면 유사선율은 서용석류 자진모리의 4.3%에 해당되며, 원장현류의 자진모리의 5.6%라고 한다. 이 논문은 3세대 산조인 서용석류 원장현류 대금산조가 2세대인 한주환류 대금산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일 유사선율보다 각기 독창적인 가락을 만들었음을 시사했다.[32]

이민주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중중모리 리듬을 분석하였다. 위 두 논문은 동일선율과 유사선율을 비교했다면 이 논문은 리듬을 분석한 특징이 있다. 두 산조 모두 3박형을 중심으로 박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며, 원장현류가 서용석류에 비해 2박형 리듬이나 혼합형 리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금산조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임재원과 안성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금산조를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꾸준히 대금산조를 연구하였다. 임재원과 안성우의 논문은 대금산조의 전체적인 모습이 파악할 수 있다.

안성우는 강백천류 대금산조, 서용석류 대금산조,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음 조직과 대금산조의 요성을 분석하여 대금산조의 리듬

31) 장진엽,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선율비교 연구-중중모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2) 박희진,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선율비교연구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구조를 연구하였다. 안성우는 대금산조 음 조직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우조라고 구분 되는 선율을 우조, 평조로 구분하였다. 둘째, 평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도(b♭)종지 평조[33]와 솔(f)종지[34]로 구분하였다. 더하여 솔(f)종지 평조를 한 옥타브 올려 연주한 선율은 '덜렁제'로 구분하였다. 셋째, 우조와 계면조는 출현음은 같으나, [35] 시김새가 달라 '계면길 우조'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다고 보았다. 넷째, 자진모리의 호걸제는 우조를 한 옥타브 올려서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안성우는 대금산조의 음조직을 우조, 평조, 계면조로 나누었으며, 우조는 다시 우조와 호걸제(라음계)로 나누었다. 평조는 도(b♭)종지 평조와 솔(f)음 종지 평조, 솔(f)음 종지 평조를 한 옥타브 올린 호걸제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안성우는 대금산조에서 나타나는 요성과 각 악장의 리듬구조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대금산조의 요성은 각 장단이 분박과 일치하거나, 그 분박을 더 분할하는 세분한 분박의 리듬형태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성우가 분석한 요성과 리듬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양의 리듬은 3분박이며, 1/3박이 다시 세마치형 리듬인 3분박과 중모리형 리듬인 4분박으로 나뉜다. 둘째, 중모리 장단의 리듬은 2분박이다. 셋째, 중중모리장단의 리듬은 2분박이고 이를 헤미올라 리듬으로 분할하면 중모리장단, 세 개씩 분할하면 자진모리장단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넷째, 자진모리장단은 3분박 리듬 패턴이며 이는 자진모리 요성과 같다.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의 산조 5종(박종기류 대금산조, 한주환류 대금산조, 서용석류 대금산조, 원장현류 대금산조, 이생강류 대금

33) 솔-라-도-레-미의 음 조직.
34) 레-미=솔-라-도의 음 조직. 안성우는 가야금산조의 평조가 이와 같다고 보았다. 안성우, "대금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35) 미-솔-라-도-레의 음조직.

산조)을 생성, 전승, 확장의 관점에서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임재원의 논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금산조를 위한 음 조직 분석틀 제시하였다. 임재원은 백대웅의 악조론[36]를 수용하여 대금산조의 악조를 미음계, 솔음계, 레음계, 라음계의 네 가지로 대별 하였다. 미음계는 계면조, 내드름조, 메나리조가 해당한다. 솔음계는 우조와 우조 호걸제가 해당한다. 레음계는 평조 호걸제가 해당한다. 라음계는 판소리 호걸제가 해당한다. 둘째. 대금산조의 구성 원리를 악장, 변청, 변조를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대금산조의 악장은 초기 세틀형식에서 중중모리장단이 추가되어 현재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 악장의 형식이 되었다. 변청은 계면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꺾는청"이 나타나는 자리의 변화로 뚜렷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변청의 유형은 4가지로 4도 위 변청, 4도 아래 변청, 5도 아래 변청, 5도 위 변청이 그것이다. 변청은 경과구 없이 본청으로 종지하며 변청하는 경우와 꺾는 아래청을 떠는청으로 기능을 바꾸면서 변청하는 경우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반면, 변조는 우조, 계면조 호걸제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 밝힌 대금산조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3세대에 걸친 대금산조의 생성, 전승과 확장양상을 정리하였다. 대금산조의 생성으로는 봉장취와 판소리 춘향가에서 받은 영향을 선율을 밝혔다. 전승으로는 3세대 대금산조에 남아있는 박종기류 대금산조와 한주환류 대금산조의 선율을 밝혔다. 박종기류 대금산조의 전승선율로는 진양과 중모리의 도입부 선율과 자진모리의 리듬형이다. 한주환류의 전승선율로는 계면조에서의 변청과 변조이다. 마지막으로 3세대 대금산조의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서용석류는 남성적인 호기로운 표현과 변청과 변조를 짧게 사용한 풍성한 음악적 표현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생강류는 메나리조와 봉장취 선율의 도입과 자

36) 백대웅·김해숙·최태현,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5).

진모리 리듬의 세분화를 특징으로 꼽았으며, 원장현류는 저음역대 선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선율감 그리고 다채로운 변청과 변조를 꼽았다.[37]

요컨대, 대금산조를 다룬 논문들은 세대에 걸친 대금산조의 전승과정을 연구하였다. 서용석류와 원장현류를 악장별 비교한 논문들은 두 산조의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악장의 선율 분석을 통해 동일・유사선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선율분석과 더불어 악조, 장, 변청과 변조, 호흡선을 비교하여, 두 유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37) 임재원, "대금산조의 생성 및 전승과 확장"(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먼저 연구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범위에 관해 서술하겠다. 연구방법은 구조적 분석방법과 악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조적 분석의 단위는 크기의 순서대로 장, 장단, 그리고 호흡선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큰 단위로 악장[38]이다. 악장은 전통의 리듬 패턴인 장단으로 구분된다. 대금산조에는 보편적으로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중모리 악장에 한정하여 다루도록 한다.

둘째, 장(章)은 기· 경· 결· 해[39]에 해당하는 여러 장단의 집합[40]으로 하나의 선율 단락[41]이다. 장(章)은 '기'장단으로 시작하여, '해'장단으로 끝맺으며, [42] '기'장단으로 새로운 장을 시작해야

38) 산조에서 장단은 악장을 뜻하는 말로도 쓰임으로 "장단"이라는 단어가 악장을 뜻하는지, 일정한 리듬 패턴으로서의 장단을 뜻하는지 혼동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모리 중중모리 등을 "악장"으로 하나의 리듬 패턴으로서의 장단을 "장단"으로 구분해 칭한다.

39) "'기(起)·경(景)·결(結)·해(解)'는 한시(漢詩)의 '기승전결론'에서 나온 것으로, '기'는 '기승전결'의 '기'에서 따온 말이고, '경'은 '기승전결'의 '승'과 '전'을 합한 말이고, '결'은 기승전결에서 '결'을 따온 말이고, '해'는 기승전결에 없는 말이다. 결국 '기승전결'대로 하자면 '맺기'가 제 4각에 구성되어야 하는데, '내고 달고 맺고 풀기'에는 제 3각에서 맺기가 구성되므로 이를 '기승전결'이라 이를 수 없으므로 그렇게 이르지 않고 '기· 경· 결· 해'로 의미를 변용하여 구성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 제30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37쪽.

40) 원장현은 산조 구성의 기본 원리로서 기승전결을 이야기하며, 하나의 기승전결를 가진 선율 단위를 마루라고 칭하였으나, 본고에서 마루가 가진 다양한 의미와 혼동하지 않도록, 장(章)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원장현과의 대담내용, 대담일자: 2020년 10월 18일.

41) 정지영은 산조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선율 단락을 기-경-결-해로 보았다. 이러한 선율 단락은 문장에서 '문단'에 해당하며, 산조의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정지영, "가야금산조 진양조 구성 원리-김창조계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5쪽.

42) 최태현은 산조의 단락을 '마루'로 구분하였는데, 내는가락(시작선율/'기'선율)과 푸는가락(종지선율/'해'선율)로 하나의 단락을 구분하였다. 최태현, "서용석해금산조의 선율 구성틀에 관한 연구" 『중앙음악연구』 제6집(서울: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7), 44쪽.

한다. 그 중 '해' 장단은 선율 단락을 마무리 짓는 일종의 관례적 선율 패턴으로서 종지선율로 구분할 수 있다.[43] 즉, '기'에 해당하는 장단부터 '해'에 해당하는 종지선율까지를 한 개의 장(章)으로 한다. 장(章)은 그 길이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기본형은 기· 경· 결· 해를 한 장단씩 갖춘 4장단형이다. 기· 경· 결· 해 중 한 개 이상이 생략된 장을 축소형식 장으로 하며, 기· 경· 결· 해 중 한 개 이상이 중복된 장을 확대형식 장이라고 한다. 축소형식 장으로는 2장단형 3장단형, 확대형식 장은 6장단형 7장단형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위는 한 장단이다. 하나의 리듬 패턴으로 중모리 악장에서는 중모리 장단이다. 중모리 장단은 12박으로 이뤄진 리듬 패턴이다.

네 번째 단위는 호흡선이다.[44] 호흡선은 관악기에서 소리를 연결하거나 끊기 위해 사용하는 연주법 중 하나이다. 관악기의 경우 소리를 연결할 때는 한 호흡으로 연주하고, 소리를 끊을 때는 호흡을 멈추고 새로운 호흡을 악기에 불어 넣어 연주한다.[45] 호흡선[46]

---

43) 권도희는 산조는 악기 구조라는 물리적 한계와 노랫말의 보조를 받지 않고 음악적 논리만으로 음악을 구성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성악인 판소리보다 엄격한 음악적 관례를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권도희, "산조 발생론 검토-시나위 발생론·봉장취 발생론· 판소리 기악화론 재론-", 『한국음악연구』 제63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18), 29쪽.

44) 대금 연주 호흡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로는 이재익과 정은아가 있다. 이재익은 김기수와 김성진이 연주한 중광지곡 상령산 호흡점을 비교하여 김성진의 호흡점이 더 빈번함을 밝혔다. 정은주는 영산회상의 대금 호흡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대금의 호흡점이 피리보다 많다. 둘째, 대금의 호흡은 선율의 매듭과 관련이 있다. 셋째, 연음 구간에서는 호흡을 새로 한다. 넷째, 대금의 취법 상 피리보다 더 많은 호흡점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저취, 평취, 역취의 변화에 따라 호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재익, "영산회상 중 상영산의 대금 호흡점 및 선율 비교 연구 : 〈죽헌〉 김기수와 〈녹성〉 김성진에 기하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은아, "영산회상 대금선율의 특징",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5) 관악기의 호흡선은 활로 연주하는 해금의 운궁법과 유사한 개념이다. 해금은 소리를 끊기 위해 하나의 활로 연주하고, 소리를 끊을 때는 활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연주한다. 류정연, "정악 해금 운궁법에 관한 고찰", 『국악교육』 제28집(경기: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09)

을 악보에 표기할 때는 슬러[47]로 한다.[48] 호흡선은 슬러가 시작된 음표부터 끝나는 음표까지이며, 슬러가 표기되지 않은 음표의 경우에는 하나의 호흡선으로 간주된다. 음악의 분석을 위하여 호흡선은 장단별로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임의의 장단의 첫 번째 호흡선은 제 1호흡선, 두 번째 호흡선은 제 2호흡선으로 지칭한다. n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은 n호흡선형 장단으로 부른다. 만약 임의의 장단이 4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됐다면, 4호흡선형 장단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악조에 대해 설명하겠다. 본고에서는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중모리를 임재원[49]과 이보형의 악조론을 수용하여 분석하며, 사용되는 악조는 내드름조, 평조, 계면조이다.

내드름조는 대금산조의 중모리와 중중모리 도입부에 나타나는 악조이다. 내드름조는 우조처럼 꿋꿋하고 씩씩하게 연주하지만, 음조직은 계면조와 같은 미음계[50]이기 때문에, '우조'[51]라는 조명 대

---

46) 선행 연구에서는 호흡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호흡선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호흡점은 연주를 위해 숨을 들이키는 점을 지칭하지만, 본고에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하여 연주하는 선율을 표현하기 위해 호흡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7) 둘 또는 그 이상의 음표의 위 또는 및에 붙이는 호선. 슬러는 레가토와 더불어 악곡의 구별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즉 2개 슬러의 구분이 확실해지도록 활의 방향을 바꾸거나, 소리 또는 음을 끊어서 연주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전편찬위원회, 『음악용어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695쪽.

48) 서양음악에서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를 표기할 때 슬러가 사용되는데, 호흡선과 유사한 개념이다. 호흡선과 마찬가지로 아티큘레이션은 소리를 연결하거나 끊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소리를 연결하는 것을 레가토, 소리를 끊는 것을 스타카토로 부른다.

49) 악조는 음계를 기준으로 미음계, 솔음계, 레음계, 라음계의 4가지로 구분한다. 미음계 는 미-솔-라-도시-레의 음조직으로 본청은 라이다. 계면조, 내드름조, 메나리조가 해당된다. 솔음계는 솔-라-도-레-미의 음조직으로 본청은 도이다. 악조로는 내드름조와 내드름조 호걸제가 있다. 레음계는 레-미-솔-라-도의 음조직으로 본청은 솔이다. 악조로는 우조와 우조 호걸제가 해당된다. 라음계는 라-도-레-미-솔의 구성음으로 본청은 판소리 호걸제가 이에 해당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50) 미-솔-라-도-시의 음조직으로 라 음이 본청이다.

51) 안성우는 그의 논문에서 대금산조의 우조는 음 조직은 미-솔-라-도-시로 계면

신 '내드름조'라는 조명을 사용한다.[52] 이러한 선법은 다른 산조에서도 종종 나타난다.[53] 평조의 음 조직은 솔-라-도-레-미(파)이고 본청은 '도'음이다. '레'음은 퇴성하는 음이고, '솔'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54] 마지막으로 계면조의 음 조직은 미-라-도-시로 본청은 '라'음이다. '미'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 '도'음은 '시'음으로 꺾는 음이다.[55]

다음은 변청과 변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변청은 음의 상호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본청의 음높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변청과 다르게 선법을 바꾸어, 음정 간격과 음의 기능이 다 바뀌는 것을 말한다.[56]

본고에서 변청과 변조가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돌장과 일시적 변청· 변조이다. 돌장은 변조나 변청의 경과구로서 역할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악조로 구성된 장 사이에 구성되어 혼합조나 혼합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악조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조와 같지만, 꺾는 음이 나오지 않는 등 시김새가 계면조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악조의 조명을 '계면길 우조'로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안성우, "대금산조의 음조직과 시김새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2) 임재원, 앞의 논문(2015).

53) 음 조직은 계면조이지만, 꿋꿋한 연주 스타일과 시김새는 우조의 스타일로 연주되는 선율은 가야금산조에서 자주 나타난다. 먼저, 박세연은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양조 우조 부문은 계면조의 음 진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세연,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쪽. "김해숙은 가야금산조 진양조 우조부분을 계면조 선법으로 해석하였으나, 시김이나 각 음의 특징 및 선율 진행은 계면조와 다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김해숙은 이 부분을 계면조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악상면에서 우조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신은주, "판소리 우조와 평조에 대한 두 異論 －백대웅과 이보형의 판소리 악조론-", 『한국음악연구』 제63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18), 262쪽.

54) 이보형, "판소리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창간호(전북: 국립민속국악원, 2001).

55) 이보형은 계면조의 원류를 육자백이토리로 보았다.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4집(서울: 한국국악학회, 1996), 12쪽.

56)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9쪽.

악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일시적 변청· 변조는 음악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57]. 일시적 변청· 변조는 음악을 한 장단 혹은 두 장단 내에서 변청 혹은 변조를 한 후 다시 원래의 악조로 돌아와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대금산조의 전체 악장 중 중모리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모리가 산조의 중간 속도로 연주되는 악장으로 산조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악장(진양조, 중중모리, 자진모리)에 비하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58]둘째로 중모리가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산조의 중요한 음악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판소리는 중모리로 짜인 대목이 많다.[59] 또한, 고수 김청만도 "중모리는 판소리의 기본바탕을 이루는 장단이다"라고 할 만큼 중모리장단은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대금산조의 중모리를 분석하면, 대금산조의 기본바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연구 자료로 임재원이 채보한[60]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악보를 사용하겠다. 이 악보는『뿌리깊은나무 조선소리선집7-서용석 대금산조』앨범 중 "서용석 대금산조" 음원의 중모

---

57) 돌장은 가야금산조에만 있는 음악적 구조로 알려졌지만,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중모리에 돌장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박지윤의 논문에서 돌장의 역할은 변조와 변청이 나타나는 경과구로써 혼합조나 혼합청의 모호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선법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돌장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악조 사이에 경과구로서 있어야 한다. 둘째, 혼합조나 혼합청이 나타나야 한다. 박지윤, "가야금산조 돌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58쪽.

58) 다음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다른 연구자를 통해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다른 악장들의 연구는 선행되었다. 장진엽, 앞의 논문(2020); 박희진, 앞의 논문(2019); 정하선,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선율비교연구: 진양조장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59) 춘향가는 전체 79개 대목 중 32개 대목이 중모리 장단이며 심청가는 전체 72개 소리 대목으로 가장 많다. 최상화·양미지, "판소리 중모리 장단의 '떠는목에 관한 연구'-안숙선 오정숙 박록주 창을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제53집(서울: 한국국악학회, 2013) 143쪽.

60) 임재원, 앞의 논문(2015).

리 부분[61]과 『원장현(元長賢)대금산조』의 앨범에 실린 중모리를 임재원이 채보한 것이다. 그의 박사논문[62]에 연구자료로도 사용된 바 있어,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악보에는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악보에 수록되지 않았기에, 앞서 언급한 음원[63]의 일부를 채보하여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대금산조의 호흡선을 악보에 표기하기 위해 슬러(slur)를 추가하였다. 다음은 더 다양한 시김새를 정교하게 표기하기 위해 임재원의 채보 악보에서 두 가지만 사용되었던 농음 기호를 4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조와 계면조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내드름조와 우조에서 사용되는 D음을 E♭음으로 수정하였다.[64]

이를 위해 『뿌리깊은나무 조선소리선집7-서용석 대금산조』와 『원장현(元長賢)대금산조』에 실린 중모리 음원을 보조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용석은 총 6개의 앨범에 대금산조를 녹음하여 발매하였다.[65] 그 중, 『뿌리깊은나무 조선소리전집7』 앨범에 실린 서용석류 중모리 음원은 서용석류 긴산조의 중모리 가락이 대부분 녹음되어 있고, 임재원의 채보 악보에 기재된 선율뿐만 아니라, 6가지의

---

61) 8분 03초~16분 48초

62) 임재원, 앞의 논문(2015).

63) 『뿌리깊은나무 산조전집7』 중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중모리; 『원장현 대금산조』 중 중모리.

64) "우조에서의 e♭음은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시작음으로 쓰일 때는 e♭음에서 시작하고, 계면조와 달리 비교적 천천히 흘러내리므로 계면조와 다르게 기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면조와 동일하게 기보한다면 악조 판단에 혼란을 주게 된다."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 평조 계면조", 『한국국악학회 제68주년 전국 학술대회』(서울: 한국국악학회, 2017) 106쪽.

65) "중모리(6분 22초)", 『서용석 대금산조』, 1981년 녹음, 2001년; "중모리(10분 46초)", 『서용석류 대금산조』, 1981년 녹음, 2001년 발매; "중모리(8분 45초)", 『뿌리깊은나무 산조전집7』, 1989년 녹음, 1989년 발매; "중모리(3분 22초)", 『대금시나위』, 1990년 녹음, 1994년 발매; "중모리(7분 50초)", 『대금산조 아쟁산조』, 1991년 녹음, 1991년 발매; "중모리(2분 40초)", 『′93일요명인명창전』, 1993년 녹음, 1994년 발매.

음원 중에서 호흡선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녹음 상태가 양호하다.

다음으로, 원장현은 총 3개의 앨범을 통해 대금산조 음원을 발매하였다.[66] 그 중, 『원장현 대금산조』 앨범에 실린 원장현류 중모리는 원장현류 중모리 긴산조의 가락이 모두 녹음된 유일한 음원이다.

본고에서는 음명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금산조의 율명을 서양식 음명으로 표기하고, 저취· 평취· 역취 음역대에 따라 c, c′, c″로 구분하고자 한다. 음명이 하나의 음역대에 국한되지 않고 언급될 때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예시: C음) 본문에서 사용되는 예보는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한다.

악보에 사용되는 부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퇴성 부호이다. 부호는 얕은 퇴성으로 단2° 정도 퇴성하는 부호이다. 부호는 중간 퇴성으로 장2° 정도 퇴성하는 부호이다. 조금 깊은 퇴성으로 장3° 정도 퇴성하는 부호이다. 부호는 깊은 퇴성으로 완전4° 이상 퇴성하는 부호이다. , 부호는 꺾는 청 표시로 주로 계면조 "도"에서 사용되며 악보에서는 e♭-d 사이에 표기된다 다음으로 농음 부호이다. 부호는 굵은 농음으로, 선법상 음의 기능이 농음하는 음일 경우 사용된다. 부호는 가는 농음으로, 선법상의 음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음악의 흐름에 따라 사용된다. 부호는 푸는 농음으로 제시된 음에서 퇴성 한 후. 가볍게 농음한다. 주로 평조의 "라"에서 사용된다. 부호는 꺾는 농음으로 제시된 음에서 꺾은 후, 농음한다. 주로 계면조에서 E♭음-D음에서 사용된다. 다음으로 연주주법에 관련된 부호들이다. c 부호는 제시된 음을 다루치는 부호이다. 부호는 제시된 음과 제시된 음

66) "원장현류 중모리(6분 29초)", 『원장현 대금산조』, 1990년 녹음, 1997년 발매; "중모리(6분 23초)", 『The art world of Won, Jang-hyon』, 1993년 녹음, 1995년 발매; "중모리(3분 28초)", 『원장현 대금소리날개』, 1998년 녹음, 1998년 발매.

의 한음 위 음, 그리고 다시 제시된 음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연주하라는 부호이다. ‿ 부호는 제시된 두 음 사이를 흘러내리는 부호이다. ㅎ 부호는 혀 치는 부호이다. 마지막으로 운지법에 관련된 표기이다. 1 부호는 첫째 지공까지만 막는 부호이다. 2 부호는 둘째 지공까지만 막는 부호이다. 3 부호는 셋째 지공까지만 막는 부호이다. 4 부호는 넷째 지공까지만 막는 부호이다. 5 부호는 다섯째 지공까지만 막는 부호이다. 6 부호는 여섯째 지공까지만 막는 부호이다. ㅇ 부호는 여섯 지공 모두 개방하는 부호이다.

4. 서용석과 원장현의 학습과정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서용석과 원장현의 생애와 학습과정을 살펴본다.

가. 서용석의 생애와 학습과정

서용석(徐龍錫, 1940~2013)은 1940년 2월 7일에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다. 전통음악의 명맥을 이어오던 집안에서 태어나, 이모인 박초월 명창에게 동생들과 함께 소리를 배웠다. 서용석은 박초월 명창에게 7세부터 수궁가, 춘향가, 흥보가를 배웠으며, 10대 무렵에는 작은 이모부인 김광식[67]에게 대금을 배웠다. 20대에 이르러 여성 국극단의 반주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박만호 단장이 이끌었던 봉래극장이 그의 첫 근무지로, 당시 대기실에서 연습 중인 그의 대금 소리를 듣고 시험을 보지도 않고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신성 여성 국극단, 자랑 여성 국극단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68] 1959년 한주한에게 대금산조를 배웠다. 덧붙여 지영희가 채보하기 위해 녹음해놓은 한주환의 산조를 참고하여 자득했고 여기에 자신의 가락을 얹어 지금의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구성하였다.[69] 서용석은 생계를 위해 초동극장 옆 이발소를 하면서 음악에도 정진했다. 그 후 대금에 더 몰두하면서 당시 여성국극단의

---

67) 김광식은 경기도 도살푸리 젓대(대금)보유자로서 원적을 경기 무속의 본고장인 광주 출신으로 경기 무속의 대가인 피리분야에서 양경원에게 10년동안 배우고 다시 방용현, 박종기 두 사람에게 시나위가락 대금을 전공하였다. 또한, 경기 일원에서 무속악곡의 제 일인자인 김광채의 실제(實弟)로서 수십 년간 무속악에 종사하였으므로 현재 시나위곡 경기도 도살푸리 가락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는 일인자이며 그 역량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시나위(도살푸리, 살푸리)』 제76호(서울: 문화재관리국, 1970)

68) 고은현, "서용석류 해금산조 선율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0쪽.

69) 김상연, "서용석류 산조 선율분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6쪽.

작곡 작사를 도맡던 정철호에게 아쟁을 학습하며 여성 국극단 반주를 함께 이끌었다. 그 외에도 여성 국극단의 최고 인기를 누리던 김경수, 김진진, 조금앵과 함께 활동하며 음악적 교감을 이뤘다.[70]

서용석은 1977년에 제1회 전주대사습놀이의 장원에 급제하고 1982년에는 제1회 KBS 국악대상 관악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음악감독을 역임하는 등 민속악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였다[71].

서용석은 대금산조 이외에도 다양한 음악을 창작하였다. 그중에는 신민요에 해당하는 〈흥겨운 마을〉, 〈꽃피는 새 동산〉, 〈큰애기 순정〉, 〈사철가〉, 〈남도 흥타령〉, 〈신뱃노래〉와 〈산조합주〉가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금산조 이외에도 피리산조, 아쟁산조, 해금산조를 창작하였다. 피리 산조는 1989년 완성된 피리산조를 한세현에게 구음으로 전달하였다. 해금산조는 당시 국립국악원 단원이었던 양경숙과 박혜선과 함께 만들었다. 아쟁산조는 정철호에게 배운 아쟁산조를 자신의 산조로 발전시켰다고 한다.[72]

나. 원장현의 생애와 학습과정

원장현(元長賢, 1951~) 전라남도 담양에서 1951년 12월 27일 원광준과 신귀례의 6남매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원장현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원상록 때부터 국악을 해오던 집안이었다. 그의 부친인 원광준과 작은아버지인 원광호 역시 국악인으로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가계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원장현도 국악을 접하게 된다. 원장현은 16세에 부친 원광준 문하에서 대금을 익혔고 숙부 원광홍에게 거문고를 배웠다. 1966년에는 김용기에게

70) 오경수, 앞의 논문(2017), 8쪽.
71) '「부음」 대금명인 서용석씨 별세 외', "조선일보"(작성일자: 2013.3.18.), (https: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7/2013031701439.html).
72) 김상연, 앞의 논문(2014), 27~28쪽.

대금의 기초를 닦은 후 1967년부터 3년 동안 오진석에게 향제 풍류 삼현 시나위를 배웠다.[73]

1968년부터 원장현은 서울로 올라와 1년간 대금산조의 명인인 김동진[74]에게 짧은산조를 배운다. 다음 해인 1969년 원장현은 여성 국극단에서 대금 연주자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한일섭 선생을 만나 본격적인 산조 수업을 시작하여 1973년 한일섭이 타계할 때까지 5년간 한주환의 대금산조 공부를 계속했다. 이후, 원장현은 1982년 제8회 전주대사습대회에서 기악부 장원을 하고 이듬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아쟁, 거문고, 태평소, 대금의 연주 단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활동하며, 1985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원장현류 대금산조〉 발표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의 초빙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원장현이 영향을 받은 음악인으로는 원상록, 김동진, 한일섭을 꼽을 수 있다. 원상록은 19세기 가야금 명인이자 대금과 피리연주에도 능했던 한숙구에게 사사한 연주자이다. 담양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가까운 지방의 국악인들과 함께 활동하며 한숙구의 아들인 한수동과 함께 교류했고, 향제 풍류나 남도 삼현 시나위 등을 주로 연주했다. 원상록은 남도지방의 전통음악을 충실히 전수 받았다. 주로 남도 근교 지역인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동진은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부산, 경주, 서울 등지에서 다

73) 서정미, 앞의 논문(2019), 13쪽.

74) 본명은 김동식(金東植)이며, 호는 취송(吹松)이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55번지에서 태어났다. 형제 중 국악인이 많은데, 첫째인 큰형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59호 판소리고법의 예능보유자인 김동준, 본인은 셋째이며, 넷째인 김동표(1941-2020)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이다. 김동진은 강백천에게 대금산조를 수학한 후, 1975년에서 1976년까지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에서 민속공연단의 대금연주자로 재직하였다. 1976년 이후, 종로로 옮겨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다 1989년 2월 10일 향년 53세로 서울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배병민, 앞의 논문(2014)

양한 활동을 하였다. 김동진은 강백천에게 가야금산조와 대금산조를, 신달용에게 대금 줄풍류를 배웠고, 한주환과도 오랜 기간 교류하며 대금산조도 배웠다. 현재 김동진류는 시나위더늠 산조로 분류되지만, 선율적으로는 소리더늠 산조인 한주환류와 더 닮아있다. 김동진이 이 왼손 대금인 점과, 계면조 성음이 뛰어났다는 점은 원장현류를 연구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75]

원장현류 대금산조는 한일섭의 풍부한 음악적 영감과 그의 말년에 전수 받은 구음 가락, 김동진으로부터 배운 짧은산조, 한숙구-원상록-원광준으로 전수된 원장현의 체계적이고 폭넓은 음악적 공력이 더해져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원장현류 대금산조는 한숙구-원상록-원광준-원장현으로 이어진 가락의 직접적인 전수와 성원목-한일섭-원장현, 강백천-김동진-원장현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76]

75) 배병민, 앞의 논문(2014),
76) 원완철, 앞의 책(2017), 7～8쪽.

Ⅱ.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특징

서용석류 중모리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악조, 장, 변청과 변조, 호흡선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악조

서용석류 중모리의 악조는 음계 구성음과 본청, 시김새를 중심[77]으로 설명하겠다. 대금산조의 본청은 음악에 종지음으로 나타나며, 대금산조의 시김새는 악조에 따라 굵게 농음하는 음, 가늘게 농음하는 음, 퇴성하는 음, 꺽는 음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서용석류 중모리의 악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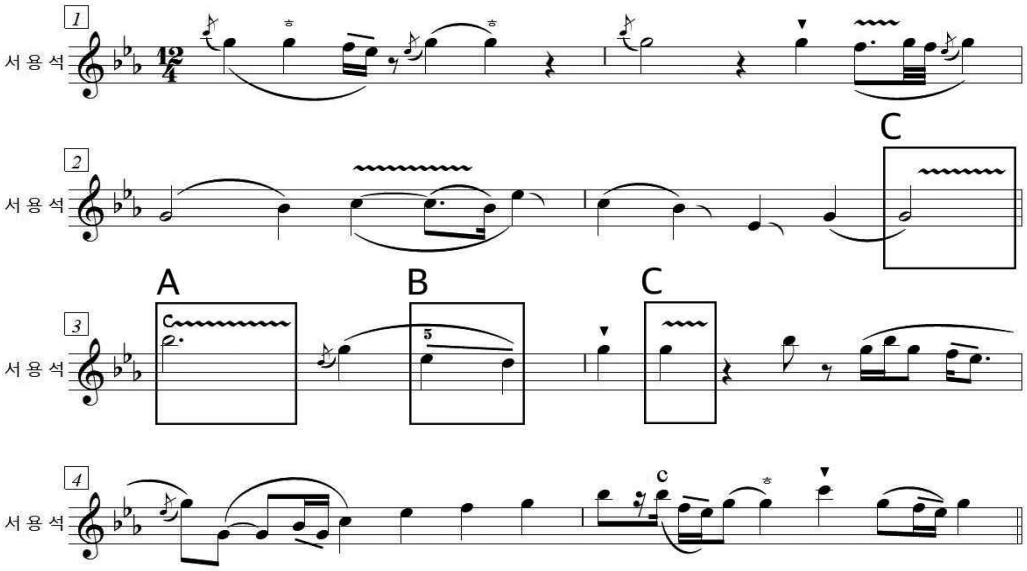
(1) 내드름조(우조)

서용석류 중모리의 내드름조는 총 4장단에 걸쳐 나타난다. 내드름(우조)을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C청 내드름조이다.[78]

77) "판소리와 산조에서 악조의 해석은 구성음만으로 부족하고 각 음의 기능과 특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신은주, 앞의 논문(2018), 265쪽.

78) "(중략) 중모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창법적인 개념에서는 우조처럼 꿋꿋하고 씩씩하게 연주하나 음조직은 미-솔-라-시-도이기 때문에 '우조'라는 조명 대신 '내드름조'라는 조명을 제시한 바 있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75쪽.

〈악보1〉 서용석류 중모리 내드름조(우조) 시김새(제1장단～제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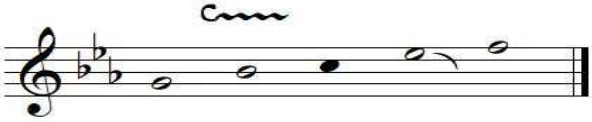


위 〈악보1〉은 서용석류 제1장단～제4장단이다. 〈악보1〉의 A부분에서는 b♭′ 음을 굵게 농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 장단의 제1박～제3박에서 총 1회 나타난다. 〈악보1〉의 B부분에서는 e♭′ 음에서 d′ 음으로 천천히 퇴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시김새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2장단의 제6박, 제2장단의 제8박, 제3장단의 제5박～제6박에서 총 3회 나타난다. 〈악보1〉의 **C부분**에서는 f음을 비교적 가늘게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시김새는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장단～제4장단 중 제2장단의 제11박～제12박과 제3장단의 제 8박에서 총 2회 나타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중모리의 C청 내드름조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1장단～제4장단이 해당하며, 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이고, 본청은 라(C)음이지만, 시김새는 우조이다. 시김새는 B♭굵게 농음하고, [79] 둘째, E♭음을 D음으로 천천히 퇴성하고, [80] 셋째, G음의 농음이 계면조에 비해 가늘다.[81] 이를 악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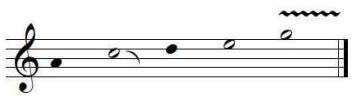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82]

〈악보2〉 C청 내드름조



79) 이보형은 우조의 시김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의 왼쪽.은 이보형이 제시한 우조의 악조이고 표의 오른쪽.은 대금의 음높이에 맞게 이조한 것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표1〉 이보형의 우조

이보형의 우조	이보형의 우조(대금ver.)
	

80) 김우진에 의하면, 현장의 연주자들은 우조와 계면조를 설명할 때 동일한 구성음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우조)과 빨리 꺾어내리는 것(계면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우조에서는 e♭음에서 d음으로 천천히 퇴성 한다. 김우진, 앞의 논문(2017),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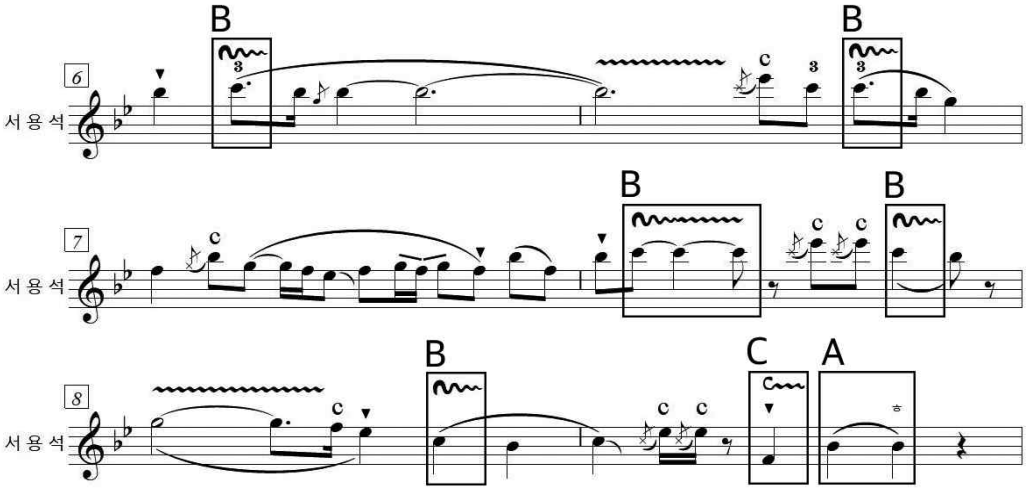
81) 이진용은 그의 논문에서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인 "Goldwave"를 사용하여 우조 부분의 g음 농음과 계면조 부분의 g음 농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조 부분의 g음 농음은 음형의 변화가 적고, 계면조 부분의 g음 농음의 음형은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조 부분의 g음 농음을 가늘게, 계면조 부분의 g음 농음을 굵게 연주하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진용, "서용석류 대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보드만의 생성적 교수이론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2) 내드름조에서 G음을 가늘게 농음하는 시김새는 계면조에서 G음을 굵게 농음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개념임으로 악보에 따로 표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평조

서용석류 중모리의 평조는 총 9장단에 걸쳐 나타난다. 평조를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B♭청 평조[83]이다. 악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의 평조의 선율을 살펴보겠다.

〈악보3〉 서용석류 중모리 평조 시김새(제6장단~제8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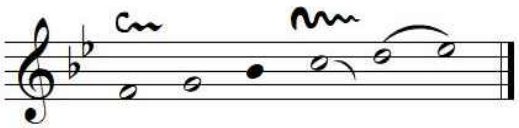
위 〈악보3〉은 서용석류 제6장단~제8장단으로, B♭청 평조의 시김새와 종지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보이다. 〈악보3〉의 A부분에서는 B♭음을 종지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음을 종지음으로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F음이 선행되는데 이러한 선율 패턴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5장단의 제9박~제11박, 제8장단 제9박~제12박, 제 11장단 제9박~제12박에서 총 3회 나타난다. 〈악보3〉의 B부분에서는 C음을 퇴성하거나 퇴성한 후 농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퇴성한 후 농음은 피치를 올려 농음을 시작하는 대금산조의 다른 농음과는 다르게 피치를 내리는 것으로 농음을 시

83) 이보형이 제시한 평조는 다음과 같다. 음 조직은 솔-라-도-레-미/파이고 본청은 '도'음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작하여, 소리를 풀어내듯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김새는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5장단 제5박, 제6장단 제2박의 제1소박, 제6장단 제11박의 제1소박, 제7장단 제 8박～제9박, 제7장단 제11박, 제8장단 제5박, 제10장단 제1박의 제1소박, 제11장단 제 박에서 총 8회 나타난다. 〈악보3〉의 C부분에서는 F음을 굵게 농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시김새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5장단의 제9박, 제8장단의 제9박, 제10장단의 제7박～제8박, 제11장단의 제 9박에서 총 4회 등장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중모리의 B♭청 평조 선율은 제5장단～제13장단이 해당하며, 음계는 솔(F)-라(G)-도(B♭)-레(C)-미(D)이고, 본청은 b♭이다. 평조의 시김새는 레(C)음은 퇴성하거나 퇴성한 후 농음하는 음이다. 솔(F)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84]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악보4〉 B♭청 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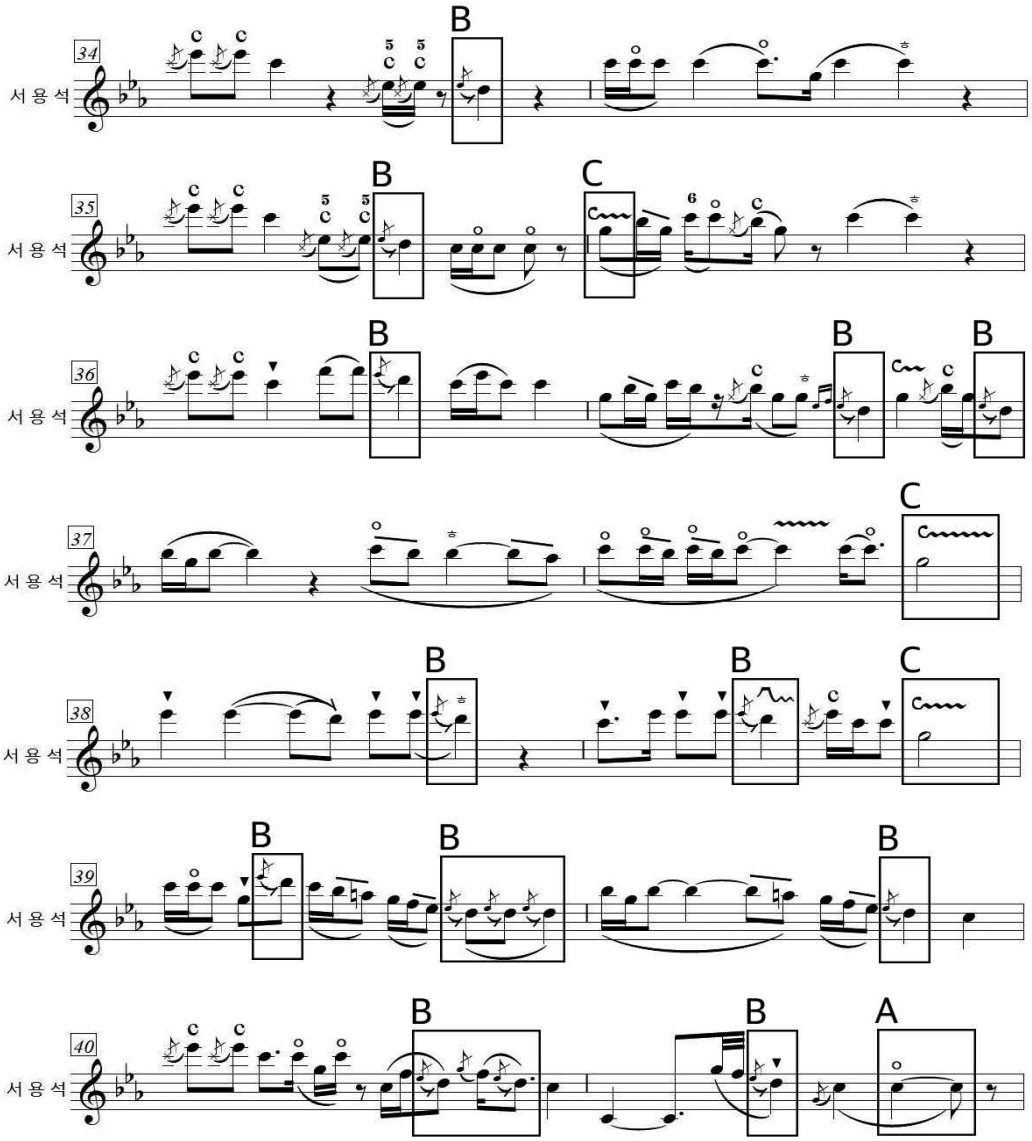
청

(3) 계면조

84) "평조라는 것은 기본 선율틀이 Sol-do-re-do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선율형에서 이 틀의 구성음이 Sol, La, do, re, mi(fa)로 되었고, 종지음 do가 청'이라 이르므로 이것이 중심음으로 인식되며, 구성음 가운데 Sol, do, re가 출현빈도가 많은 중요음이 되고, Sol에서 떠는목(요성)을 쓰고, re에서 흘러내리는목(퇴성)을 쓰는 시김새로 된 토리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보형, 위의 논문(2001),

계면조를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C청 계면조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계면조 선율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겠다.

〈악보5〉 서용석류 중모리 계면조 시김새(제34장단~제40장단)



위 〈악보5〉는 서용석류 제34장단~제40장단으로, 서용석류 중모리의 시김새와 종지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보이다. 〈악보5〉 A부분에서는 C음을 종지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패턴

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14장단의 제10박～제11박, 제19장단의 제10장단～제11박, 제21장단의 제10박의 제 2소박～제11박, 제24장단의 제10박～제11박, 제27장단의 제10박～제11박, 제31장단의 제10박～제11박, 재 33장단의 제10박～제11박, 제40장단의 제10박～제12박의 제1소박, 제44장단의 제10박～제11박, 제 48장단의 제10박～제11박, 제50장단의 제10박～제11박의 제1소박, 제 57장단의 제10박～제11박에서 총 11번 나타난다. 〈악보5〉의 B부분에서는 E♭음에서 D음으로 꺾거나 꺾은 후 농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제14장단 제3박. 제15장단 제8박. 제16장단 제1박, 제5박의 제1소박, 제8박의 제2소박～제9박의 제1소박 등 총 81회[85] 나타난다. 〈악보5〉의 C부분에서는 G음을 굵게 농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14장단 제1박～제3박, 제7박, 제9박. 제15장단 제9박. 제19장단 제1박, 제10～11박 등 총 28회[86]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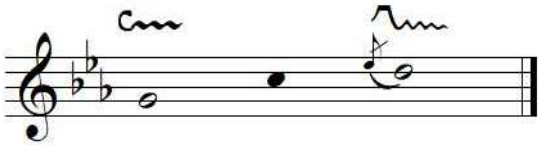
---

85) 제14장단 제3박, 제15장단 제8박, 제16장단 제1박, 제5박의 제1소박, 제8박의 제2소박～제9박의 제1소박, 제17장단 제1박, 제5박의 제1소박, 제8박의 제2소박 제18장단 제10박의 제2소박, 제19장단 제3박, 제5박의 제2소박, 제9박의 제1소박, 제20장단 제7박의 1소박, 제9박의 제1소박, 제21장단 제5박, 제8박의 제1소박, 제10박의 제1소박, 제22장단 제1박의 제2소박, 제10박, 제23장단 제1박의 제2소박. 제24장단 제1박의 제2소박, 제5박, 제8박의 제2소박, 제26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6박의 제2소박, 제8박, 제11박의 제2소박, 제27장단 제5박, 제8박. 제28장단 제5박의 제1소박, 제9박의 제1소박, 제10박의 제1소박, 제30장단 제7박, 제10박의 제2소박 제31장단 제5박, 제9박의 제1소박, 제32장단 제3박의 제1소박, 제4박의 제1소박, 제10박의 제1소박, 제33장단 제6박, 제9박, 제34장단 제5박, 제35장단 제4박, 제36장단 제10박, 제10박, 제12박의 제2소박, 제38장단 제5박, 제9박, 제39장단 제2박의 제2소박, 제5박의 제1소박, 제5박의 제2소박, 제6박, 제11박, 제40장단 제4박의 제2소박, 제5박의 제2소박, 제9박, 제41장단 제5박, 제8박의 제2소박, 제43장단 제8박의 제2소박, 제44장단 제1박, 제5박, 제8박의 제2소박, 제46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8박의 제2소박, 제47장단 제5박의 제1소박, 제12박, 제48장단 제5박, 제9박, 제50장단 제4박, 제5박, 제9박, 제52장단 제8박, 제53장단 제8박, 제54장단 제4박, 제6박의 제2소박, 제55장단 제4박, 제5박의 제2소박, 제56장단 제3박의 제2소박, 제5박, 제7박의 제1소박, 제57장단 제5박.

86) 제14장단 제1박～제3박, 제7박, 제9박, 제15장단 제9박, 제19장단 제1박, 제

정리하면, 서용석류 중모리의 C청 계면조 선율은 제 14장단~제 56장단이 해당하며, 음계는 미(G)-라(C)-시(D)-도(E♭)_이고, 본청은 라(C)음이다. 계면조의 시김새는 육자배기토리와 동일하게, 미(G)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도(E♭)음은 시(D)음으로 꺾는 음이다.[87]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악보6〉 C청 계면조



요컨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악조는 C청 내드름조(우조), B♭청 평조, C청 계면조로 분석할 수 있다. 본청은 두 개[88]로 내드름조와 계면조에서는 c음이고, 평조에서는 b♭음이다.[89]

C청 내드름조(우조)의 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이고, 본청은 라(C)이다. 시김새는 B♭음을 굵게 농음하고, E♭음은 D음으로 천천히 퇴성한다. 평조는 음계는 솔(F)-라(G)-도

10~11박, 제20장단 제10~11박, 제23장단 제5박의 제2소박~제6박, 제24장단 제9박, 제26장단 제10박, 제27장단 제9박, 제31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7박~제8박, 제32장단 제4박의 제2소박~제5박의 제1소박, 제12박, 제35장단 제6박의 제1소박, 제36장단 제11박, 제37장단 제11박~제12박, 제38장단 제11박~제12박, 제41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49장단 제1박~제2박, 제7박~제8박, 제50장단 제1박, 제8박, 제51장단 제7박~제8박, 제52장단 제9박, 제55장단 제7박, 제57장단 제1박~제3박, 제8박.

87) 이보형은 계면조의 원류를 육자배기토리로 보았다. 계면조는 미-라-시-도가 주요 선율 골격이고, '미'음에 요성을 하고 '도'음에서-'시'음으로 꺾는 목이 나타난다. 본청은 '라'음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1996), 12쪽.

88) 황준연은 대금산조의 본청을 두 가지라고 하였다. 기본청인 c음과 장 2도 낮은 보조청인 b♭음이다. 황준연,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 『민족음악학』 제18집(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6), 122쪽.

89) 원장현은 대금산조의 본청은 임종(c음)과 중려(b♭) 두 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변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원장현과의 대담내용, 대담장소: 금현국악원, 대담일자: 2020년 10월 18일.

(B♭)-레(C)-미(D)이고, 본청은 b♭이다. 시김새는 C음은 퇴성하거나 퇴성 한 후 농음하는 음이고, F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C청 계면조 선율은 음계는 미(G)-라(C)-시(D)-도(E♭)이고, 본청은 라(C)음이다. 시김새는 G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고, E♭음은 D음으로 꺾거나 꺾은 후 농음하는 음이다. 서용석류 악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의 제 1장단~제 4장단는 C청 내드름조(우조)이다. 서용석류의 제 5장단~제 11장단은 B♭청 평조이다. 서용석류의 제 14장단~제 57장단은 C청 계면조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서용석류 중모리 악조 구분

악조명	장단 위치	청	구성음	시김새
내드름조 (우조)	1~4	C	미-솔-라-시-도	퇴성: E♭→D
				굵은 농음: B♭
평조	5~13	B♭	솔-라-도-레-미(파)	퇴성· 후 농음: C
				농음: F
계면조	14~57	C	마-라-시-도	꺾기· 후 농음: E♭→D
				농음: G

2. 장(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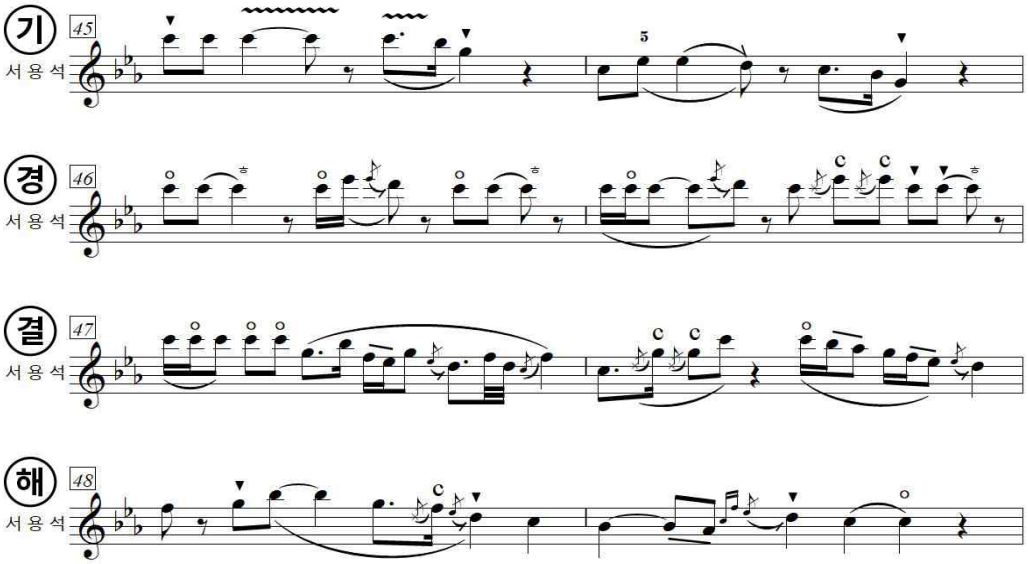
중모리의 장은 기· 경· 결·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 모여 형성된 하나의 선율 단락이다. 장은 시작 선율인 '기'와 관용적 종지선율인 '해'로 마무리한다.[90] 장의 기본형은 기· 경· 결· 해를 한 장단씩 갖춘 4장단형이다. 4장단 기본형에서 기· 경· 결· 해 중 한 개 이상이 생략된 장을 축소형식 장으로 하고, 기· 경· 결· 해 중 한 개 이상이 중복된 장을 확대형식 장이라고 하겠다.

90) 최태현은 산조의 단락을 '마루'로 구분하였는데, 내는가락(시작선율/'기'선율)과 푸는가락(종지선율/'해'선율)로 하나의 단락을 구분하였다. 최태현, 앞의 논문(1997), 44쪽.

(1) 기본형식

기본형식은 4장단형이다. 4장단형은 기· 경· 결· 해가 한 장단씩 구성된다. 악보를 통해 기본형식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7〉 서용석류 중모리 기본형식(기-경-결-해, 제13장)



위 〈악보7〉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13장으로, 제45장단~제48장단이 해당된다. 제45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 45장단에서는 c음을 중심으로 3박마다 동일한 리듬을 반복하여 장의 선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46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46장단에서는 '기'의 선율을 발전시켜 2박마다 동일한 리듬을 반복하며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47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으로, 제45장단과 제44장단의 선율을 더 발전시켜 연주하며 제9박에서 가락을 비움으로서 '결'의 느낌을 준다. 제48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0박과 제11박에서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음색을 달리하여 확실한 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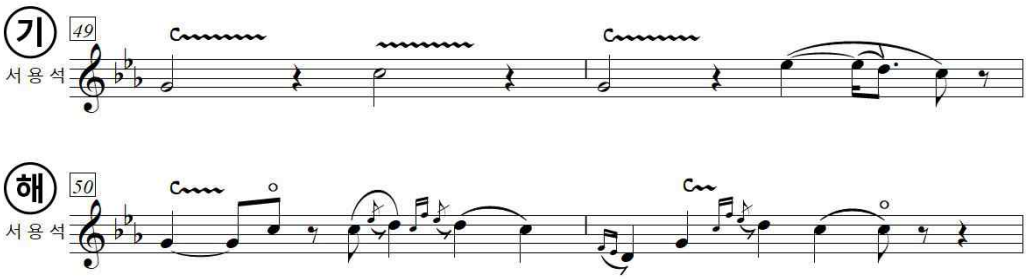
감을 준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13장과 같이 기-경-결-해의 기본형식 장은 제9장과 제12장이 있어, 총 3부분에서 나타난다.

(2) 축소형식

축소형식 장으로 '경'과 '결'이 생략된 기-해 유형의 2장단형 장과 '경'이 생략된 기-결-해 유형의 3장단형 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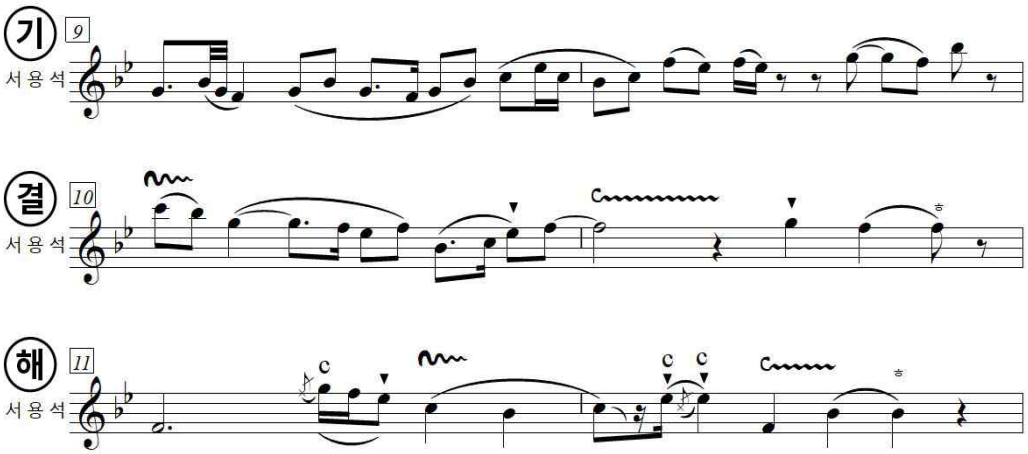
〈악보8〉 서용석류 2장단형 축소형식 장, 기-해(제14장)



위 〈악보8〉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14장으로, 제49장단~제50장단이 해당된다. 제49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49장단은 g음과 c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며, 장의 선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50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50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4장과 같이 기-해의 구성의 장은 6장, 10장으로 총 3부분에서 나타난다.

〈악보9〉 서용석류 3장단형 축소형식 장, 기-결-해(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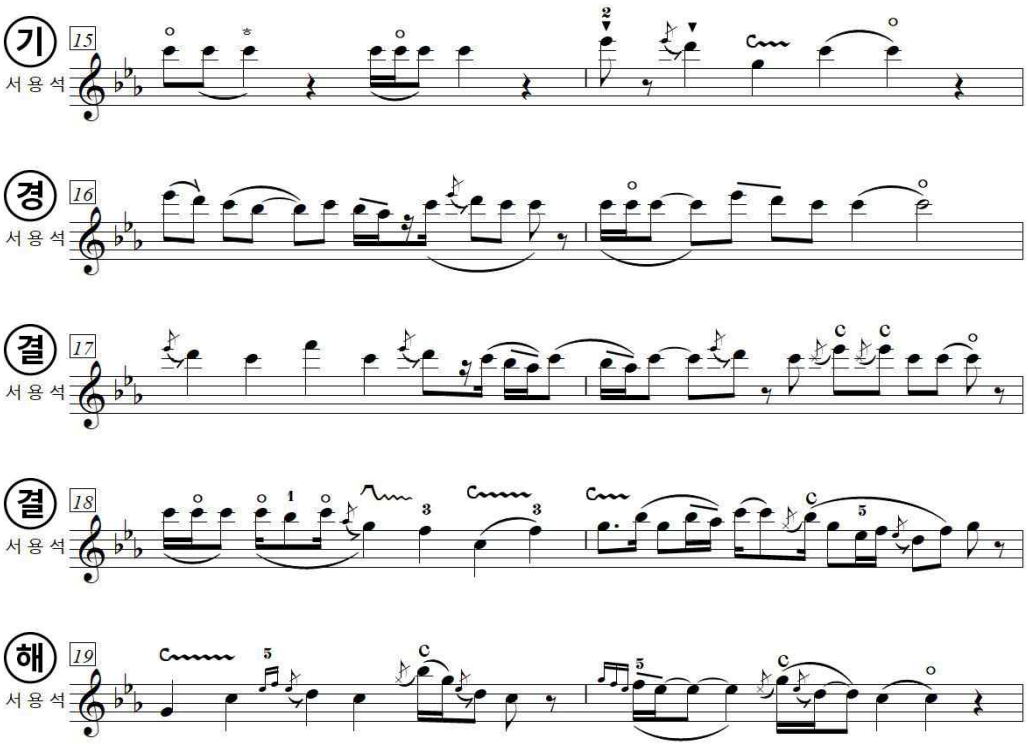
위 〈악보9〉는 서용석류 제3장으로, 제9장단～제11장단이 해당된다. 제9장단은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9장단은 g음으로 시작하여 장의 선율을 제시하며 상행선율을 통해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10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0장단의 제1박에서는 장에서 가장 높은 음인 c″음을 연주하며 장의 절정을 연출하고, 제10장단의 제9박에서 선율을 비움으로서 '결'의 느낌을 확실하게 준다. 제11장단은 종지선율인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1장단의 제10박에서 본청인 b♭′음을 연주하여 종지감을 준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3장과 같이 기-결-해의 구성의 장은 제2장, 제4장, 제8장, 제7장으로 총 5번 나타난다.

(3) 확대형식 장

확대형식 장으로 '경'이 중복된 기-경-경-결-해 유형의 5장단형, '해'가 중복된 기-경-결-해-해 유형의 5장단형과 '경', '결', '해'가 중복된 기-경-경-결-결-해-해의 7장단형 장이 있다. 악보를 통해 확대형식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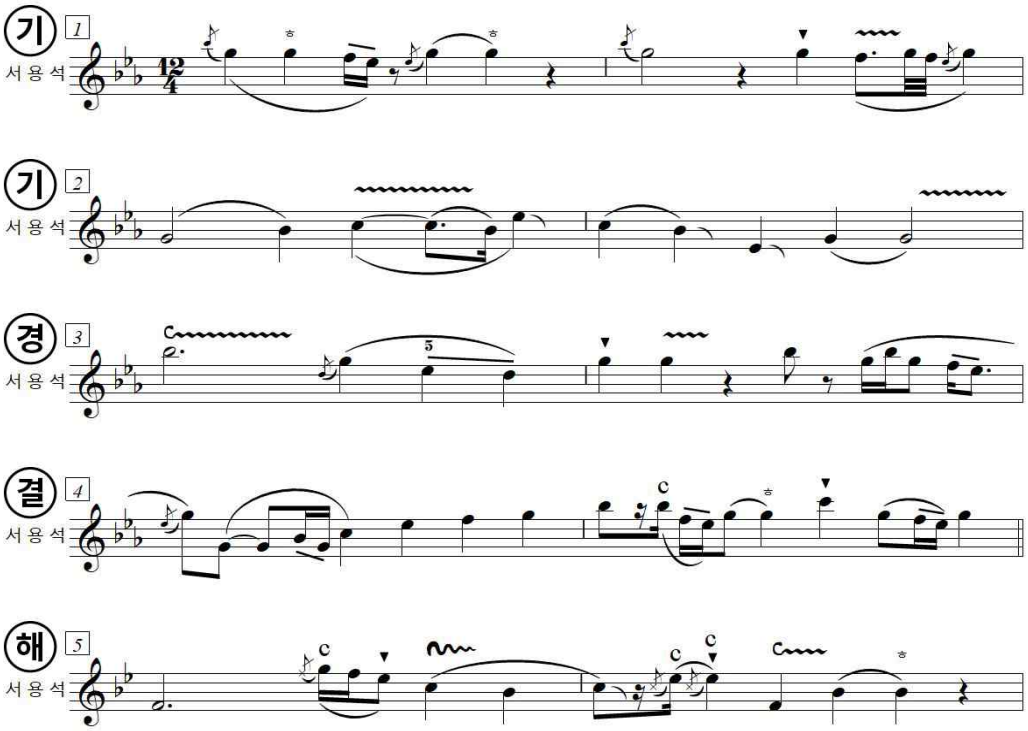
〈악보10〉 서용석류 5장단형 확대형식 장, 기-경-결-결-해(제5장)



위 〈악보10〉은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4장으로, 제15장단～제 19장단이 해당된다. 제15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15장단은 c″음을 중심으로 한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16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6장단은 제15장단의 선율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17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7장단에서 높은 음역대의 음들을 2박 리듬으로 연주하며, 장의 절정을 연출한다. 제18장단은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8장단은 제15장단에서 제시된 선율을 연주한 후 종지음을 향해 하행하는 선율을 연주한다. 제19장단은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9장단에서 전형적인 종지선율을 연주하며, 제19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한다.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서용석류 중모리에서 기-경-결-해-해의 구성의 장은 제5장이 유일하다.

〈악보11〉 서용석류 5장단형 확대형식 장, 기-기-경-결-해(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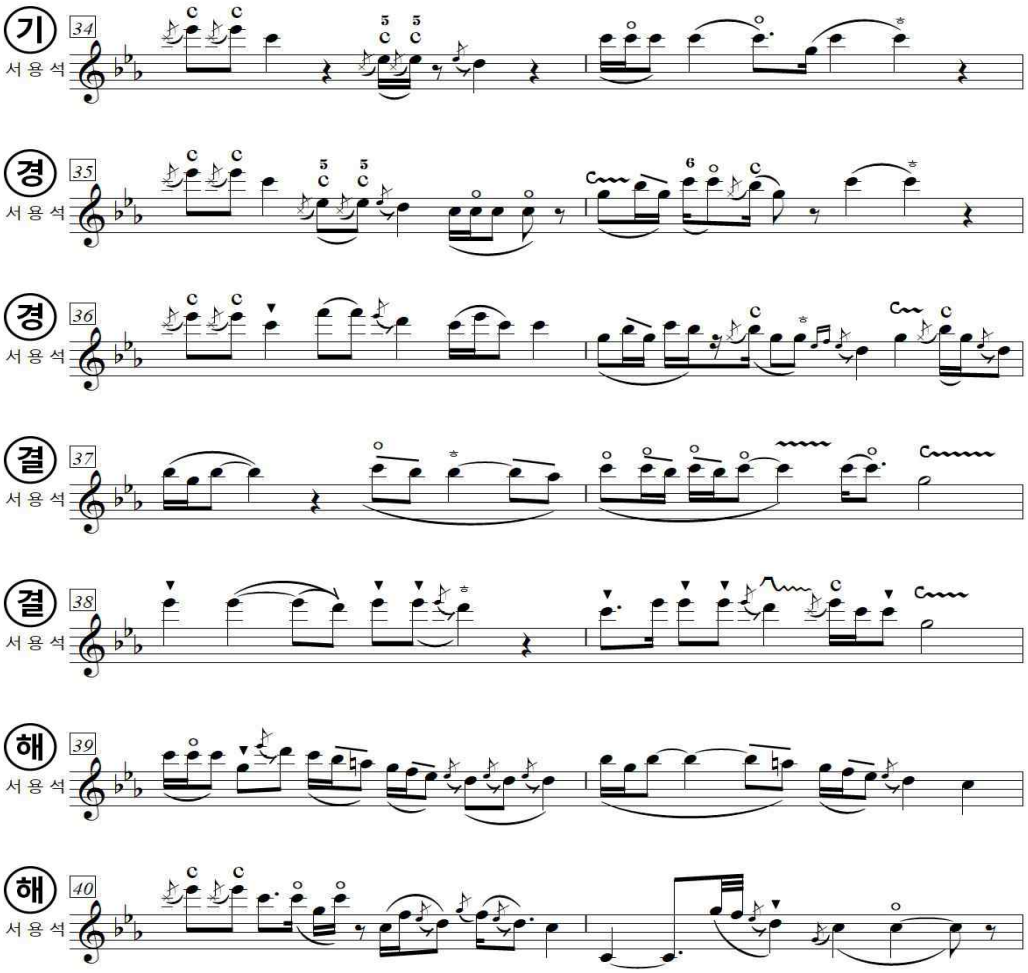


위 〈악보11〉은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장이며, 제1장단～제5장단이 해당된다. 제1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장단에서는 g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여 장의 선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2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장단에서 제1장단에서 제시된 선율을 발전시켜 연주한다. 제3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장단에서는 앞의 두 장단의 선율을 더 발전시킨다. 제 3장단의 제1박～제3박에서 a♭음을 굵게 농음하여.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4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4장단에서는 제1박의 g음부터 제10박의 c″음을 향해 상행하는 선율이다. 제10박의 c″음에 이르러 장의 절정이 연출된다. 제5장

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5장단의 제10박~제11박에서 본청인 b♭′ 음을 연주하여 종지감을 준다.

서용석류 중모리에서 기-경-경-결-해 구성의 장은 제1장이 유일하다.

〈악보12〉 서용석류 7장단형 확대형식 장, 기-경-경-결-결-해-해(제11장)



위 〈악보12〉는 서용석류 제11장이며, 제34장단~제40장단이 해당된다. 제34장단은 시작선율인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4장단은 e♭″ 음과 e♭′ 음을 다루로 연주하며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35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5장단은 제34장단에서

제시된 선율을 발전시켜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36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4장단에서 제시된 선율을 한 번 더 발전시켜 음악을 더욱 고조시키며 다음 장단인 제37장단으로 연결한다. 제37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7장단에서는 6지공을 모두 개방하여, b♭음과 c음 사이를 오가는 선율을 연주하며, 앞의 선율과 반전을 선율을 연주하며 장의 절정을 예비한다. 제39장단은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9장단은 e♭″음을 길게 연주하며 음악을 고조시키고 제39장단의 제9박에서 e♭″음을 꺾어 농음하며 절정을 연출한다. 제39장단은 종지선율인 '해'에 해당한다. 제39장단에서 c″음에서부터 제12박의 c′음까지 선율을 하행하며 장의 종지 장단을 예비한다. 제 40장단은 종지선율인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40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한다.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1장과 같이 기-경-경-결-결-해-해 구성의 장은 제15장으로 총 2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 장을 기· 경· 결· 해의 형식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형식 장이다. 기-경-결-해 구성의 4장단형 기본형식 장은 제9장, 제12장, 제13장으로 총 3개이다. 다음으로, 축소형식 장이다. 기-해 구성의 2장단형 축소형식 장은 제6장, 제10장, 제14장으로 총 3개이다. 기-결-해 구성의 3장단형 축소형식 장은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제8장으로 총 5개이다. 마지막으로 확대형식 장이다. 기-경-경-결-해 구성의 5장단형 확대형식 장은 제1장 하나이다. 기-경-결-해-해 구성의 5장단형 확대형식 장은 제5장 하나이다. 기-경-경-결-결-해-해 구성의 7장단형 확대형식 장은 제11장과 제 15장으로 2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기본형식, 축소형식, 확대형식의 비율로 구분하면, 축소형식 장은 8개(53%), 기본형식 장은 3개(20%) 확대형식 장은

4개(27%)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서용석류 중모리 장(章)

장단길이		기· 경· 결· 해 유형	장의 위치	비율
축소형	2장단형	기-해	6, 10, 14	8개(53%)
	3장단형	기-결-해	2, 3, 4, 7, 8	
기본형	4장단형	기-경-결-해	9, 12, 13	3(20%)
확대형	5장단형	기-경-경-결-해	1	4개(27%)
		기-경-결-해-해	5	
	7장단형	기-경-경-결-결-해-해	11, 15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의 장은 기본형식은 기-경-결-해 유형의 4장단형이 총 3개의 장이 있고, 축소형식은 기-해 유형의 2장단형은 총 3개의 장, 기-결-해 유형의 3장단형은 총 5개의 장이 있다. 확대형식 장은 기-경-경-결-해 유형 1 개의 장과 기-경-결-해-해 유형의 5장단형은 1개가 있다. 기-경-경-결-결-해-해 유형의 7장단형이 1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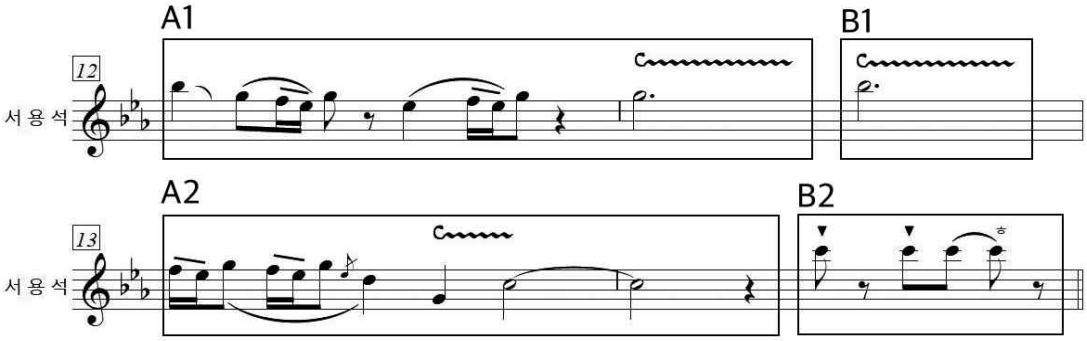
3. 변청과 변조

서용석류의 중모리에서 변청[91]과 변조가 나타나는 경우는 돌장[92]과 일시적 변청 두 가지 이다. 돌장과 일시적 변청의 순서로 설명하겠다.

(1) 돌장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은 제12~제13장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다. 악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인 제12장단~제13장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13〉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제12장단~제13장단)



위 〈악보13〉은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2장단~제13장단이다. 서용석류의 제12장단~제 13장단은 B♭청 평조인 제11장단과 C청 계면조인 제14장단 사이에 구성되어, 두 악조 사이의 연결구에 위치하였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4장은 C청 내드름조(우조)와 C청 계면조의

91) 일시적 변청은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임재원은 그의 논문에서 일시적 변청은 선율의 단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작곡기법으로 보았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218쪽.

92) 돌장은 악조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박지윤, 앞의 논문(2016), 158쪽.

악조가 섞인 혼합조이다. 악조의 변화는 각 음의 기능 변화를 중점으로 악조를 판단할 수 있다.[93]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2장단을 살펴보면, C청 계면조[94]와 C청 내드름조(우조)[95]의 선율이 모두 나타난다. C청 계면조인 부분은 〈악보 13〉의 A1부분으로, b♭′음을 퇴성하는 선율[96]과 g′음을 굵게 농음을 하는 선율에서 C청 계면조임이 드러난다. C청 내드름조(우조)인 부분은 〈악보13〉의 B1부분으로 b♭′음을 굵게 농음을 하는 선율에서 C청 내드름조 임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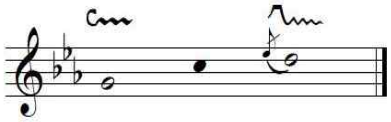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3장단을 살펴보면, C청 계면조와 C청 내드름조(우조)의 선율이 모두 나타난다. C청 계면조인 부분은 〈악보13〉의 A2부분으로, g음을 굵게 농음하는 선율에서 C청 계면조임이 드러난다. C청 내드름조(우조)인 부분은 〈악보13〉의 B2부분으로, c″음을 짧게 끊어 종지음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12장단~제13장단은 B♭청 평조인 제 11장단과 C청 계면조인 14장단 사이에 구성되어, 두 악조 사이의 연결구에 위치하고, C청 내드름조와 C청 게면조의 두 가지 악조가 모두 나타나는 혼합조의 구성임으로 돌장으로 구분할 수 있

93) 임재원은 악조의 변화는 음의 기능을 달리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밝힌바 있다. 임재원, "대금산조의 음조직과 청에 관한 연구: 한주환류의 진양조를 중심으로"(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94) C청 계면조의 음 조직은 미-라-도-시이고, c음은 본청, g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 e♭음은 d음으로 꺾는 음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악보14〉 C청 계면조



95) 내드름조의 특징은 계면조와 음 조직은 같으나 꿋꿋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B♭음을 농음하는 음, E♭음은 천천히 퇴성하는 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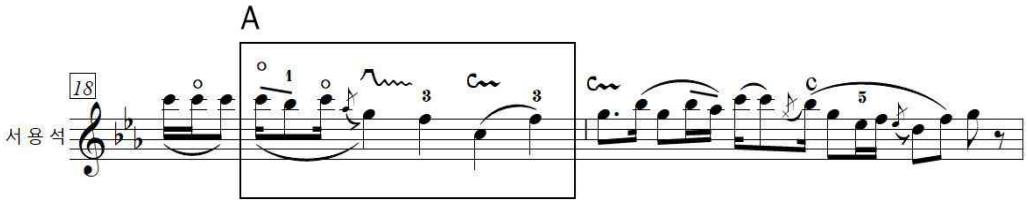
96) B♭음은 C청 내드름조에서는"솔"음(b♭)으로 농음하는 음이고, 반면, C청 계면조에서는 "솔"(b♭)음으로 주로 퇴성하는 선율이 등장한다.

다.[97]

(2) 일시적 변청

서용석류 중모리의 일시적 변청은 제18장단에 나타난다. 악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15〉 서용석류 중모리의 일시적 변청(제18장단)



위 〈악보15〉는 서용석류 제18장단이다. 〈악보15〉의 A부분에서 F본청 계면조[98]의 선율이 나타나며, A♭음과 C음의 기능이 바뀌는 것을 통해 악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악보15〉의 A부분에서는 a♭′음은 g′음으로 꺾는 음이다. c′음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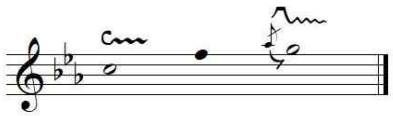
〈악보15〉의 제6박부터 다시 C청 계면조로 돌아오며, G음의 기능이 바뀌는 것을 통해 악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제7박부터 g′음을 굵게 농음하며, 다시 C청 계면조가 된다.

---

97) 박지윤 돌장의 특징을 서술하였는데, 서용석류 중모리 제 12장단~제 13장단이 이에 부합한다. 박지윤이 서술한 돌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장은 서로 다른 두 악조로 구성된 장 사이에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돌장은 혼합조나 혼합청으로 구성된 장이어야 한다. 박지윤, 앞의 논문(2016), 158쪽.

98) F청 계면조의 음조직은 미(c)-라(f)-도(a♭)-시(g)이다. 청은 라(f)음이고 꺾는 음은 도(a♭)음에서 시(g)음이다. 미(c)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악보16〉 F청 계면조



정리하면, 서용석류 중모리 제5장은 일시적 변청이 나타나는 장단으로, C청 계면조에서 F본청 계면조로 변조되었다가 다시 C청 계면조로 돌아온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은 제 12장단~제 13장단에서 나타나며, C청 계면조와 C청 내드름조의 혼합조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일시적 변청은 제 18장단에 나타나며, C청 계면조에서 F본청 계면조로 변청되었다가 다시 C청 계면조로 돌아온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서용석류 변조와 변청

	악조	위치
돌장	C청 계면조+ C청 내드름조	제 12장단~제 13장단
일시적 변청	C청 계면조+ F본청 계면조	제 18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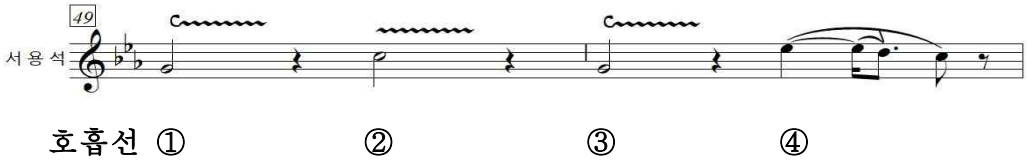
2. 호흡선

호흡선은 관악기에서 소리를 연결하거나 끊기 위해 사용하는 연주법 중 하나이다. 소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호흡으로 연주하고, 소리를 끊을 때는 호흡을 멈추고 새로운 호흡을 악기에 불어넣어 연주하며, 악보에는 슬러로 표기된다. 하나의 호흡선은 슬러가 시작되는 음표부터 끝나는 음표까지이며, 슬러가 없는 음표는 하나의 호흡선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보 아래에 호흡선의 번호를 숫자로(예시: 제 1호흡선=①, 제 2호흡선=②...) 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호흡선을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99] 악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

99) 필자는 서용석류를 먼저 학습한 후, 원장현류를 학습하였다. 원장현류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악장인 원완철에게 학습하였는데, 서용석류에 익숙한 필자가 원장현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은 호흡선에 관

흡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17〉 서용석류 중모리 4 호흡선형 장단(제4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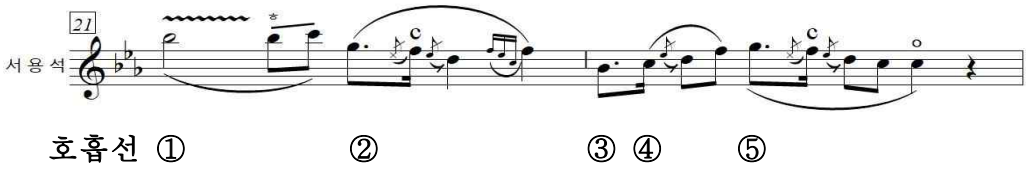


위 〈악보17〉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49장단으로, 4개의 호흡선으로 구분하여 연주한다. 첫째 호흡선(제1호흡선이라 칭함, 이하 같음)은 제1박~제2박의 G음을 2박에 걸쳐 농음하며 연주한다.

4 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49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2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4박~제5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7박~제8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10박~제12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4호흡선형 장단은 제49장단이 유일하다.

〈악보18〉 서용석류 중모리 5 호흡선형 장단(제2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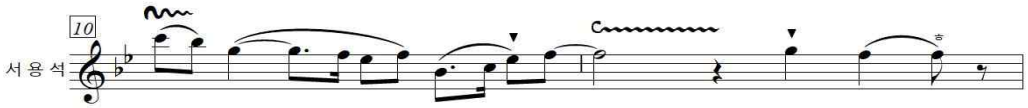
위 〈악보18〉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21장단으로, 5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21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3박이다. 제 2호흡선은 제4박~제6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7박의 제1소박으로 아주 짧아 특징적이다. 제3호흡선을 짧게 연주하여 제7박의 제1소박 b♭′음과 제7박의 제2소박 c′음이 강조된다. 제4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제8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9박~제11박

한 것이었다. 필자는 서용석류의 짧은 호흡선에 익숙하였기에, 원장현류의 긴 호흡선으로 연주 기법을 바꾸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5호흡선형 장단은 제1장단, 제2장단, 제6장단, 제21장단, 제37장단으로 총 5개이다.

〈악보19〉 서용석류 중모리 6 호흡선형 장단(제10장단)



호흡선 ① ② ③ ④ ⑤ ⑥

위 〈악보19〉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10장단으로, 6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10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2박~제4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5박~제6박의 제1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6박의 제2소박~제8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10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10박~제11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6호흡선형 장단은 제3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0장단, 제11장단으로 총 5개이다.

〈악보20〉 서용석류 중모리 7호흡선형 장단(제4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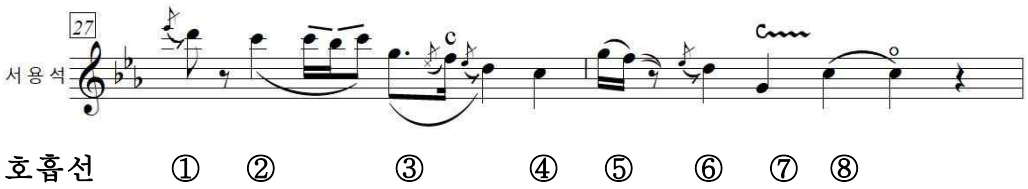
호흡선 ①② ③ ④ ⑤ ⑥⑦

위 〈악보20〉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41장단으로, 7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41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1소박으로 아주 짧다. 제1호흡선을 아주 짧게 연주함으로서 제1박의 제1소박의 g′음과 제1박의 제2소박의 b♭′음이 강조된다. 제2호흡선은 제1박의 제2소박~제3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4박~제5박이

다. 제4호흡선은 제7박～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10박～제11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7호흡선형 장단은 제12장단, 제13장단, 제15장단, 제28장단, 제29장단, 제31장단, 제41장단, 제45장단, 제48장단, 제51장단, 제52장단, 제56장단으로 총 1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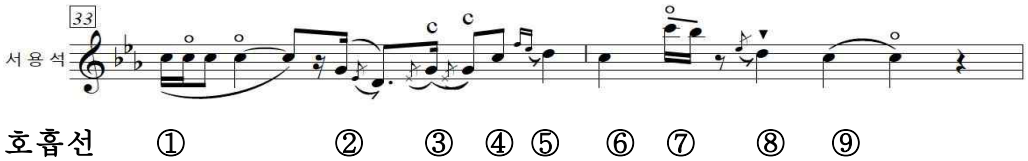
〈악보21〉 서용석류 중모리 8호흡선형 장단(제27장단)



위 〈악보21〉은 서용석류 제27장단으로, 8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제27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2박부터 제3박까지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부터 제5박까지이다. 제4호흡선은 제6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7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8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9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10박부터 제11박까지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8호흡선형 장단은 제9장단, 제14장단, 제20장단, 제27장단, 제34장단, 제47장단, 제50장단, 제53장단으로 총 8개이다.

〈악보22〉 서용석류 중모리 9호흡선형 장단(제3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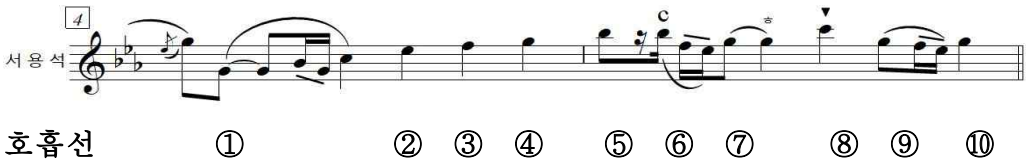


위 〈악보22〉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33장단으로, 9호흡선형 장단

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33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3박의 제1소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4박의 제2소박~제5박의 제1소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4박의 제2소박~제5박의 제1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5박의 제2소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6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7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8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이다. 제9호흡선은 제10박~제11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9호흡선형 장단은 제7장단, 제16장단, 제18장단, 제24장단, 제33장단, 제55장단, 제57장단으로 총 7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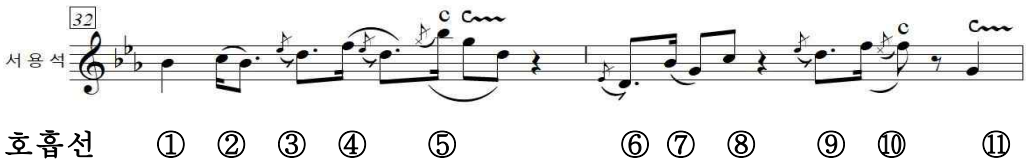
〈악보23〉 서용석류 중모리 10호흡선형 장단(제4장단)



위 〈악보23〉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4장단으로 10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4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2소박~제3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4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5박이다. 제 4호흡선은 제6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7박의 제1소박이다. 제 6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제9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10박이다. 제9호흡선은 제11박이다. 제10호흡선은 제12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10호흡선형 장단은 제4장단, 제19장단, 제35장단, 제39장단, 제40장단, 제43장단, 제44장단으로 총 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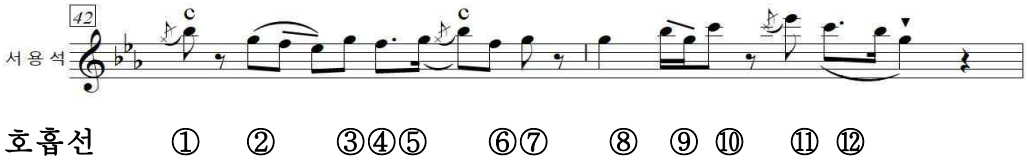
〈악보24〉 서용석류 중모리 11호흡선형 장단(제11장단)



위 〈악보24〉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11장단으로 11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11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2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의 제1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3박의 제1소박~제4박의 제1소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4박의 제2소박~제5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7박의 제1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이다. 제9호흡선은 제10박의 제1소박이다. 제10호흡선은 제10박의 제2소박~제11박이다. 제11호흡선은 제12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11호흡선형 장단은 제11장단이 유일하다.

〈악보25〉 서용석류 중모리 12호흡선형 장단(제42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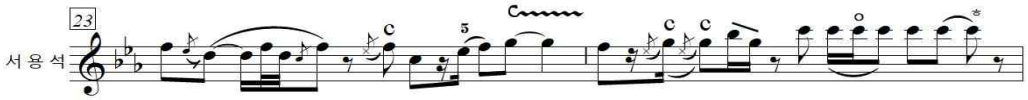


위 〈악보25〉는 서용석류 중모리 제42장단으로 12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42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1소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2박~제3박의 제1소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의 제2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4박의 제1소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4박의 제2소박~제5박의 제1소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5박의 제2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6박의 제1소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7박이다. 제9호흡선은 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10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이다. 제11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이다. 제12호흡

선은 제10박～제11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12호흡선형 장단은 제22장단, 제26장단, 제30장단, 제42장단으로 총 4개이다.

〈악보26〉 서용석류 중모리 13호흡선형 장단(제23장단)



호흡선 ①② ③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⑬

위 〈악보26〉은 서용석류 중모리 제23장단으로 13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제23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1소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1박의 제2소박～제2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의 제2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4박의 제1소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4박의 제2소박～제5박의 제1소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5박의 제2소박～제6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7박의 제1소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9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이다. 제10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이다. 제11호흡선은 제10박이다. 제12호흡선은 제11박의 제1소박이다. 제13호흡선은 제11박의 제2소박～제12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13호흡선형 장단은 제23장단, 제25장단, 제36장단, 제38장단, 제46장단, 제54장단으로 총 6개이다.

〈악보27〉 서용석류 중모리 14호흡선형 장단(제17장단)

호흡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⑬⑭

위 〈악보13〉은 서용석류 제17장단으로 14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제17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2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4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5박의 제1소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5박의 제2소박부터 제6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7호흡선은 제6박의 제2소박부터 제7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8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부터 제8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9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이다. 제10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이다. 제11호흡선은 제10박의 제1소박이다. 제12호흡선은 제10박의 제2소박이다. 제13호흡선은 제11박의 제1소박이다. 제14호흡선은 제11박의 제1소박부터 제12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서용석류 중모리 중 14호흡선형 장단은 제17장단이 유일하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를 호흡선의 개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4개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이하 4호흡선형 장단), 5호흡선형 장단, 6호흡선형 장단, 7호흡선형 장단, 8호흡선형 장단, 9호흡선형 장단, 10호흡선형 장단, 11호흡선형 장단, 12호흡선형 장단, 13호흡선형 장단, 14호흡선형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서용석류 중모리 호흡선 유형

호흡선 유형	위치(장단 번호)	개수
4	49	1개
5	1, 2, 6, 21, 37	5개
6	3, 5, 8, 10, 11,	5개
7	12, 13, 15, 28, 29, 31, 41, 45, 48, 51, 52, 56	12개
8	9, 14, 20, 27, 34, 47, 50, 53	8개
9	7, 16, 18, 24, 33, 55, 57	7개
10	4, 19, 35, 39, 40, 43, 44	6개
11	32	2개
12	22, 26, 30, 42	4개
13	23, 25, 36, 38, 46, 54	6개
14	17	1개
합계		57개

서용석류 중모리의 모든 장단별 호흡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서용석류 중모리 호흡선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1	5	11	6	21	5
2	5	12	7	22	12
3	6	13	7	23	13
4	10	14	8	24	9
5	6	15	7	25	13
6	5	16	9	26	12
7	9	17	14	27	8
8	6	18	9	28	7
9	8	19	10	29	7
10	6	20	8	30	12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31	7	41	7	51	7
32	11	42	12	52	7
33	9	43	10	53	8
34	8	44	10	54	13
35	10	45	7	55	9
36	13	46	13	56	7
37	5	47	8	57	9
38	13	48	7	합계: 491 평균: 8.61	
39	10	49	4		
40	10	50	8		

Ⅲ.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특징

원장현류 중모리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악조, 장, 변청과 변조, 호흡선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악조

원장현류의 중모리의 악조는 음 조직을 바탕으로 본청과 시김새를 중심[100]으로 설명하겠다. 대금산조의 본청은 음악에 종지음으로 나타나며, 대금산조의 시김새는 악조에 따라 굵게 농음하는 음, 가늘게 농음하는 음, 퇴성하는 음, 꺾는 음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원장현류 중모리의 악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드름조(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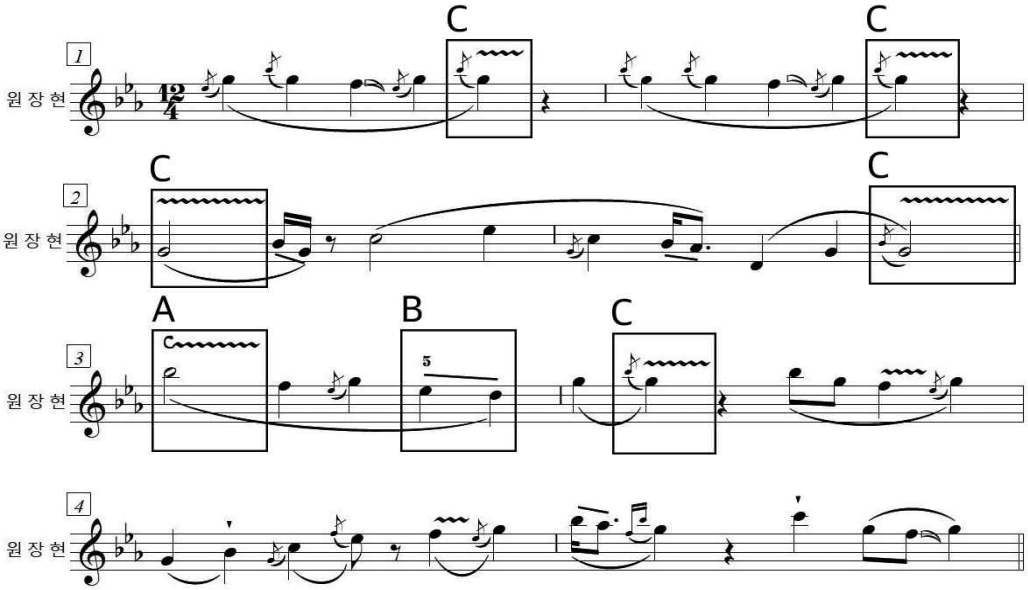
원장현류 중모리의 내드름조(우조)[101]는 총 4 장단에 걸쳐 나타난다. 내드름조(우조)를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C청 내드름조이다.

---

100) "판소리와 산조에서 악조의 해석은 구성음만으로 부족하고 각 음의 기능과 특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신은주, 앞의 논문(2018), 265쪽.

101) "(중략) 중모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창법적인 개념에서는 우조처럼 꿋꿋하고 씩씩하게 연주하나 음조직은 미-솔-라-시-도이기 때문에 '우조'라는 조명 대신 '내드름조'라는 조명을 제시한 바 있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75쪽.

〈악보28〉 원장현류 내드름조(우조) 시김새(제1～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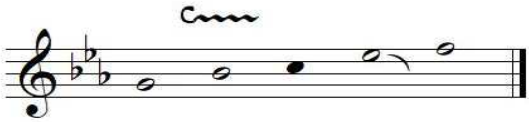
〈악보28〉은 원장현류의 제1장단～제4장단이다. 그 중 〈악보28〉 의 A부분에서는 b♭′음을 굵게 농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중모리 제3장단의 제1박～제2박에서 총 1회 나타난다. 〈악보27〉의 B부분에서는 e♭′음에서 d′음으로 천천히 퇴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중모리 제 3장단 제5박～제6박에서 총 1회 나타난다. 〈악보28〉의 C부분에서 G음을 계면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G음을 가늘게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중모리 제1박의 제5박, 제1장단의 제11박, 제2장단의 제1박～제2박, 제2장단의 제11박～제12박, 제3장단의 제7박에서 총 5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서용석류 제1장단～제4장단에서는 우조의 특징적인 시김새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원장현류류중모리의 C청 내드름조는 원장현류 중모리 제1장단～제4장단이 해당하며, 음계는 미(G)-솔(B♭)-라(C)-시(D)-도(E♭) 이고, 본청은 라(C)음이지만, 시김새는 우조이다. 시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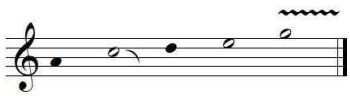
는 B♭굵게 농음하고, [102] 둘째, E♭음을 D음으로 천천히 퇴성하고, [103] 셋째, G음의 농음이 계면조에 비해 가늘다.[104]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05]

〈악보29〉 C청 내드름조



102) 이보형은 우조의 시김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의 왼쪽.은 이보형이 제시한 우조의 악조이고 표의 오른쪽.은 대금의 음높이에 맞게 이조한 것이다. 이보형, "판소리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창간호 (전북: 국립민속국악원, 2001),

〈표7〉 이보형의 우조

이보형의 우조	이보형의 우조(대금ver.)
	

103) 김우진에 의하면, 현장의 연주자들은 우조와 계면조를 설명할 때 동일한 구성음에서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우조)과 빨리 꺾어내리는 것(계면조)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우조에서는 e♭음에서 d음으로 천천히 퇴성 한다. 김우진. 앞의 논문(2017),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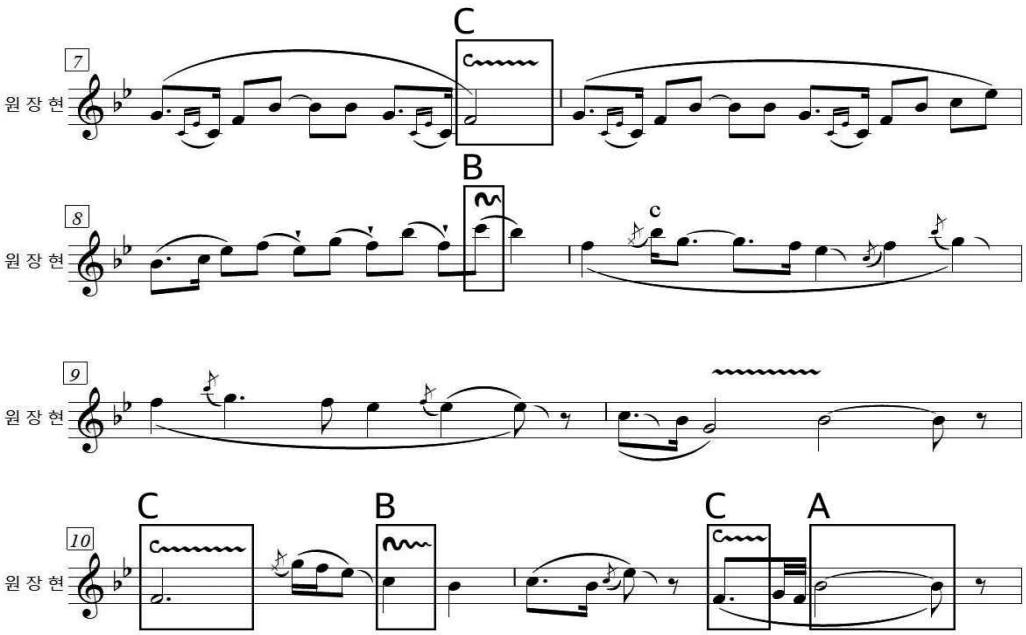
104) 이진용은 그의 논문에서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인 "Goldwave"를 사용하여 우조 부분의 g음 농음과 계면조 부분의 g음 농음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조 부분의 g음 농음은 음형의 변화가 적고, 계면조 부분의 g음 농음의 음형은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조 부분의 g음 농음을 가늘게, 계면조 부분의 g음 농음을 굵게 연주하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진용, 앞의 논문(2010).

105) 내드름조에서 G음을 가늘게 농음하는 시김새는 계면조에서 G음을 굵게 농음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개념임으로 악보에 따로 표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평조

원장현류 중모리 평조는 총 12장단에 걸쳐 나타난다. 평조를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평조를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B♭청 평조[106]이다. 악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의 평조의 선율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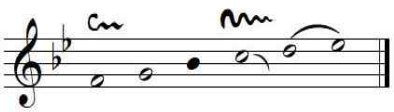
〈악보31〉 원장현류 중모리 평조 시김새(제7장단～제10장단)



위 〈악보31〉은 원장현류 제7장단～제10장단으로, B♭청 평조의 시김새와 종지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보이다. 〈악보31〉의 A부분에

106) 이보형이 제시한 평조는 다음과 같다. 음 조직은 솔-라-도-레-미/파이고 본청은 '도'음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악보30〉 B♭청 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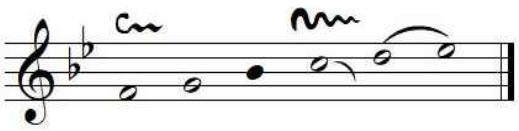
서는 B♭음을 종지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음을 종지음으로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F음이 선행되는데 이러한 선율 패턴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6장단의 제10박~제12박의 제1소박, 제10장단의 제10박~제12박의 제1소박, 제 12장단의 제10박~제12박의 제1소박, 제16장단의 제10박~제12박의 제1소박에서 총 4회 나타난다. 〈악보31〉 의 B부분에서는 C음을 퇴성하거나 퇴성한 후 농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퇴성한 후 농음은 피치를 올려 농음을 시작하는 대금산조의 다른 농음과는 다르게 피치를 내리는 것으로 농음을 시작하여, 소리를 풀어내듯 부드럽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5장단 제4박. 제 6장단 제5박, 제8장단 제5박의 제2소박, 제10장단 제5박, 제11장단 제2박, 제14장단 제10박, 제15장단 제8박의 제2소박~제9박에서 총 7회 나타난다. 〈악보31〉의 C부분에서는 F음을 굵게 농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5장단 제1박~제3박의 제1소박, 제9박의 제1소박, 제6장단 제1박~제3박, 제9박의 제1소박, 제7장단 제5박~제6박, 제10장단 제1박~제3박, 제9박의 제1소박, 제12장단 제1박, 제9박, 제14장단 제5박~제6박, 제8박~제 9박의 제1소박, 제16장단 제9박의 제1소박에서 총 12회 나타난다.

정리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B♭청 평조 선율은 제5장단~제16장단이 해당하며, 음계는 솔(F)-라(G)-도(B♭)-레(C)-미(D)이고, 본청은 b♭이다. 평조의 시김새는 레(C)음은 퇴성하거나 퇴성한 후 농음하는 음이다. 솔(F)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107] 이

107) "평조라는 것은 기본 선율틀이 Sol-do-re-do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선율형에서 이 틀의 구성음이 Sol, La, do, re, mi(fa)로 되었고, 종지음 do가 청'이라 이르므로 이것이 중심음으로 인식되며, 구성음 가운데 Sol, do, re가 출현빈도가 많은 중요음이 되고, Sol에서 떠는목(요성)을 쓰고, re에서 흘러내리는목(퇴성)을 쓰는 시김새로 된 토리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악보32〉 B♭청 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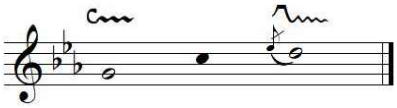


(3) 계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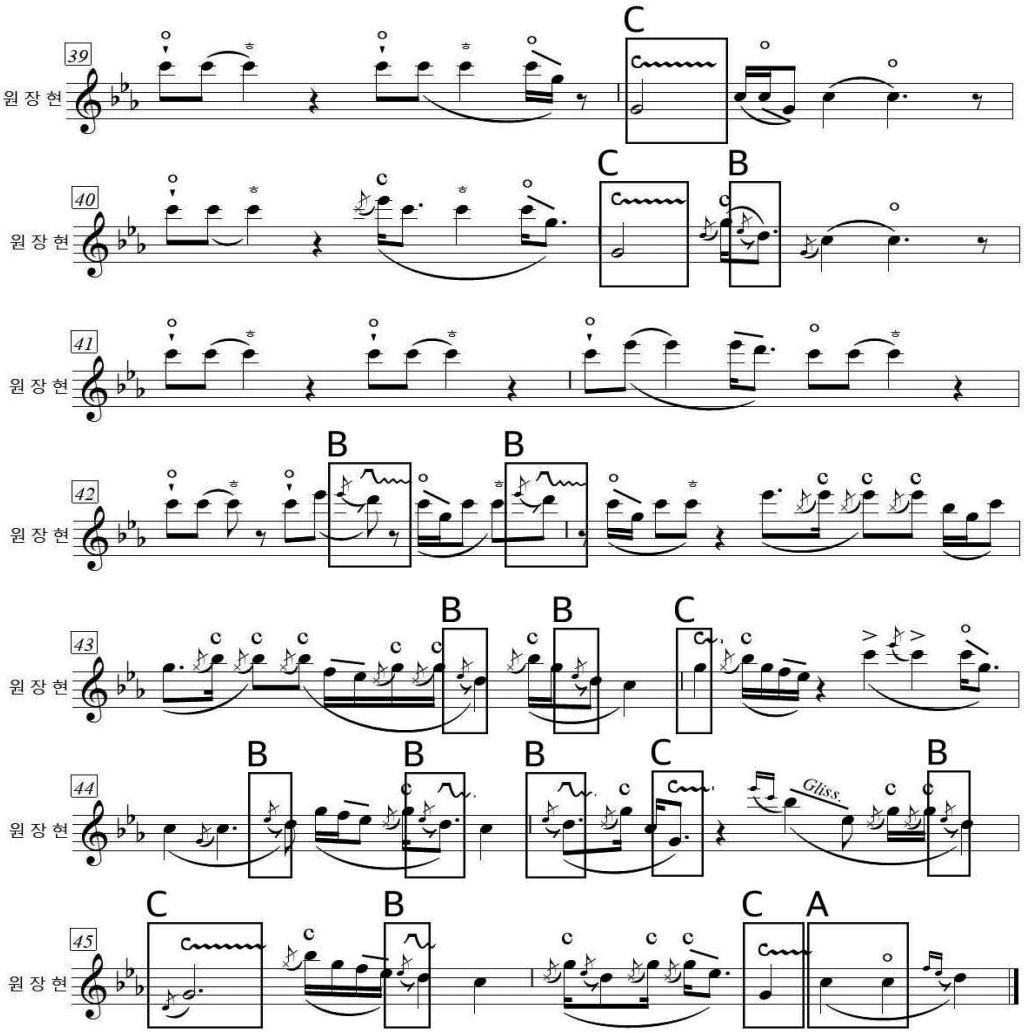
원장현류 중모리의 계면조는 총 35장단에 걸쳐 나타난다. 대금의 음높이에 맞추면, C청 계면조이다[108]. 원장현류 중모리의 계면조 선율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겠다.

108) 이보형은 계면조의 원류는 육자백이 토리라고 했다. 계면조는 미-라-시-도가 주요 선율 골격이다,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보형, 앞의 논문(1996), 12쪽.

〈악보33〉 C청 계면조



〈악보34〉 원장현류 중모리 계면조 시김새(제39장단～제45장단)



위 〈악보34〉는 원장현류 제39장단～제45장단으로, 원장현류 중모리의 시김새와 종지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보이다. 〈악보3431〉의 A부분에서는 C음을 종지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음 종지음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19장단의 제11박～제12박, 제21장단의 제10박～제12박, 제25장단의 제10박～제12박, 제27장단의 제10박～제12박, 제33장단의 제10박～제12박 제36장단의 제10박～제12박, 제 38장단의 제10박～제12박에서 걸쳐 총 12회

나타난다. 〈악보3134〉의 B부분에서는 E♭음에서 D음으로 꺾거나 꺾은 후 농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중모리에서 총 50회[109] 나타난다. 〈악보34〉의 C부분에서는 G음을 굵게 농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김새는 원장현류 제17장단~제45장단에서 총 49회[110] 나타난다.

정리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C청 계면조 선율은 제 17장단~제45장단 해당하며, 음계는 미(G)-라(C)-시(D)-도(E♭)이고, 본청은 라(C)음이다. 계면조의 시김새는 육자배기토리와 동일하게, 미(G)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도(E♭)음은 시(D)음으로 꺾는 음이다.[111]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09) E♭음에서 D음으로 꺾거나 꺾은 후 농음하는 시김새가 출현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7장단 제3박, 제9박의 제2소박, 제18장단 제2박, 제5박의 제1소박, 제7박, 제11박, 제19장단 제4박, 제9박의 제2소박, 제20장단 제5박의 제2소박, 제7박의 제1소박, 제21장단 제3박의 제2소박, 제22장단 제5박의 제2소박, 제23장단 제7박의 제2소박, 제10박의 제1소박, 제11박의 제1소박, 제24장단 제4박, 제6박, 제12박, 제25장단 제4박, 제27장단 제8박, 제29장단 제2박의 제2소박~제3박의 제1소박, 제10박, 제30장단 제4박, 제5박의 제2소박, 제32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5박의 제2소박, 제10박, 제33장단 제3박의 제2소박, 제34장단 제9박의 제2소박, 제35장단 제1박, 제5박의 제2소박, 제10박의 제1소박, 제36장단 제6박, 제9박, 제37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9박, 제10박의 제2소박, 제38장단 제5박의 제2소박, 제9박의 제2소박, 제40장단 제9박의 제2소박, 제42장단 제4박의 제1소박, 제6박의 제2소박, 제43장단 제4박, 제5박의 제2소박, 제44장단 제3박의 제2소박, 제5박의 제2소박, 제7박의 제1소박, 제12소박, 제45장단 제5박, 제7박의 제2소박.

110) 제17장단 제11박~제12박, 제18장단 제8박, 제19장단 제1박~제3박, 제20장단 제4박, 제10박, 제12박, 제21장단 제4박의 제2소박, 제7박, 제9박, 제24장단 제2박~제3박의 제1소박, 제9박, 제25장단 제1박~제3박, 제9박, 제26장단 제1박~제 2박의 제1소박, 제27장단 제4박, 제6박~제7박, 제9박, 제28장단 제9박~제10박, 제29장단 제7박, 제11박, 제31장단 제5박~제9박, 제32장단 제8박~제9박, 제11박, 제33장단 제4박의 제2소박, 제7박, 제9박, 제34장단 제2박~제3박, 제4박의 제2소박~제5박, 제7박, 제10박~제11박, 제35장단 제11박~제12박의 제1소박, 제 37장단 제11박의 제1소박, 제39장단 제7박~제8박, 제40장단 제7박~제8박, 제43장단 제7박, 제44장단 제8박의 제2소박, 제45장단 제1박~제3박, 제9박.

111) 이보형은 계면조의 원류를 육자배기토리로 보았다. 계면조는 미-라-시-도가 주요 선율 골격이고, '미'음에 요성을 하고 '도'음에서-'시'음으로 꺾는 목이 나타난다. 본청은 '라'음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1996), 12쪽.

요컨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악조는 C청 내드름조(우조), B♭청 평조, C청 계면조로 분석할 수 있다. 본청은 두 개[112]로 내드름조와 계면조에서는 C음이고, 평조에서는 B♭음이다.[113] 시김새는 내C청 내드름조(우조)는 B♭음을 굵게 농음하는 음이고, E♭음은 D음으로 천천히 퇴성하는 음이다. 평조에서는 C음은 퇴성하거나 퇴성 한 후 농음하는 음이고, F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계면조에서 G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고, E♭음은 D음으로 꺾거나 꺾은 후 농음하는 음이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악조 위치는 다음과 같다. 원장현류의 제 1장단~제 4장단은 C청 내드름조(우조)이다. 원장현류의 제 5장단~제 16장단은 B♭청 평조이다. 원장현류의 제17장단~제45장단은 C청 계면조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 원장현류 중모리 악조 구분

악조명	장단 위치	종지	구성음	시김새
내드름조 (우조)	1~4	C	미-솔-라-시-도	퇴성: E♭→D
				굵은 농음: B♭
평조	5~16	B♭	솔라도레미(파)	퇴성· 후 농음: C
				농음: F
계면조	17~45	C	마-라-시-도	꺾기· 후 농음: E♭→D
				농음: G

112) 황준연은 대금산조의 본청을 두 가지라고 하였다. 기본청인 c음과 장 2도 낮은 보조청인 b♭음이다. 황준연, 앞의 논문(1996), 122쪽.

113) 원장현은 대금산조의 본청은 임종(c음)과 중려(b♭) 두 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변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원장현과의 대담내용, 대담장소: 금현국악원, 대담일자: 2020년 10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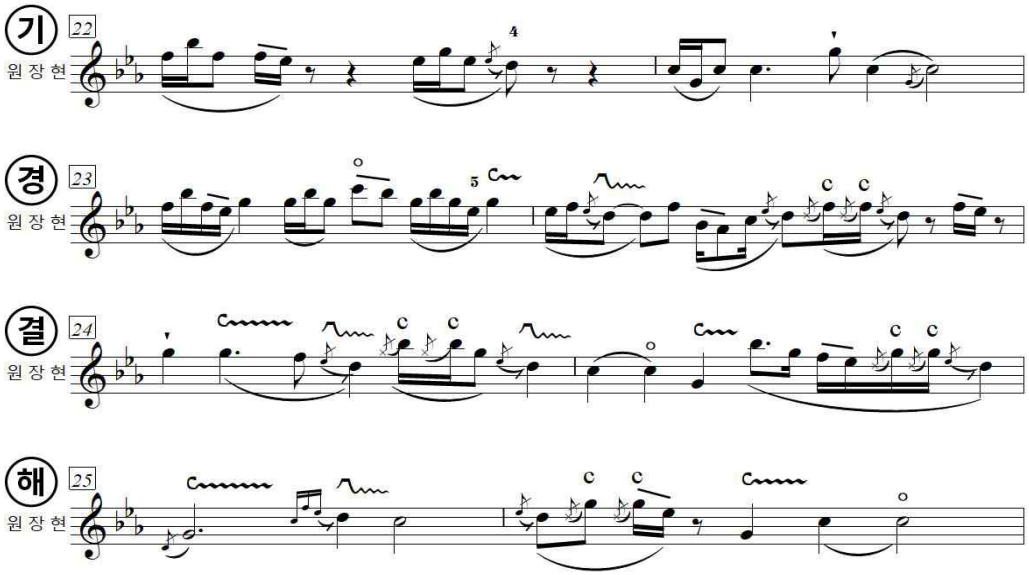
2. 장(章)

장은 기· 경· 결· 해의 복합체이다. 장은 시작 선율인 '기'와 관용적 종지선율인 '해'로 마무리한다.[114] 원장현류 중모리의 장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본형식

기본형식 장으로 기· 경· 결· 해가 한 장단씩 구성된 4장단형이 있다. 악보를 통해 기본형식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35〉 원장현류 중모리 기본형식, 기-경-결-해(제22장단～제25장단)



위 〈악보35〉는 원장현류 중모리 제7장으로 제22장단～제25장단이 해당한다. 제2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2장단은 같은 2박의 리듬의 선율을 반복하여 장의 선율을 제시한

114) 최태현은 산조의 단락을 '마루'로 구분하였는데, 내는가락(시작선율/'기'선율)과 푸는가락(종지선율/'해'선율)로 하나의 단락을 구분하였다. 최태현, 앞의 논문(1997), 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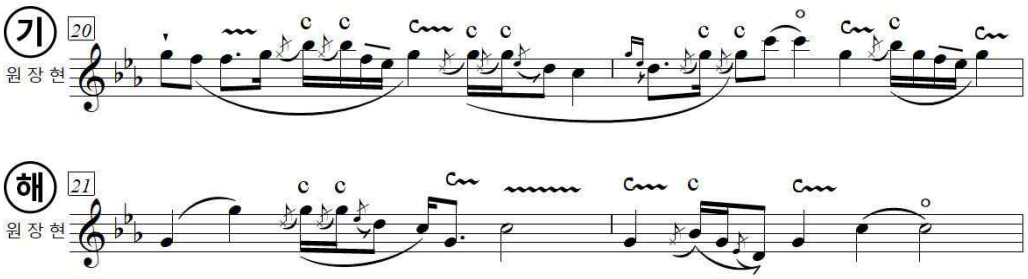
다. 제23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3장단은 제22장단에서 제시된 2박의 리듬과 선율을 발전시켜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24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4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4장단에서 앞의 두 장단과는 다르게 3박의 리듬으로 변화를 주며, 장의 절정을 연출한다. 제25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5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7장과 같이 기-경-결-해의 구성인 장은 2장, 4장, 7장이 있다.

(2) 축소형식

축소형식 장으로 '경'과 '결'이 생략된 기-해 유형의 2장단형 장과 '경'이 생략된 기-결-해 유형, '결'이 생략된 기-경-해 유형의 3장단형 장이 있다.

〈악보36〉 원장현 중모리 축소형식, 기-해(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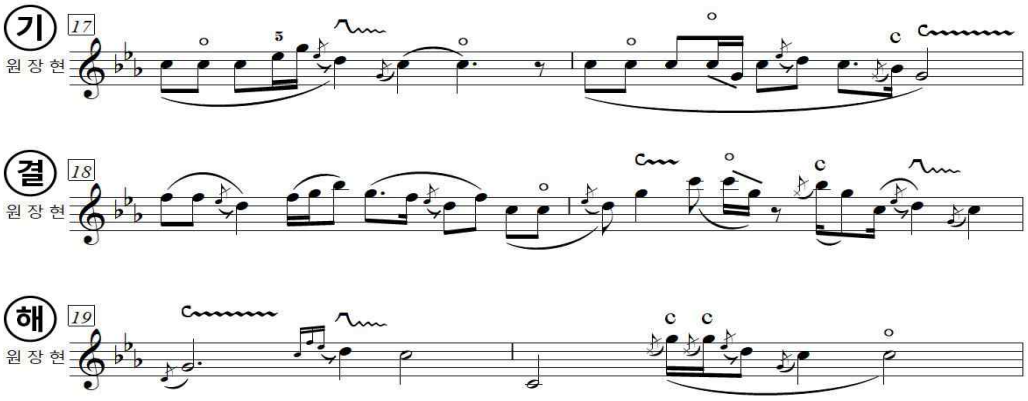


위 〈악보36〉은 원장현류 제6장으로 제20장단~제21장단에 해당한다. 제20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20장단에서는 반복적으로 한 박을 2소박으로 나누어 연주하여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21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

21장단의 제1박과 제2박에서는 제20장단의 마지막 음인 g′음에 이어 한 옥타브 낮은 g음과 같은 음인 g′음을 연이어 연주하며 제21장단이 종지선율임을 암시한다. 제10박과 제11박에서는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6장과 같이 기-해인 축소형식 장은 제3장과 제8장, 제11장이 있다.

〈악보37〉 원장현류 중모리 축소형식, 기-결-해(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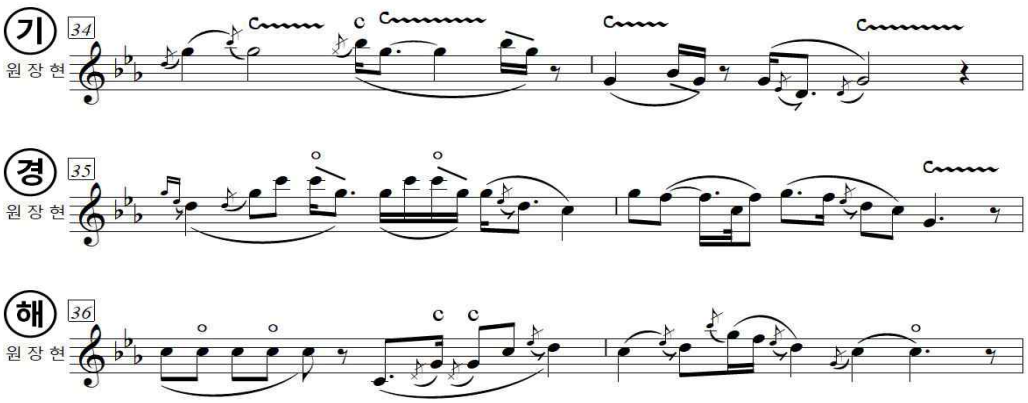


위〈악보37〉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5장으로, 제7장단~제48장단에 해당한다. 제17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7장단에서는 c′음으로 시작하여 제1박~제6박에서의 선율을 제7박~제 8박에서 반복하며,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18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17장단에 제시된 선율을 발전시켜 제18장단의 제9박에서 절정을 연출한다. 제19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19장단의 제1박에서는 앞의 두 장단에 비해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연주하며, 제19장단이 종지선율임을 암시한다. 제10박과 제11박에서는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원장현류 중모리에서 기-결-해인 축소형식 장은 제6장이 유일하다.

〈악보38〉 원장현류 중모리 축소형식, 기-경-해(제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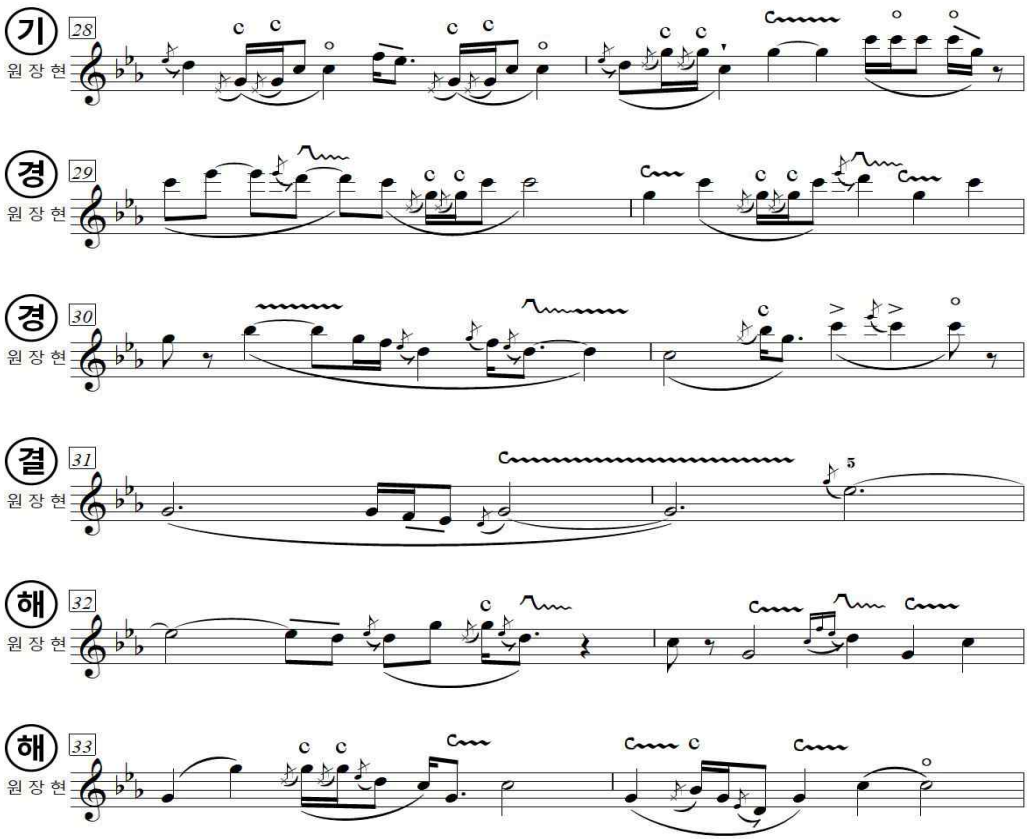
위 〈악보38〉은 원장현류 제10장으로, 제34장단～제36장단이 해당된다. 제34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34장단에서는 g′음과 g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 35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장이다. 제35장단은 제34장단의 선율을 발전시키지만, 음악을 고조시키지 않고 제36장단인 종지선율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36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36장단의 제1박～제3박에서 c′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여 종지선율임을 암시한다. 제36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는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원장현류 중모리에서 기-경-해의 축소형식 장은 제10장이 유일하다.

(3) 확대형식 장

확대형식 장으로 '경'과 '해'가 중복된 기-경-경-결-해-해 유형의 6장단형 장과 '경', '결', '해'가 중복된 기-경-경-결-결-해-해의 7장단형 장이 있다. 악보를 통해 확대형식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39〉 원장현류 중모리 확대형식, 기-경-경-결-해-해(제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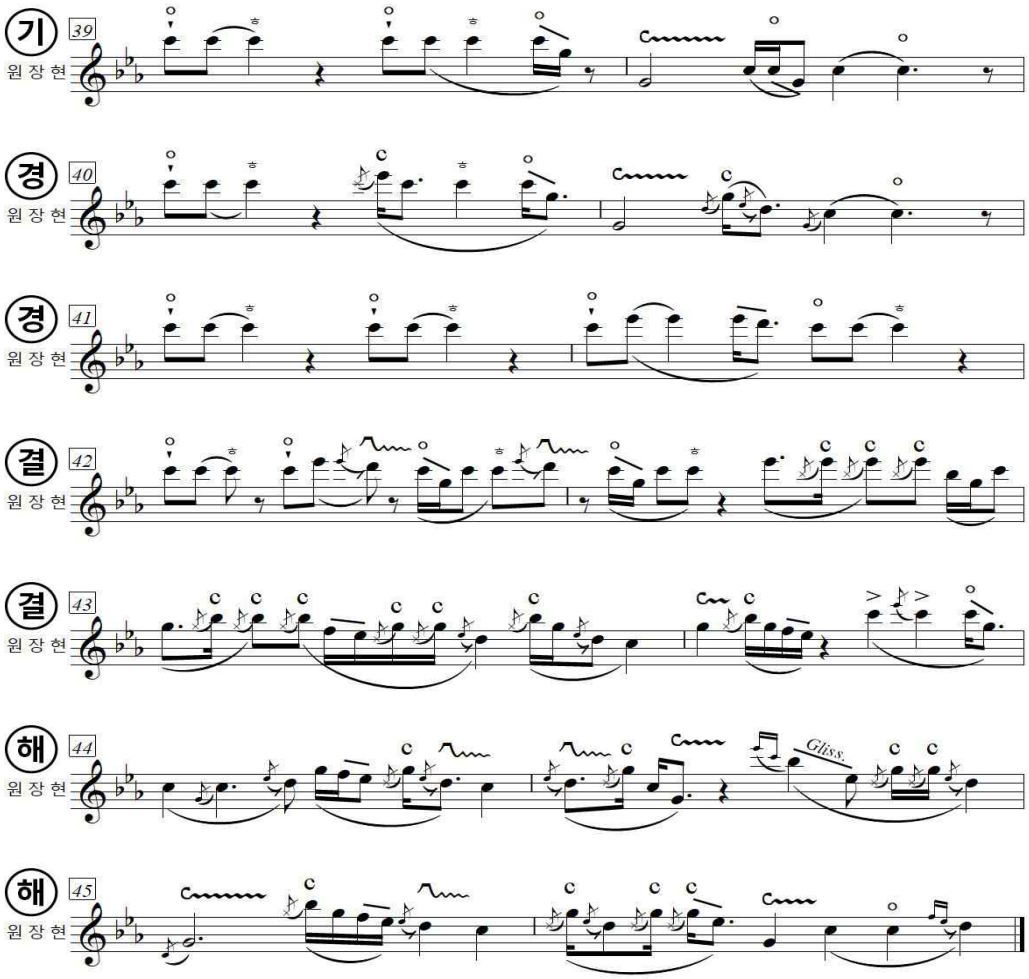


위 〈악보39〉는 원장현류 중모리 제9장으로, 제28장단~제33장단이 해당된다. 제8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28장단에서는 꺾는 음과 다루치기를 반복하며,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29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29장단은 제28장단의 선율을 발전시켜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하며 음악을 고조시키

는 역할을 한다. 제30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30장단에서는 제10박～제12박에서 높은 음역대로 c″음을 연주하여 음악을 한껏 고조시킨다. 제31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31장단에서는 앞의 선율과는 다르게 긴 호흡의 리듬으로 반전을 주는 연주를 통해 음역대가 낮아졌음에도 장의 절정을 연출한다. 제32장단은 '해'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32장단에서는 제31장단에서부터 이어지는 e♭′음을 꺾고, g음을 떨며 하행하는 선율을 통해 제33장단의 종지선율을 예비한다. 제33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1박과 제2박에서 g음과 g′음을 연이어 연주하며 종지선율임을 암시한다. 제 33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는 종지음인 c′음으로 연주하는데 특히, 제1박에서 c′음을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9장과 같이 기-경-경-결-해-해의 확대형식장은 1장이 있다.

〈악보40〉 원장현류 중모리 확대형식 기-경-경-결-결-해-해(제12장)



위 〈악보40〉은 원장현류 제12장으로 제39장단～제45장단이 해당된다. 제 39장단은 시작선율로 '기'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39장단은 c″음을 반복적인 리듬으로 연주하며 장의 선율을 제시한다. 제40장단은 '경'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40장단에서는 제39장단의 선율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서 음악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 41장단은 '경'에 대항하는 선율이다. 제41장단에서는 제 39의 선율을 더욱 발전시킨다. 제41장단의 제7박～제9박에서 높은 음역대의 e♭″음을 연주하고 꺾음으로서 음악을 고조시킨다. 제42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42장단에서는 앞서의 장

단과 달리 2박 리듬으로 화려한 가락을 연주하여 음악적 절정을 연출한다. 제43장단은 '결'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앞서 제42장단에서 음악적 절정이 연출 되었다면, 제44장단에서는 같은 리듬으로 '결'의 선율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한다. 제45장단은 '해'에 해당하는 장단이다. 제44장단에서는 다시 3박의 리듬으로 연주하며 앞의 장단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역대로 제45장단인 종지선율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제45장단은 종지선율로 '해'에 해당하는 선율이다. 제45장단의 제 1박에서 낮은 음역대의 g음으로 굵게 농음하며 종지선율임을 암시한다. 제45장단의 제10박과 제11박에서 종지음인 c′음을 연주한다. 특히, 제11박에서 c′음은 6지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연주하여 확실한 종지감을 준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기-경-경-결-결-해-해의 확대형식 장은 제12장이 유일하다.

원장현류 중모리 장을 기· 경· 결· 해의 형식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형식 장이다. 기-경-결-해 구성의 4장단형 기본형식 장은 제2장, 제4장, 제7장으로 총 3개이다. 다음으로 축소형식 장이다. 기-해 구성의 2장단형 축소형식 장은 제3장, 제6장, 제8장, 제11장으로 총 4개이다. 기-결-해 구성의 3장단형 축소형식 장은 제5장이 있다. 기-경-해 구성의 3장단형 축소형식 장은 제10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확대형식 장이다. 기-경-경-결-해-해의 6장단형 확대형식 장은 제1장과 제9장으로 2개이다. 기-경-경-결-결-해-해의 7장단형 확대형식 장은 제12장 하나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기본형식, 축소형식, 확대형식의 비율로 구분하면, 축소형식 장은 6개(50%) 기본형식 장은 3개(25%) 확대형식 장은 4개 27%이다.

〈표9〉 원장현류 장(章)

장단의 길이		기경결해 유형	장의 위치	개수(비율)
축소형식	2장단형	기-해	3장	6개(50%)
			6장	
			8장	
			11장	
	3장단형	기-결-해	5장	
		기-경-해	10장	
기본형식	4장단형	기-경-결-해	2장	3개(25%)
			4장	
			7장	
확대형식	6장단형	기-경-경-결-해-해	1장	3개(25%)
			9장	
	7장단형	기-경-경-결-결-해-해	12장	

요컨대, 원장현류 중모리의 장은 기본형식은 기-경-결-해 유형의 4장단형, 축소형식은 기-해 유형의 2장단형, 기-결-해, 기-경-해 유형의 3장단형, 확대형식 기-경-경-결-해-해 유형의 6장단형, 기-경-경-결-결-해-해 유형의 7장단형이 있다.

3. 변청과 변조

원장현류의 중모리에서 변청과 변조가 나타나는 경우는 돌장과 일시적 변청 두 가지 이다. 돌장[115]은 악조변화를 유도하고 일시적 변청[116]은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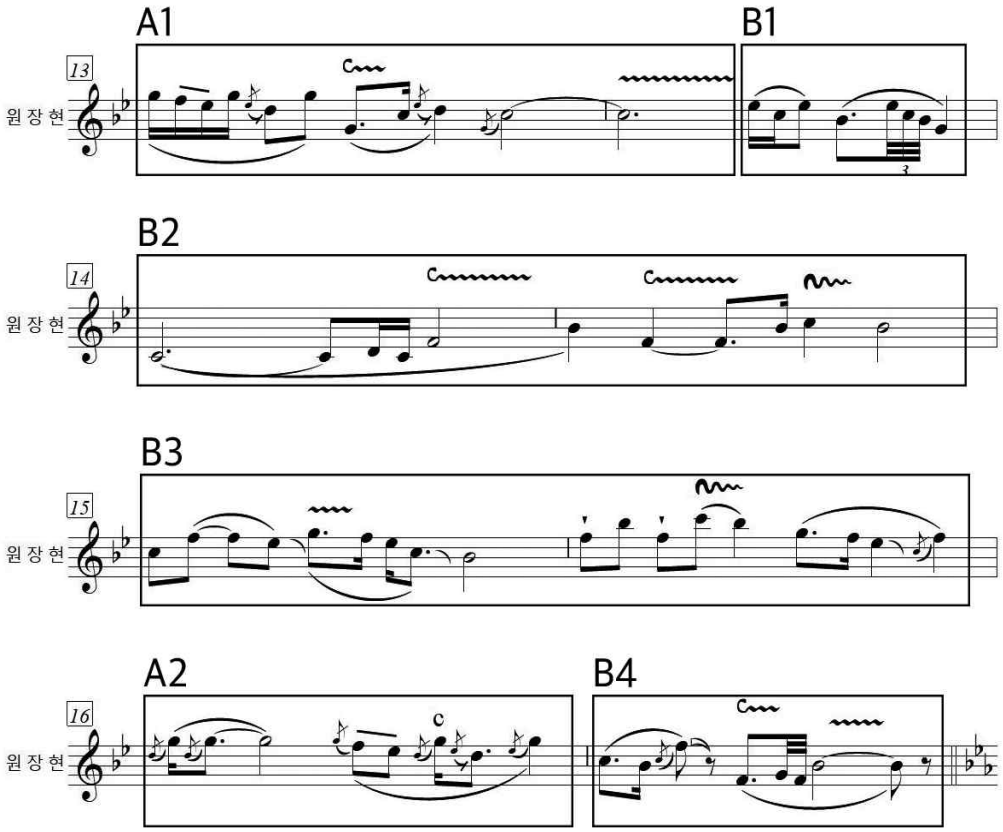
115) 돌장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돌장은 서로 다른 두 악조로 구성된 장 사이에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돌장은 혼합조나 혼합청으로 구성된 장이어야 한다. 박지윤, 앞의 논문(2016), 158쪽.

116) 한 장단이나 두 장단 내에서 변청 한 후 다시 원래의 악조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 돌장

원장현류 중모리의 돌장은 제4장으로 제13장단~제16장단이다. 이를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41〉 원장현류 중모리 돌장(제4장)



위 〈악보41〉은 원장현류의 제4장이다. 원장현류 제4장(제13장단~제16장단)는 B♭청 평조인 제12장단과 C청 계면조인 제14장단 사이에 구성되어, 두 악조 사이의 연결구에 위치하였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4장의 선율은 C청 계면조[117]와 B♭청 평조[118]의 두 가지의 악조가 섞인 혼합조이다. 악조의 변화는 각 음

117) C청 계면조의 음 조직은 미-라-도-시이고, c음은 본청, g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 e♭음은 d음으로 꺾는 음이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의 기능 변화를 중점으로 악조를 판단할 수 있다.[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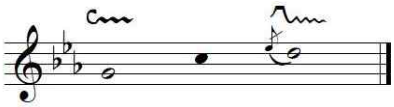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13장단을 살펴보면, C청 계면조와 B♭청 평조의 선율이 모두 나타난다. C청 계면조의 선율이 나타나는 부분은 〈악보41〉의 A1부분으로 e♭′음에서 d′음으로 꺾어 농음하는 선율과 c′음을 길게 뻗어 본청으로서 기능하는 선율에서 C청 계면조임이 드러난다. B♭청 평조의 선율이 나타나는 부분은 〈악보41〉의 B1부분으로 e♭′음을 꺾지 않고 연주하는 선율과 b♭음에서 g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에서 B♭청 평조임이 드러난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14장단을 살펴보면, B♭청 평조의 선율만이 나타난다. B♭청 평조의 선율이 드러나는 부분은 〈악보41〉의 B2부분으로, f음을 농음하고, b♭′음으로 종지하며, c′음을 퇴성하는 선율에서 B♭청 평조임이 드러난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15장단을 살펴보면, B♭청 평조의 선율만이 나타난다. B♭청 평조의 선율이 드러나는 부분은 〈악보41〉의 B3부분으로, b♭′음을 길게 뻗고, c′음을 퇴성하는 선율에서 B♭청 평조임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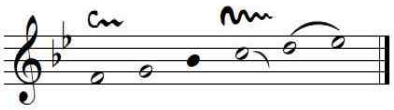
원장현류 중모리의 제16장단을 살펴보면, C청 계면조와 B♭청

〈악보42〉 C청 계면조



118) B♭청 평조의 음 조직은 솔-라-도-레-미(파)이고 B♭ 음이 본청이고 F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 C음은 퇴성하거나 퇴성한 후 농음하는 음이다. 이보형, 위의 논문(2001), 221쪽.

〈악보43〉 B♭청 평조



119) 임재원은 악조의 변화는 음의 기능을 달리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임재원, 앞의 논문(1988).

평조의 선율이 모두 나타난다. C청 계면조의 선율이 나타나는 부분은 〈악보41〉의 A2부분으로, e♭′음에서 d′음으로 꺾어 농음하는 선율에서 C청 계면조임이 드러난다. B♭청 평조의 선율이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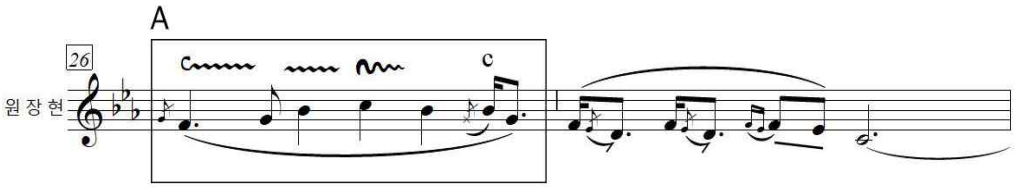
B♭청 평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악보41〉의 B4부분으로 b♭음을 길게 뻗고 종지음으로 사용하며, f′음을 농음하는 선율에서 B♭청 평조임이 드러난다.

정리하면, 원장현류 중모리 제4장은 B♭청 평조인 제3장과 C청 계면조인 제5장 사이에 구성되어, 두 악조 사이의 연결구에 위치하고,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두 가지 악조가 모두 나타나는 혼합조의 구성임으로 돌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120]

(2) 일시적 변청과 변조

일시적 변청과 한 장단 내에서 일시적으로 변조 이후 다시 원래의 악조로 돌아오는 것이다.

〈악보44〉 원장현류 중모리 일시적 변조(제26장단)



위 〈악보44〉는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 제8장 제26장단이다. 위 선율은 C청 계면조의 선율이지만 일시적으로 B♭청 내드름조

120)박지윤 돌장의 특징을 서술하였는데, 원장현류 중모리 제13장단~제16장단이 이에 부합한다. 박지윤이 서술한 돌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장은 서로 다른 두 악조로 구성된 장 사이에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돌장은 혼합조나 혼합청으로 구성된 장이어야 한다. 박지윤, 앞의 논문(2016), 158쪽.

의 선율이 일시적으로 연주된다. B♭청 우조[121]가 나타나는 부분은 〈악보44〉의 A부분이다. 〈악보44〉는 A부분에서 f음을 농음하는 음으로, C음에서 퇴성하는 음으로 사용하여 B♭청 우조로 구성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제7박부터는 F음을 퇴성하고, E♭음에서 D음으로 꺾고, C음을 평으로 길게 뻗는 특징이 나타나 C청계면조로 구성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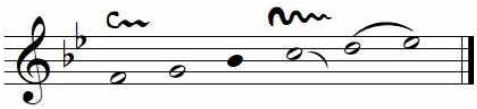
요컨대, 원장현류 중모리의 돌장은 제13장단~제16장단에서 나타나며, C청 계면조와 B♭청 평조의 혼합조이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일시적 변조는 제26장단에서 나타나며, C청 계면조에서 B♭청 평조로 변조되었다가 다시 C청 계면조로 돌아온다.

〈표10〉 원장현류 변조

	악조	위치
돌장	C청 계면조+B♭청 평조	제 13장단~제 16장단
일시적 변청	C청 계면조+B♭청 평조	제 26장단

121) B♭청 평조의 음조직은 솔(f)-라(g)-도(b♭)-레(c)-미(d)-파(e♭)이다. 본청은 도(b♭)음이다. 솔(f)음은 굵게 농음하는 음이다. c음은 퇴성하는 음으로 퇴성한 후 푸는 농음을 하기도 한다. 이를 악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보형, 앞의 논문(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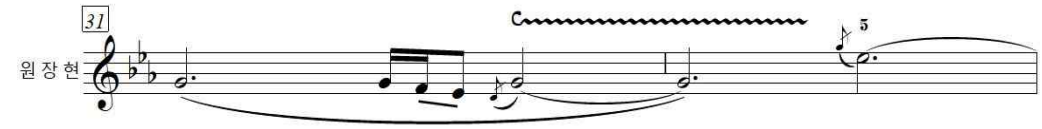
〈악보45〉 B♭청 평조



4. 호흡선

호흡선은 관악기에서 소리를 연결하거나 끊기 위해 사용하는 연주법 중 하나이다. 소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호흡으로 연주하고, 소리를 끊을 때는 호흡을 멈추고 새로운 호흡을 악기에 불어넣어 연주한다. 악보에는 슬러로 표기된다. 하나의 호흡선은 슬러가 시작되는 음표부터 끝나는 음표까지이며, 슬러가 없는 음표는 하나의 호흡선이다.이해를 돕기 위해, 예보 아래에 호흡선의 번호를 숫자로(예시: 제 1호흡선=①, 제 2호흡선=②, ...) 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호흡선을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122]악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46〉 원장현류 중모리 2호흡선형 장단(제31장단)



호흡선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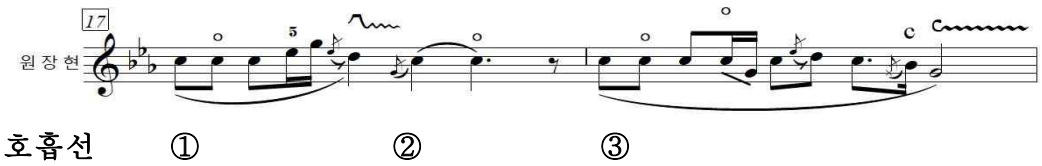
위 〈악보46〉은 원장현류 제31장단으로 원장현류 2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31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부터 제9박까지이다. 제2호흡선은 제10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2호흡선형 장단은 제1장단, 제7장단, 제31장단으로 총 3개이다.

---

122) 필자는 서용석류를 먼저 학습한 후, 원장현류를 학습하였다. 원장현류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악장인 원완철에게 학습하였는데, 서용석류가 익숙한 필자가 원장현류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은 호흡선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서용석류의 짧은 호흡선에 익숙하였기에, 원장현류의 긴 호흡선으로 연주 기법을 바꾸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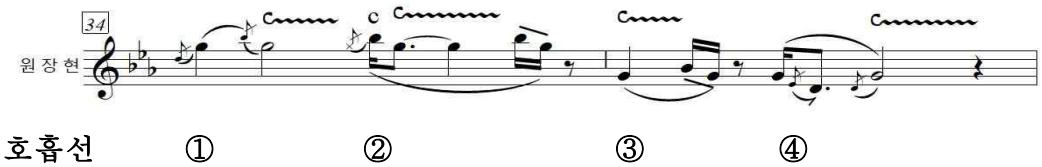
〈악보47〉 원장현류 중모리 3호흡선형 장단(제17장단)



위 〈악보47〉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17장단으로, 3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17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3박이다. 제 2호흡선은 제4박~제5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7박~제12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3호흡선형 장단은 제2장단, 제3정단, 제9장단, 제15장단, 제17장단, 제26장단으로 총 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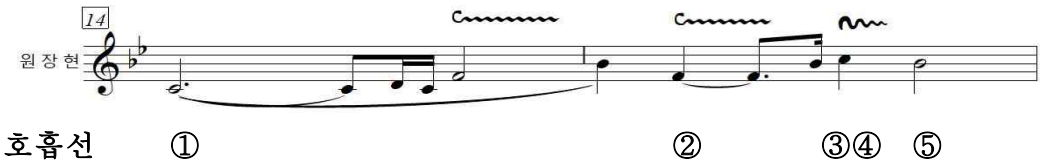
〈악보48〉 원장현류 중모리 4호흡선형 장단(제34장단)



위 〈악보48〉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34장단으로, 4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34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3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4박~제6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7박~제8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제11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4호흡선형 장단은 제11장단, 제16장단, 제30장단, 제34장단으로 총 4개이다.

〈악보49〉 원장현류 중모리 5호흡선형 장단(제1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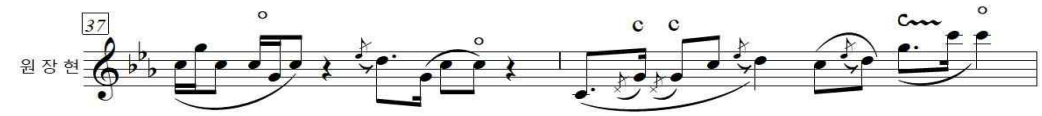


호흡선 ① ② ③④ ⑤

위 〈악보49〉는 원장현류 제14장단으로, 5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제14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부터 제7박까지이다. 제2호흡선은 제8박부터 제 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3호흡선은 제9박의 제2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10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11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5호흡선의 장단은 제13장단, 제19장단, 제27장단, 제36장단, 제44장단으로 5개이다.

〈악보50〉 원장현류 중모리 6호흡선형 장단(제37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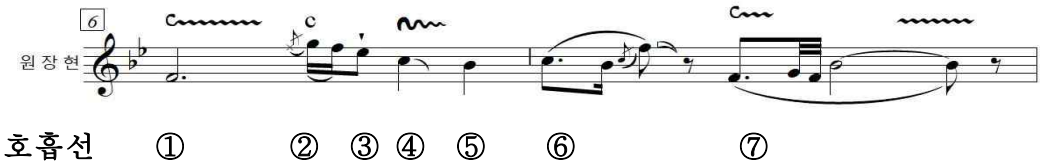


호흡선 ① ② ③ ④ ⑤ ⑥

위 〈악보50〉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37장단으로, 6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37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2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3박의 제1소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의 제2소박～제4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7박～제9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10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11박～제12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6호흡선형의 장단은 제4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0장단, 제12장단, 제20장단, 제22장단, 제25장단, 제33장단, 제37장단, 제40장단, 제43장단으로 총 1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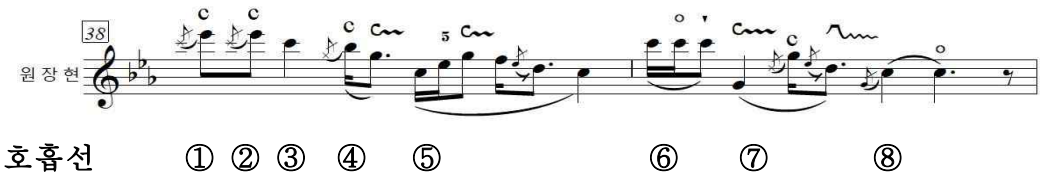
〈악보51〉 원장현류 중모리 7호흡선형 장단(제6장단)



위 〈악보51〉은 원장현류 중모리 제6장단으로, 7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제6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제3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4박의 제1소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4박의 제2소박이다. 제 4호흡선은 제5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6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7박~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9박~제12박의 제1소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7호흡선형 장단은 제6장단, 제24장단, 제28장단, 제29장단, 제32장단, 제35장단, 제39장단, 제45장단으로 총 8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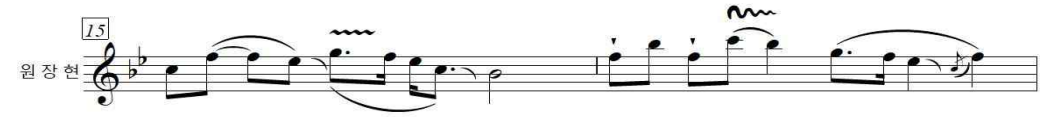
〈악보52〉 원장현류 중모리 8호흡선형 장단(제38장단)



위 〈악보52〉 원장현류 제38장단으로, 8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제38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1소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1박의 제2소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2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3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4박~제6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7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8박~제9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10박~제11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중 8호흡선형 장단은 제38장단, 제41장단으로 2개이다.

〈악보53〉 원장현류 중모리 9호흡선형 장단(제15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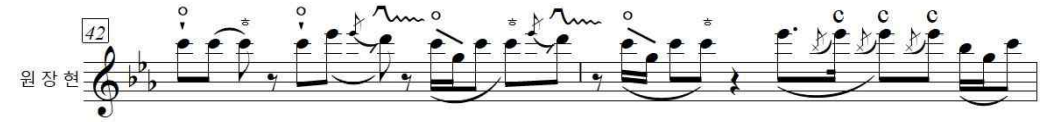


호흡선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위 〈악보53〉은 원장현류 제15장단으로, 9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제15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1소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1박의 제2소박～제2박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제4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5박～제6박이다. 제5호흡선은 제7박의 제1소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8박의 제1소박이다. 제8호흡선은 제8박의 제2소박～제9박이다. 제9호흡선은 제10박～제12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9호흡선형 장단은 제15장단, 제18장단, 제21장단, 제23장단으로 4개이다.

〈악보54〉 원장현류 중모리 10호흡선형 장단(제42장단)



호흡선 ①② ③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위 〈악보54〉는 원장현류 제42장단으로, 10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제42장단의 제1호흡선은 제1박의 제1소박이다. 제2호흡선은 제1박의 제2소박부터 제2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3호흡선은 제3박의 제1소박이다. 제4호흡선은 제3박의 제2소박부터 제4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5호흡선은 제5박부터 제6박의 제1소박이다. 제6호흡선은 제6박의 제2소박이다. 제7호흡선은 제7박의 제2소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제8호흡선은 제10박부터 제11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제9호흡선은 제11박의 제2소박이다. 제10호흡선은

제12박이다.

원장현류 중모리 중 10호흡선형 장단은 제42장단이 유일하다.

요컨대, 원장현류 중모리의 호흡선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를 호흡선의 개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2개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이하 2호흡선형 장단), 3호흡선형 장단, 4호흡선형 장단, 5호흡선형 장단 6호흡선형 장단, 7호흡선형 장단, 8호흡선형 장단, 9호흡선형 장단, 10호흡선형 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호흡선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1〉 원장현류 호흡선 유형

호흡선 유형	위치	개수
2	1, 7, 31	3개
3	2, 3, 9, 15, 17, 26	6개
4	11, 16, , 30, 34	4개
5	13, 19, 27, 36, 44,	5개
6	4, 5, 8, 10, 12, 20, 22, 25, 33, 37, 40, 43	12개
7	6, 24, 28, 29, 32, 35, 39, 45	8개
8	38, 41	2개
9	15, 18, 21, 23,	4개
10	42	1개
합계		45개

원장현류 중모리의 호흡선을 장단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2〉 원장현류 중모리 호흡선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1	2	11	4	21	9
2	3	12	6	22	6
3	3	13	5	23	9
4	6	14	5	24	7
5	6	15	9	25	6
6	7	16	4	26	3
7	2	17	3	27	5
8	6	18	9	28	7
9	3	19	5	29	7
10	6	20	6	30	4
장단	호흡선	장단	호흡선		
31	2	41	8		
32	7	42	10		
33	6	43	6		
34	4	44	5		
35	7	45	7		
36	5	합계: 257 평균: 5.71			
37	6				
38	8				
39	7				
40	6				

Ⅳ.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비교

본 장에서는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를 선율, 악조, 장. 변청과 변조, 호흡선의 순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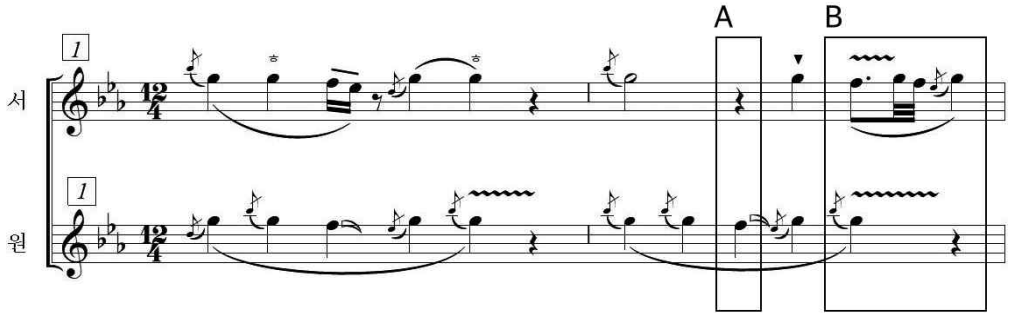
1.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 선율 비교

본 장에서는 두 유파의 선율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두 유파의 동일· 유사 선율을 통해 두 유파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상이선율을 통해 두 유파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동일선율

동일선율은 선율선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선율선이 동일하면, 꾸밈음과 리듬형태가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음정이 다른 것도 동일선율로 분류한다. 유사선율은 선율선이 대부분 같으나, 부분적으로 장단을 유사선율로 규정한다. 부가적으로 두 유파의 꾸밈음의 개수를 분석하여 두 유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동일선율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55〉 동일선율(서용석류 제1장단 - 원장현류 제1장단)



위 〈악보55〉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1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1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과 제2박에서 g′음을 반복하고 제3박에서는 f′음을 퇴성한다. 제4박과 제5박에서는 g′음을 길게 뻗는 선율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7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6박에서 g′음으로 시작하여 F음을 거쳐 다시 g′음으로 끝나는 구성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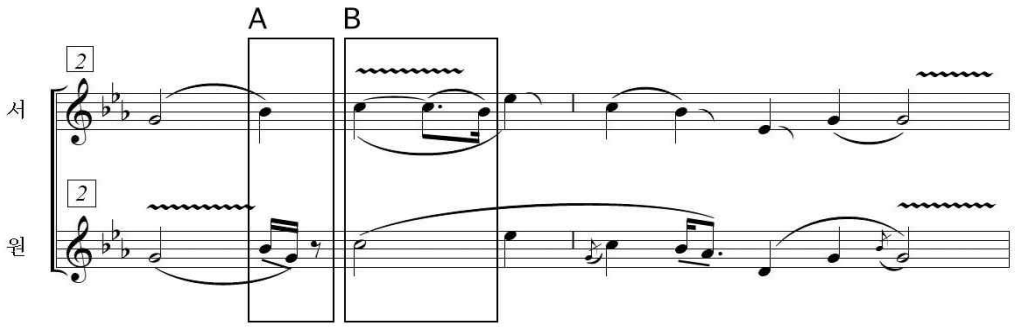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55〉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먼저 A부분에서(제9박)에서 서용석류는 쉰다. 반면 원장현류는 F음을 퇴성한다. 다음으로 B부분에서는(제11박～제12박) 서용석류는 제 11박에서 f′음으로 시작하여 G음과 F음을 거쳐 제2박에서 다시 G음이 나타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11박부터 제12박까지 G음을 농음한다. 서용석류는 전반부 선율에 생략과 꾸밈음을 통해 후반부의 선율에 변화를 주어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면, 원장현류는 전반부의 가락을 후반부에 반복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다음으로 부가적 차이점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꾸밈음이다. 첫째, 제1박에서 서용석류는 꾸밈음으로 b♭′음을 연주하지만, 원장현류는 d′음이다. 둘째, 제2박에서는 서용석류는 꾸밈음이 없지만, 원장현류는 B♭음 꾸밈음이 있다. 다음으로 리듬이다. 첫째, 제 3박에서 서용석류는 f′음을 제1소박에서 퇴성하지

만, 원장현류는 제 3박 전체에 걸쳐 f′음을 퇴성한다. 둘째, 제7박과 제8박에서 서용석류는 g′음을 이분음표로 연주하지만, 원장현류는 사분음표로 2번에 나누어 연주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1장단과 원장현류 제1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55〉의 A부분과 B부분에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4개 원장현류가 8개이다.

〈악보56〉 동일선율(서용석류 제2장단-원장현류 제2장단)



위 〈악보56〉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 2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2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과 제2박에서 g음을 연주하고 제3박에서는 b♭음으로 이어지고, 제4박과 제 5박에서는 c음을 거쳐 제6박에 d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6박에서 C음, 제7박에서는 B♭음을 퇴성 한 후 제9박에서 D음을 연주한 후 제10박부터 G음을 시작하여 제12박까지 연주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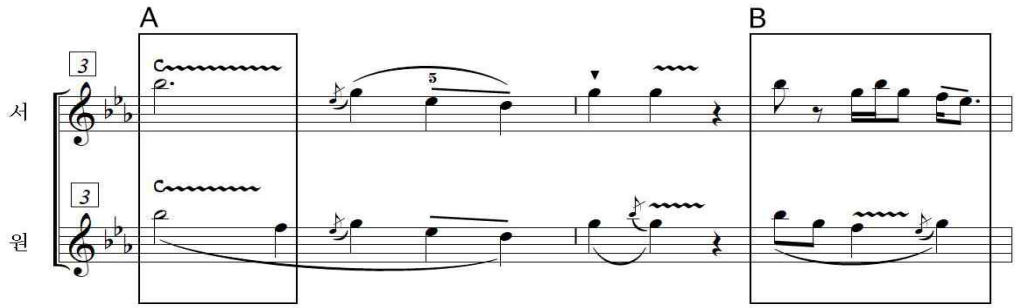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56〉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제3박과 제4박부터 제5박이다. 먼저, A부분(제3박)에서 서용석류는 b♭음을 연주 한 후 그 음에서 마무리한다면 원장현류는 b♭음을 g

음으로 퇴성한다. 다음으로 B부분에서(제4박부터 제5박까지) 두 유파 모두 4박에서 c′음, 박에서 e♭′음으로 연주한다. 차이점은 서용석류 c′음을 b♭′음을 거쳐 e♭′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c′음에서 바로 e♭′음으로 연주한다.

다음으로 꾸밈음이다. 서용석류는 꾸밈음이 없지만, 원장현류는 2번의 꾸밈음이 나타난다. 제7박과 제11박이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 2장단과 원장현류 제2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악보56〉의 A, B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에서 서용석류는 퇴성을 하지 않고, 원장현류는 퇴성을 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는 0개 원장현류는 2개이다.

〈악보57〉 동일선율(서용석류 제3장단-원장현류 제3장단)



위 〈악보57〉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3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3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과 제2박에서 b♭′음을 농음하고 제4박에서는 g음, 제5박에서 e♭′음, 제6박에서 d′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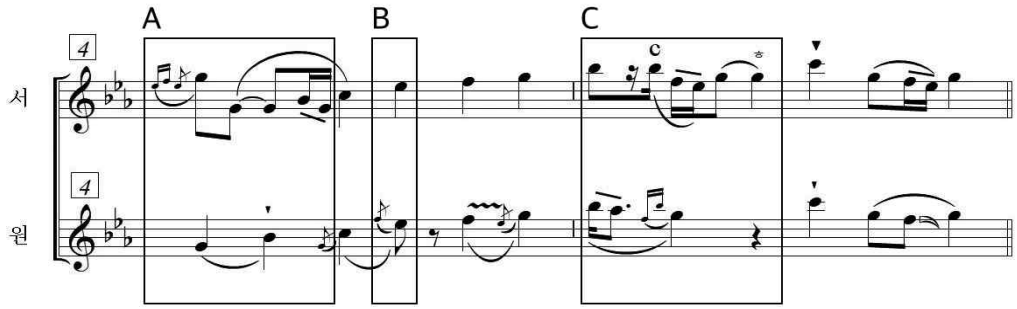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부터 제8박까지 g′음을 한 박씩 연주하는 것이 동일하다. 제9박은 동일하게 쉰다. 제10박 B♭음에서 f′음에서 퇴성하여 g′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서용석류의 경우 다음 장단인 제4박의 제1소박에 g음이 출현한다.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 44〉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먼저, A부분(제3박)에서는 서용석류는 제3박에 b♭음을 3박에 걸쳐 연주 하지만, 원장현류는 제3박에서 f′음을 연주한다. 다음으로 B부분(제10박~제12박까지)이다. B부분에서 공통된 선율선은 b♭′음-g′음-f′음 퇴성-g′음이다. 서용석류는 b♭′음을 제10박의 제1소박에서만 연주한 다음 제11박에서 순서대로 g′음 b♭′음을 16분음표로 g′음을 8분음표로 연주한다. 제12박에서 B♭음을 퇴성하고 다음 장단인 제4장단의 제1박의 제1소박에서 g′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10박의 제1소박에서 b♭′음을 제2소박에서 g′음을 연주하고 제11박에서는 F음을 퇴성하고 제12박에서 g′음을 연주한다. 결과적으로 선율선은 같지만,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한 박씩 늦게 연주한다. 서용석류는 하나의 선율선의 마지막음 장단의 첫박에 연주하는 음악적 변칙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면, 원장현류는 하나의 선율을 하나의 장단에서 마무리지어 안정적인 연주를 한다.

다음으로 부가적 차이점으로는 꾸밈음이다. 8박에서 서용석류는 꾸밈음이 없지만, 원장현류는 B♭′음을 꾸밈음으로 연주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2장단과 원장현류 제2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악보44〉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1개 원장현류가 3개이다.

〈악보58〉 동일선율(서용석류 제4장단-원장현류 제4장단)



위 〈악보58〉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4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부터 제6박까지)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G음-B♭음-C음-F음-G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부터 제12박까지)를 살펴보면, 제7박부터 B♭음 제8박에서 G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10박에서 C음 제11박 제1소박에서 G음, 제2소박에서 F음을 퇴성하고 제12박에서 G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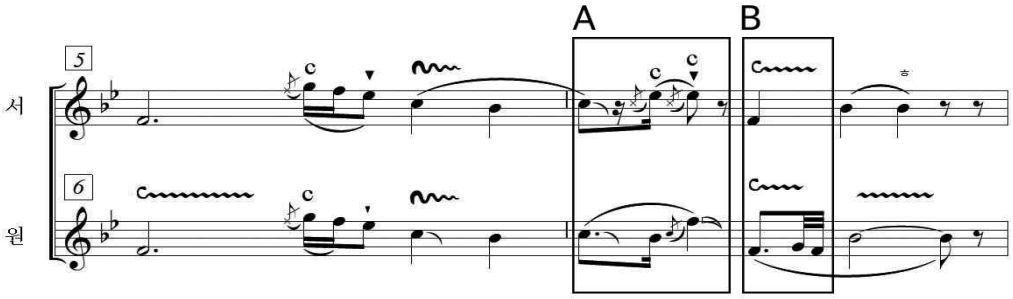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58〉의 A부분, B부분, C부분에서 나타난다. 제1박부터 제2박까지, 제4박 그리고 제7박부터 제9박까지이다. 먼저, A부분(제1박부터 제2박까지)에서 서용석류는 제1박의 제1소박에서 평취 G음을 연주한 후 제2소박에서 한 옥타브 아래음인 저취 G음을 연주한다. 제2박에서는 제2박의 제1소박까지 G음을 연주한 후 제 2소박에서 B♭에서 G음으로 퇴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1박에서 저취 G음을 4분음표로 연주하고 제2박에서 B♭음을 4분음표로 연주한다. 다음으로 B부분(제4박)에서 서용석류는 E♭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D음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C부분 (제7박부터 제9박까지)에서는 서용석류는 제7박의 제1소박에서 B♭음 제2소박에서는 B♭음을 16분음표로 다루친다. 제8박에서 서용석류는 제8박의 제 1소박에서 F음을 E♭음으로 퇴성하고 제2소박에서 G음을 연주한다. 제9박에서 서용석류는 G음을 연주한다면 반면, 원장현류는 제7박에서 B♭음을 A음까지 퇴성한다. 제8박에서는 G음을 꾸밈음인 F음과 B♭음을 붙여 연주하고, 제9박에서는 쉰다. 서용석류는 제7박과 B♭음을 반복과 다루치기 주법으로 강조한다면, 원장현류는 퇴성과 꾸밈음을 통해 G음으로 부드럽게 연결하여 연주한다.

다음으로 부가적 차이점으로는 꾸밈음이다. 첫째, 제1박에서 서용석류는 순서대로 D음, F음, D음의 꾸밈음이 출현하지만, 원장

현류는 꾸밈음이 없다. 둘째, 제3박에서 서용석류는 꾸밈음이 없지만, 원장현류는 G음이 꾸밈음으로 등장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4장단과 원장현류 제 4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악보58〉의 A부분 B부분 C부분에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1개 원장현류가 4개이다.

〈악보59〉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장단-원장현류 제6장단)



위 〈악보59〉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6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6이나, 선율선은 동일하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까지)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에서 f음 제2박에서 b♭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제3박에서 g′음, 제5박에서 c음, 제6박에서 b♭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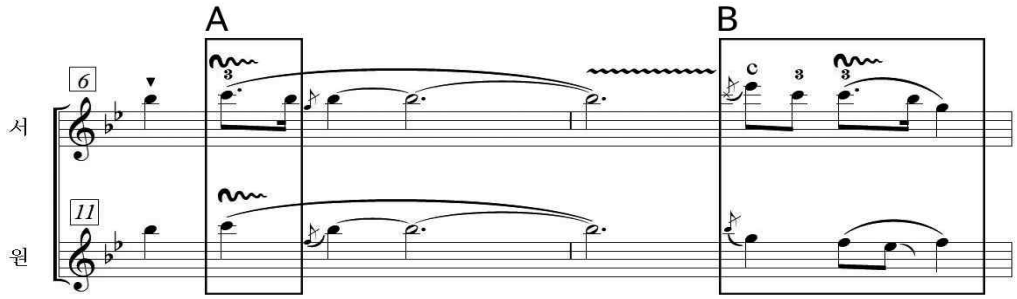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부터 c음 제9박에서 g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10박부터 제12박까지 b♭′음으로 연주하는 선율이 동일하다.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59〉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먼저, A부분(제7박～제8박)에서는 서용석류는 제7박의 제2소박과 제8박에서 d′음 연속적으로 다루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7박의 제2소박에서 b♭음을 16분음표로 연주한 후 제8박에서 f′음을 퇴성한다. 서용석류는 다루 치기로 음을 올린 다음 제9박의 f′음으

로 이어진다면, 원장현류는 f′음을 퇴성한 다음 제9박의 f음으로 이어진다. 서용석류에 비해 원장현류가 선율선을 부드럽게 연결한다. B부분(제9박)에서 f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9박의 제1소박에서 f′음을 점 8분음표로, 제2소박에서는 G음과 f′음을 32분음표로 연주한다. 원장현류가 B부분에서 g음과 f음을 연주함으로서 제9박의 f음과 제10박에서 B♭음 부드럽게 연결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장단과 원장현류 제6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악보46〉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0개 원장현류가 1개이다.

〈악보60〉 동일선율(서용석류 제6장단-원장현류 제11장단)



위 〈악보60〉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6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11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b♭′음-C″음- b♭′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b♭′음을 제9박까지 연주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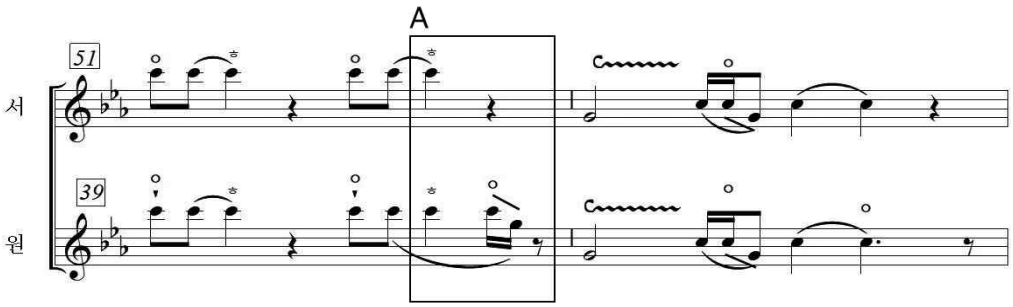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60〉의 A부분, B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제2박)에서 서용석류는 제2박의 제1소박에서 c″음을 연주한 후 제2소박에서 B♭음을 16분음표로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2박에서 C음만 연주한다. B부분은 다음 장단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율이다. 서용석류는 제10박의 제1소박에서 E♭음을 제2소박

에서 C음을 연주한다. 제11박에서는 제1소박에서는 C음 제2소박에서는 16분음표로 b♭음을 연주하고 마지막 제12박에서 g′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10박에서 G음을 연주한 후, 제11박에서 f′음과 e♭음을 8분음표로 연주하고 마지막 제12박에서는 f′음을 연주한다. 이런 차이는 다음 장단의 선율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부가적 차이점으로는 꾸밈음이다. 첫 번째로는 제3박에서 서용석류는 g′음을 꾸밈음으로 연주하지만, 원장현류는 f′음을 꾸밈음으로 연주한다. 두 번째로 제3박에서 서용석류는 꾸밈음이 없지만, 원장현류는 G음이 꾸밈음으로 등장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6장단과 원장현류 제11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1개 원장현류가 2개이다.

〈악보61〉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1장단-원장현류 제39장단)



위 〈악보61〉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1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39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의 제1소박에서 C음을 제1박의 제2소박부터 제2박가지 C음을 연주하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4박부터 제5박까지 제1박부터 제2박의 선율선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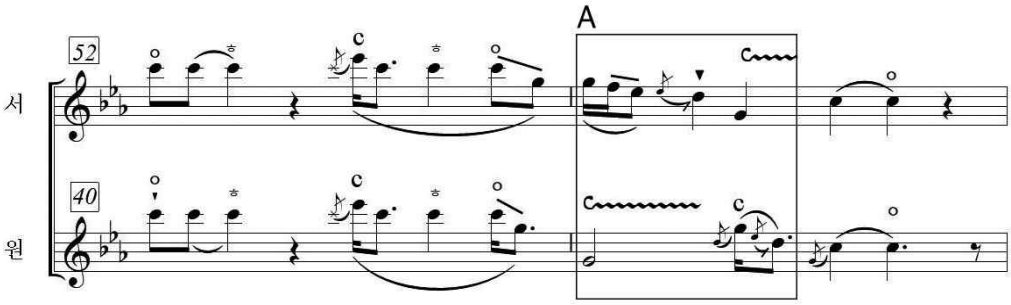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G음을 농음한 후

제9박에서 C음을 퇴성하여 G음까지 연결하고 제9박 제10박에서 C음을 연주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61〉의 A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제5박～제6박)에서 서용석류는 제1박부터 제2박의 선율을 반복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6박에서 C음을 G음까지 퇴성한다. 이런 차이로 원장현류는 다음 박에서 연주되는 G음까지 선율을 부드럽게 연결시킨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1장단과 원장현류 제39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A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1개 원장현류가 4개이다.

〈악보62〉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2장단-원장현류 제40장단)



위 〈악보62〉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2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 40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먼저,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의 제1소박에서 c″음을, 제1박의 제2소박부터 제2박까지 c″음을 연주하는 것이 동일하다. 제4박에서 e♭″음을 다루친 후 C음으로 연결하여 제6박의 제1소박 까지 연결한 후 g′음으로 퇴성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g′음에서 d′음까지 연결되는 선율선과 g′음을 농음하는 선율이 순서만 바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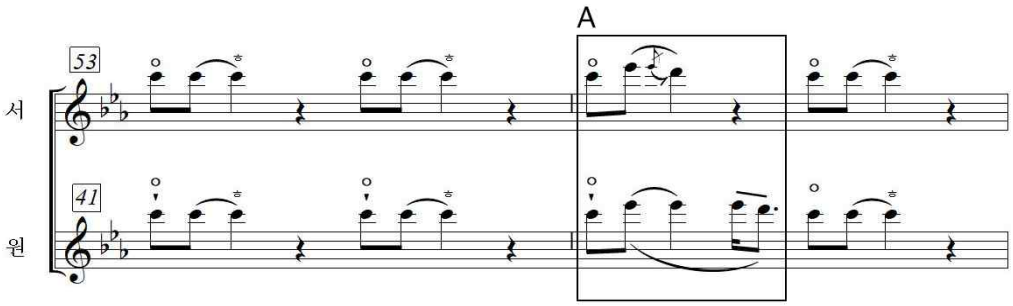
연주된다. 서용석류는 g′음에서 d′음까지 연결되는 선율선이 제7박부터 제8박에 연주되고 제9박에서는 g음을 농음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g음 농음이 제7박부터 제8박에 연주되고 g음에서 d′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선이 제9박에 연주된다.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62〉의 A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A부분(제7박～제8박)에서는 같은 선율선이 순서만 다르게 등장한다. 추가적으로 서용석류는 g′음에서 d′음까지 연결되는 선율선이 제7박의 제1소박에서 g′음 연주하고 제2소박에서는 f′음을 퇴성한다. 이후 제8박에서 e♭′음에서 D음으로 꺾는다. 반면 원장현류는 g′음에서 d′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선이 제9박의 제1소박에서 g음을 연주한 후 제 2소박에서 e♭음에서 d음으로 꺾는다.

다음으로 부가적 차이점으로는 꾸밈음이다. 첫 번째로는 제10박에서 서용석류는 꾸밈음이 없지만, 원장현류는 g음을 꾸밈음으로 연주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2장단과 원장현류 제40장단은 동일선율이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0개 원장현류가 1개이다.

〈악보63〉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3장단-원장현류 제41장단)



위 〈악보63〉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3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1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의 제1소박에서 c″음을, 제1박의 제2소박부터 제2박까지 c″음을 연주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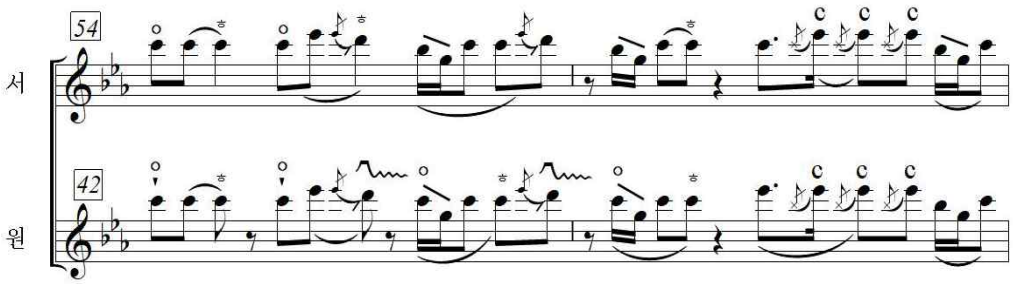
것이 동일하다. 제4박부터 제6박까지에서도 동일한 선율을 반복한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과 제8박에서 c″음으로 시작하여 e♭″음을 d″음까지 꺾는 선율이 동일하다.

선율적 차이점은 〈악보63〉의 A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제8박～제9박)에서 서용석류는 제8박에서 e♭″음을 d″음까지 꺾는 반면, 원장현류는 e♭″음을 제9박까지 연주한 후 d″음으로 꺾는다. 이러한 차이로 서용석류는 제9박에 쉼으로서 e♭″음에서 d″음까지 꺽는 선율을 강조한다면 원장현류는 제9박의 c″음까지 부드럽게 연결하여 연주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3장단과 원장현류 제41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A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두 유파 다 없다.

〈악보64〉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4장단-원장현류 제42장단)



위 〈악보64〉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4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2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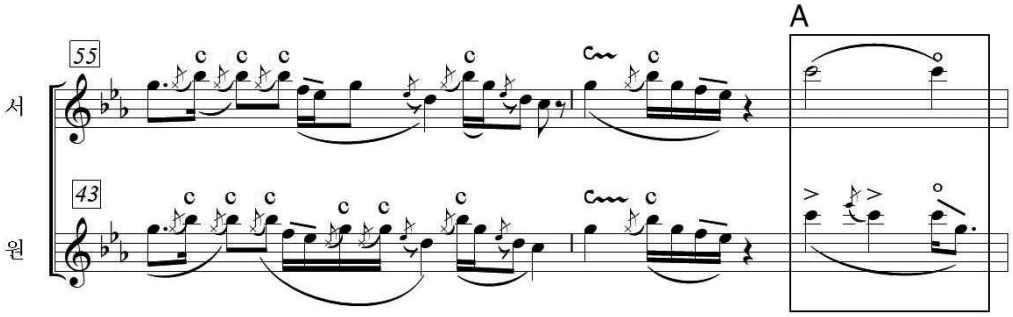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의 제1소박에서 C음을, 제1박의 제2소박부터 제2박까지 c″음을 연주하는 것이 동일하다. 제3박부터 제4박까지 C음을 연주한 이후 e♭″음에서 d″음으로 꺽는 선율이 동일하다. 이후 제5박부터 제6박까지에

서는 제5박의 제 1소박에 c″음에서 g′음으로 퇴성한 후 제5박의 제2소박에 c″음을 연주하고 제6박의 제1소박에서 c″음을 연주하고 제2소박에서는 e♭″음에서 d″음으로 꺾는 선율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에서 c″음에서 g′음으로 퇴성한 후 제8박에서 c″음을 8분음표로 두 번 연주 하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10박에서 c″음에서e♭″음으로 다루치기를 한 후, 제12박에서 c″음에서 g′음으로 퇴성한 후 다시 c″음으로 마무리 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3장단과 원장현류 제41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선율적인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꾸밈음은 두 유파 다 없다.

〈악보65〉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5장단-원장현류 제43장단)



위 〈악보65〉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5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3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전반부(제1박～제6박까지)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의 제1소박에서 G음을 연주한 후 제2박까지 b♭′음을 다루치기로 3번 연주한다. 제3박의 1소박에서 f′음을 e♭′음으로 퇴성한 후 제2소박에서는 g′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제4박에서는 e♭′음을 d′음으로 꺾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5박의 제1소박에서 b♭′음을 다루치기 한 후 제2소박에서 e♭′음을 d′음으로 꺾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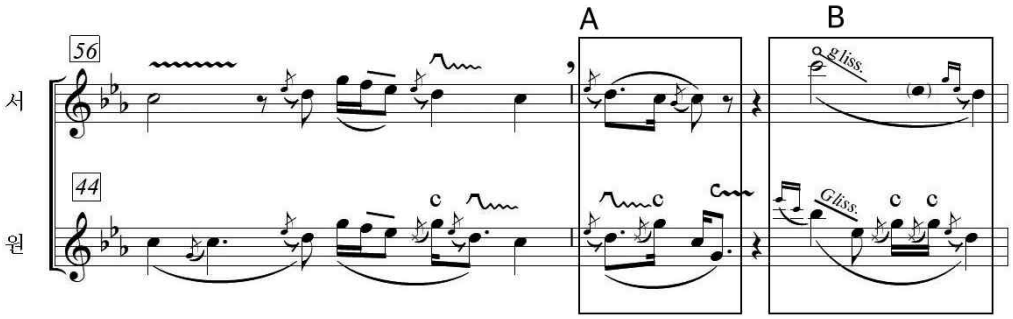
것이 동일하다. 마지막 제 6박에서는 c″음의 선율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에서 g′음 농음한 후 제2박의 제1소박에서 b♭′음 g′음, 제2소박에서 e♭′음을 d′음을 꺽는 선율이 동일하다. g′음으로 퇴성한 후 제8박에서 C음을 8분음표로 두 번 연주 하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10박부터 제11박까지 C음으로 연주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차이점은 〈악보65〉의 A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제10박부터 제12박까지 c″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10박에서 C음으로 연주한 후 제12박에서 g′음으로 퇴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원장현류 대금산조는 다음 장단으로 부드럽게 연결하여 연주를 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5장단과 원장현류 제43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선율적인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0개 원장현류가 1개이다.

〈악보66〉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6장단-원장현류 제44장단)



위 〈악보66〉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6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4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에서 제2박까지 c′음을 연주한다. 제3박의 제2소박에서 e♭′ b음에서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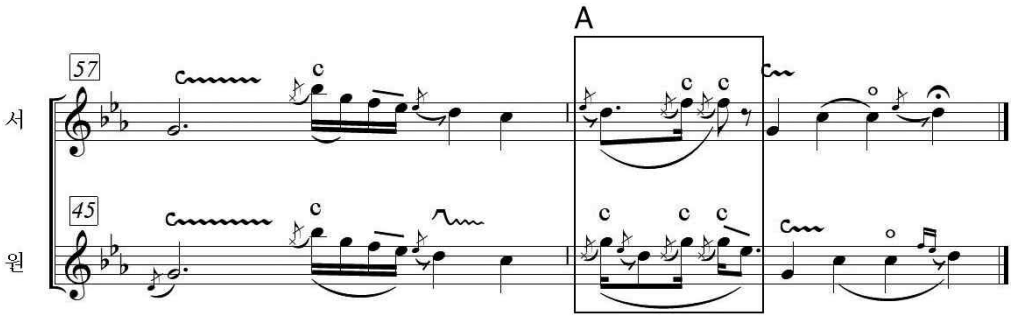
음으로 꺾는 연주가 동일하다. 제4박에 g′음에서 f′음에서 e♭′음으로 꺾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5박에서 e♭′음을 d′음으로 꺾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 6박에서 c′음으로 연주한다.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에서 e♭′음으로 d′음으로 꺾은 후 c′음으로 이어지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제10박에서 제12박까지 c″음과 b♭′음에서부터 d′음으로 퇴성하는 선율이 동일하다.

차이점은 〈악보66〉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에서 서용석류는 제7박의 제2소박과 제8박에서 c′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7박의 제2소박에서 g′음을 연주하고 제8박에서 c′음을 연주한 후 다시 g′음으로 연결한다. B부분에서 서용석류는 제10박에서 C음 연주하고 제12박에서 D음으로 연결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10박에서 b♭′음을 연주하고 제11박의 제1소박에서 e♭′음으로 퇴성한 후, 제11박의 제2소박에서 g′음을 다루치기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6장단과 원장현류 제44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선율적인 차이점은 〈악보66〉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1개 원장현류가 2개이다.

〈악보67〉 동일선율(서용석류 제57장단-원장현류 제45장단)



위 〈악보67〉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7장단과 원장현류 대금

산조의 제45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전반부(제1박～제6박)을 살펴보면, 두 악보는 제1박에서 제3박까지는 G음을 연주한다. 제4박의 제1소박에서 b♭′음과 g′음을 연주한 후 제2소박에서 f′음에서 e♭′음으로 퇴성하는 선율이 동일하다. 제5박에서 e♭′음으로 d′음으로 꺽은 후 제6박에서 c′음을 연주하는 것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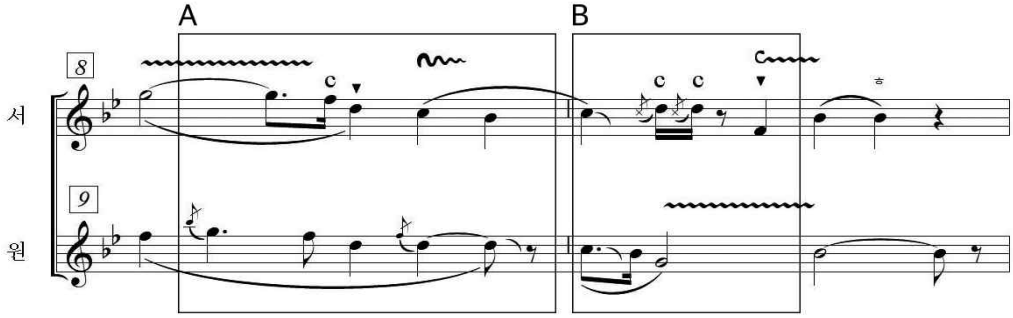
다음으로 후반부(제6박～제12박)를 살펴보면, 제7박부터 제8박까지d′음에서 g음으로 다루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이후 제9박에서 g음, 제10박에서c′음으로 연결되는 선율선이 동일하다.

차이점은 〈악보67〉의 A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제7박의 제1소박에서 d음을 연주하고 제8박에서 f음을 다루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7박에서 g′음을 다루 친 후 D음을 연주한다. 이후 제8박의 제1소박에서 g′음을 다루친 후 제2소박에서 e♭′음으로 퇴성한다. 서용석류는 제8박에서 다루치고 선율을 과감하게 생략한다면, 원장현류는 제8박에서 g음을 다루 친 후 e♭으로 퇴성하여 다음 박의 g음과 부드럽게 연결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7장단과 원장현류 제44장단은 동일선율이다. 차이점은 A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1개 원장현류가 1개이다.

나. 유사선율

〈악보68〉 유사선율(서용석류 제8장단-원장현류 제9장단)



위 〈악보68〉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8장단과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9장단이다. 두 악보는 동일선율이다.

G음에서 F음 D음을 거쳐 음정이c′음까지 내려오는 선율선과 b♭음으로 마무리되는 선율 유사하다.

차이점은 〈악보68〉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에서 서용석류는 d음을 제3박에서 짧게 연주한 후, 제4박에서부터 c′음이 등장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4박부터 제6박까지 d′음을 길게 연주한 후 제7박이 되어서야 c′음을 연주한다. 서용석류는 d′음으로 빨리 처리하고, b♭′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c′음 퇴성 후 b♭′음을 연주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d′음을 충분히 길게 연주한 후, C음을 퇴성한 후 B♭음을 연주한다. B부분에서 서용석류는 d′음을 다루치기로 강조한 후, f음을 농음하고 b♭′음으로 연결하여 연주하지만, 원장현류는 g′음을 2박에 걸쳐 농음한 후 b♭음으로 연결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 8장단과 원장현류 제 9장단은 유사선율이다. 차이점은 〈악보68〉의 A부분과 B부분에서 나타난다.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0개 원장현류가 2개이다.

정리하면,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동일선율은 서용석류가 14장단(24.5%), 원장현류가 15장단(33.3%)이다. 두 산조의 동일선율이 다른 이유는 서용석류는 같은 선율을 두 번[123] 원장현류는

세 번[124] 반복하기 때문이다. 두 산조의 유사선율은 한 장단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서용석류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 동일선율

악조	서용석류 (장단번호)	원장현류 (장단번호)
C청 내드름조	1	1
	2	2
	3	3
	4	4
B♭청 평조	5, 11	5, 6, 10
	6	11
C청 계면조	51	39
	52	40
	53	41
	54	42
	55	43
	56	44
	57	45

〈표14〉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유사선율

악조	서용석류(장단번호)	원장현류(장단번호)
B♭청 평조	8	9

두 유파의 동일선율 중 꾸밈음은 서용석류에 비해 원장현류가 더 많다. 서용석류 동일선율의 꾸밈음은 10개이다. 원장현류 동일선울의 전체 꾸밈음은 29개이다. 서용석류와 비교했을 때, 원장현류가 더 많은 꾸밈음을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3) 서용석류 제5장단, 제11장단.
124) 원장현류 제5장단, 제6장단, 제10장단.

〈표15〉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꾸밈음 비교

장단(서용석-원장현)	서용석	비교	원장현
1-1	4	〈	8
2-2	0	〈	2
3-3	1	〈	3
4-4	1	〈	4
5-6	0	〈	1
6-11	1	〈	2
51-39	1	〈	4
52-40	0	〈	1
53-41	0	=	0
54-42	0	=	0
55-43	0	〈	1
56-44	1	〈	2
57-45	1	=	1
합계	10	〈	29

다. 상이선율

상이선율은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동일· 유사선율을 제외한 선율이다.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상이선율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의 상이선율은 C청 내드름조가 0개(0%), B♭청 평조가 2개(5%) C청 계면조가 37개로 88%이다. 원장현류의 상이선율은 C청 내드름조가 0개(0%) B♭청 평조가 4개(14%), C청 계면조가 22개(76%)이다. 두 유파의 상이선율은 대부분 C청 계면조에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동일선율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적다.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동일선율은 서용석류가 14장단(24.5%), 원장현류가 15장단(33.3%)이다. 두 산조의 동일선율이 다른 이유는 서용석류는 같은 선율을 두 번[125] 원장현류는 세 번[126] 반복하기 때

125) 서용석류 제5장단, 제11장단.
126) 원장현류 제5장단, 제6장단, 제10장단.

문이다.

.

〈표16〉 서용석류 원장현류 상이선율

	서용석류			원장현류		
	장단번호	장단수	비율	장단번호	장단수	비율
C청 내드름조	X	0개	0%	X	0개	0%
B♭청 평조	7, 9, 10, 12, 13	5	12%	7, 8, 12, 13, 14, 15, 16	7	24%
C청 계면조	14 ~ 50	37	88%	17 ~ 38	22	76%
	합계	42	100%	합계	29	100%

두 유파의 동일선율 중 꾸밈음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와 비교했을 때 더 적다. 서용석류 동일선율의 꾸밈음은 10개이다. 원장현류 동일선울의 전체 꾸밈음은 29개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이선율은 서용석류가 42개(74.5%) 원장현류는 29개(66.7%)로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와 비교했을 때 더 많다. 악조별로 상이선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는 상이선율은 C청 내드름조(우조) 0개(0%), B♭청 평조 5개(12%), C청 계면조 37개(88%)이다. 원장현류의 상이선율은 C청 내드름조(우조)가 0개(0%) B♭청 평조가 7개(20%), C청 계면조 22개 (76%)이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공통적으로 C청 계면조에서 가장 많은 상이선율이 나타난다. 두 유파의 차이점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C청 계면조에서의 상이선율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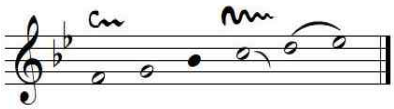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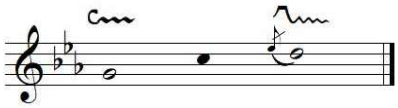
많고, 원장현류가 서용석류에 비해 B♭평조의 상이선율이 비중이 많다.

2. 악조 비교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악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C청 내드름조(우조), B♭청 평조, C청 계면조 3개의 악조로 구성됐다. 그 순서는 두 유파 모두 동일하게 C청 내드름조(우조)-B♭청 평조-C청 계면조 순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C청 내드름조(우조)는 제1장단~제4장단, B♭청 평조는 제5장단~제13장단, C청 계면조는 제14장단~제57장단이다. 원장현류 중모리는 C청 내드름조(우조)가 제1장단~제4장단, B♭청 평조가 제5장단~제16장단, C청 계면조가 제17장단~제45장단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7〉 서용석류 원장현류 악조

악조명	악조	장단 번호	
		서용석류	원장현류
C청 내드름조 (우조)		1~4	1~4
B♭청 평조		5~13	5~16
C청 계면조		14~57	17~45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차이점은 악조의 비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는 C청 내드름조(우조)는 7%, B♭청 평조는 16%, C청 계면조는 77%이다. 원장현류 중모리는 C청 내드름조(우조)가 9%, B♭청 평조가 27%, C청 계면조가 64%이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는 원장현류 중모리 보다 계면조의 비율이 13%가 높다. 원장현류 중모리는 서용석류 중모리 보다 C청 내드름조 (우조)가 2%, B♭청 평조의 비율이 11% 높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내드름조 · 평조 · 계면조의 악조가, 내드름조-평조-계면조 순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서용석류 중모리는 C청 계면조 선율의 비중이 높고, 원장현류 중모리는 B♭청 평조 선율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8〉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중모리 악조 비교

악조명	서용석류(비율)	원장현류(비율)
C청 내드름조(우조)	제1장단～제4장단 (7%)	제1장단～제4장단 (9%)
B♭청 평조	제5장단～제13장단 (16%)	제5장단～제16장단 **(27%)**
C청 계면조	제14장단～제57장단 **(77%)**	제17장단～제45장단 (64%)

3. 장(章)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는 중모리가 15장으로 구성되고, 원장현류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서용석류 중모리의 장이 3개 더 많다.

두 유파의 장은 기· 경· 결· 해를 근간으로 축소형과 확대형의 구조를 활용하여 중모리를 구성하였다. 기본형 장은 기-경-결-해 구성의 4장단형으로 각각 3개의 장씩 나타난다. 두 유파의 축소형식 장은 기-해 형식의 2장단형과 기-결-해 형식의 3장단형과 기-경-해 형식의 3장단형이다. 서용석류 중모리는 기-해 형식의 2장단형은 2개, 기-결-해 형식의 3장단형은 5개가 나타난다. 원장현류 중모리는는 기-해 형식의 2장단형이 4개, 기-결-해 형식의 3장단형이 1개, 기-결-해 형식의 3장단형은 1개 나타난다. 확대형 장은 기-경-경-결-해 형식의 5장단형, 기-경-결-해-해의 5장단형, 기-경-경-결-해-해 형식의 6장단형, 기-경-경-결-결-해-해의 7장단형이 있다. 서용석류 중모리 기-경-경-결-해 형식의 5장단형이 1개, 기-경-결-해-해 형식의 5장단형이 1개, 기-경-경-결-결-해-해 형식의 7장단형이 2개가 있다. 원장현류 중모리는 기-경-경-결-해-해 형식의 6장단형이 2개, 기-경-경-결-결-해-해 형식의 7장단형이 1개이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 장의 공통점은 기본형식 장이다. 두 유파의 차이점은 축소형식 장과 확대형식 장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축소형식 장은 기-경-해 형식의 3장단형 장이 나타나지 않지만, 원장현류 중모리의 축소형식 장에는 기-경-해 형식의 3장단형 장이 1개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확대형식 장에는 기-경-경-결-해와 기 - 경-결-해-해 유형의 5장단형 장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확대형식 장에는 기-경-경-결-해-해 유형의 6장단형 장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9〉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장(章) 비교

장의길이			장의 개수	
형식	장단형	유형	서용석류	원장현류
축소형식	2	기 해	3	4
	3	기 결 해	5	1
		기 경 해	0	1
기본형식	4	기 경 결 해	3	3
확대형식	5	기 경 경 결 해	1	0
		기 경 결 해 해	1	0
	6	기 경 경 결 해 해	0	2
	7	기 경 경 결 결 해 해	2	1
합계			15개	12개

4. 변조와 변청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공통적으로 제 4장에서 돌장이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차이점은 돌장의 길이와 혼합조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돌장인 4장은 2개의 장단으로 구성됐고, B♭청 내드름조와 C청 계면조의 혼합조로 구성됐다.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 4장은 4개 장단으로 구성됐고,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혼합조로 구성됐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모두 일시적으로 악조가 변화하는 장단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제 18장단에서 C청 계면조에서 F청 계면조 일시적 변청이 나타난다. 원장현류 중모리는 제26장단에서 C청 계면조에서 B♭청 평조로 일시적 변조가 일어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에는 C청 내드름조(우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나고 일시적 변청에는 C청 계면조와F본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난다. 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돌장에는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나고 일시적 변조에도 B

♭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변조와 변청은 돌장과 일시적 변청· 변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은 C청 내드름조+C청 계면조의 혼합조가 나타나며, 원장현류 중모리 돌장은 B♭청 평조+C청 계면조가 나타난다. 일시적 변청· 변조는 그 과정에서 서용석류 중모리에서는 변청을 통해 계면조 선율이 나타난다. 원장현류 중모리에서는 변청이 나타나지 않고 변조를 통해 B♭청 평조의 선율이 나타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0〉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변청 및 변조의 악조

	서용석류	원장현류
돌장	C청 내드름조+C청 계면조	B♭청 평조+C청 계면조
일시적 변청, 변조	C청 계면조+F본청 계면조	B♭청 평조+C청 계면조

5. 호흡선

본 장에서는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고자 한다. 호흡선은 두 유파의 음악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127] 호흡선 분석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호흡선을 양적 연구를 통해 비교한

127) 필자는 서용석류를 먼저 학습한 후, 원장현류를 학습하였다. 원장현류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악장인 원완철에게 학습하였는데, 새로운 유파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은 호흡선이다. 서용석류 스타일의 짧은 호흡선에서 원장현류 스타일의 긴 호흡선으로 연주습관을 바꾸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다. 다음으로 두 유파의 동일선율 호흡선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호흡선의 양적 비교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전체 장단의 호흡선을 양적 연구를 통해 두 유파 가지는 호흡선의 수량적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앞선 장에서 분석한 바를 통해 두 유파의 호흡선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장단별 호흡선 유형은 4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인 4호흡선형, 5호흡선형, 6호흡선형, 7호흡선형, 8호흡선형, 9호흡선형, 10호흡선형, 11호흡선형, 12호흡선형, 12호흡선형, 14호흡선형이 나타난다. 원장현류 중모리의 장단별 유형은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2호흡선형, 3호흡선형, 4호흡선형, 5호흡선형, 6호흡선형, 7호흡선형, 8호흡선형, 9호흡선형, 10호흡선형이 나타난다.

두 유파의 호흡선 유형을 비교하면, 서용석류 중모리가 더 많은 수의 호흡선 유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유파의 가장 적은 수의 호흡선 장단을 비교하면, 서용석류 중모리의 가장 적은 호흡선 장단은 4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이고, 원장현류 중모리의 가장 적은 호흡선 유형은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이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 수가 2개 더 많다. 반대로, 두 유파의 가장 많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 유형을 비교하면, 서용석류는 14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이고, 원장현류는 10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으로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 수가 4개 더 많다.

요컨대,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은 총 491개이고, 원장현류의 총 257개로 서용석류가 234개가 더 많다. 장단 별 평균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가 8.61개이고 원장현류가 5.71개로 서용석류가 장단

별 평균 호흡선 수가 2.9개 더 많다. 두 유파의 장단 중 가장 적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의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 중모리가 4개, 원장현류 중모리가 2개이다. 반대로 두 유파의 장단 중 가장 많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의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 중모리가 14개, 원장현류 중모리가 10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1〉 서용석류 원장현류 호흡선 비교

	서용석류	원장현류
장단 수	57개	45개
호흡선 수	491개	257개
장단 별 평균	8.61개	5.71개
가장 적은 호흡선 수	4개	2개
가장 많은 호흡선 수	14개	10개

나. 동일선율 호흡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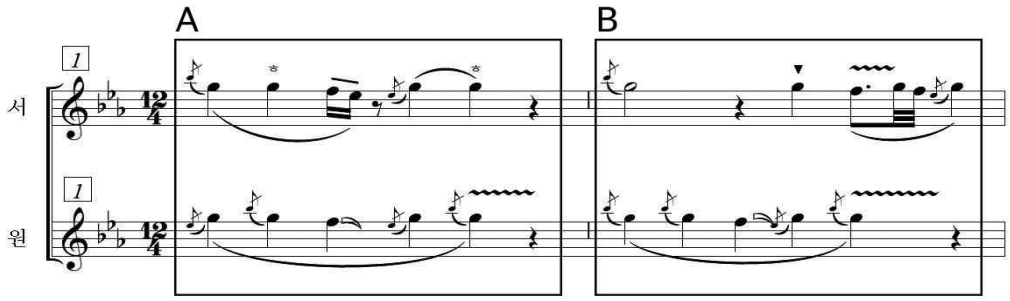
동일선율 분석이다. 동일선율 호흡선 분석 통해 동일선율이라도 유파마다 상이한 호흡선으로 연주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동일선율 중 전승선율은 한주환류와의 비교를 통해[128], 3세대 산조 창작자들의 주도적 전승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129] 악보

128) 한주환류의 음원은 김호선 소장 녹음본(1959)과 임재원이 채보한 악보를 사용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29) "이는 학습과정에서 배운 소리를 오랫동안 수련하여 각자의 개성에 따라 소리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만든 소리를 추가하는 연주 전통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떤 이는 '더늠'을 탄생시키고, 또 어떤 이는 소리 전곡을 자기 스타일로 바꿔 '제'를 완성하고, 또 어떤 이는 지역적 특징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연주양식은 비단 판소리뿐만 아니라, 기악 독주곡인 산조에서 더욱 분화되어, 악기별, 음악가별 유파를 형성하였다." 송혜진, 앞의 논문(2015), 29쪽.

를 통해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동일선율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69〉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1장단-원장현류 제1장단)



위 〈악보69〉는 서용석류의 제1장단과 원장현류의 제1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금산조 전승선율[130] 중 중모리 도입부 선율로 한주환류 제1장단과 동일한 선율이다.[131] 서용석류 제1장단은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고, 원장현류는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A부분(제1박부터 제5박까지)의 부분이다. 서용석류는 이 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첫 번째 호흡선은 제1박부터 제3박까지, 두 번째 호흡선은 제4박부터 제5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하나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제1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다음으로 B부분(제7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이 부분을 3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가 제7박부터 제8박까지, 두 번째가 제10박, 세 번째가 제11박부터 제 12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이 부분을 하나의 호흡

130)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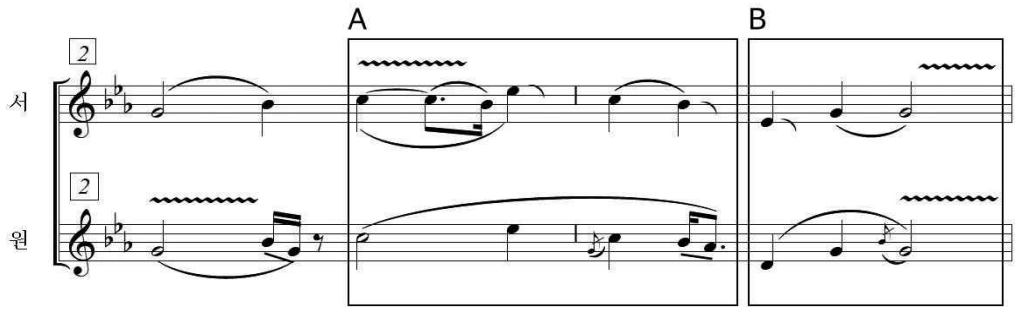
131)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의 산조의 중모리 도입부의 선율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중 서용석류와 원장현류는 1~2세대의 대금산조와 중모리 제1장단~제 2장단이 동일하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선으로 구성하였다. 제7박부터 제11박까지이다.

서용석류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모체인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주환류는 제1장단을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132]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5개로 호흡선의 개수가 늘어났다. 반면,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2개로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호흡선의 개수가 줄어들었고다.(원장현류(2개)〈한주환류(3개)〈서용석류(5개))

정리하면, 서용석류는 제1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류는 제1장단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3개 더 많다. 모체인 한주환류와 비교하면,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늘어났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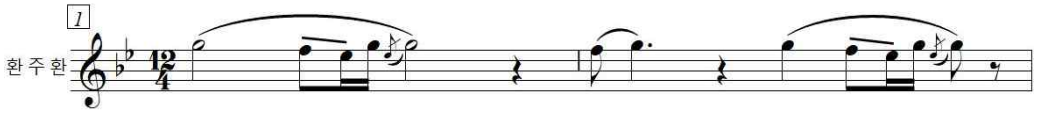
〈악보71〉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2장단-원장현류 제2장단)



위 〈악보71〉은 서용석류의 제2장단과 원장현류의 제2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더 하여 두 악보는 전승선율[133] 중 중모리 도입부 선율로 한주환류 제 2장단과 동일하

132) 한주환류 제1장단으로 전승선율 중 중모리 도입선율이다.

〈악보70〉 한주환류 전승선율(제1장단)



다.[134] 서용석류는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고, 원장현류는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A부분(제4박부터 제8박까지)의 부분이다. 서용석류는 이 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첫번째가 제4박부터 제6박까지, 두 번째가 제6박부터 제7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하나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제4박부터 제 8박까지이다. 다음으로 B부분(제9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이 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가 제9박, 두 번째가 제10박부터 제11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이 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제8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2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135]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5개로 호흡선의 개수가 동일하고 원장현류는 3개로 호흡선의 개수가 줄었다.(원장현(3개)〈한주환(5개)＝서용석(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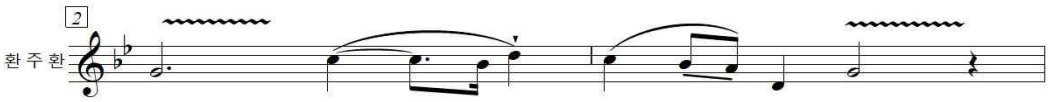
정리하면, 서용석류는 제 2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류는 제 2장단을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가

133)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172쪽.

134)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의 산조의 중모리 도입부의 선율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중 서용석류와 원장현류는 제1～2세대의 대금산조와 중모리 제1장단～제2장단이 동일하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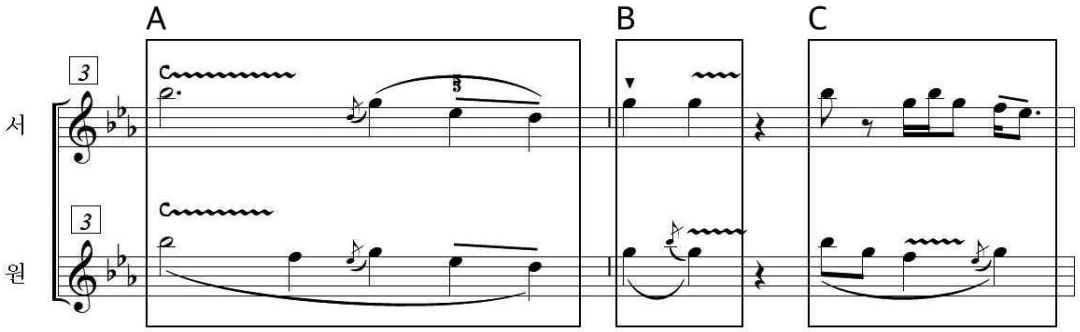
135) 한주환류 제2장단으로 전승선율 중 중모리 도입부 선율이다.

〈악보72〉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장단)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2개 더 많다.

〈악보73〉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3장단-원장현류 제3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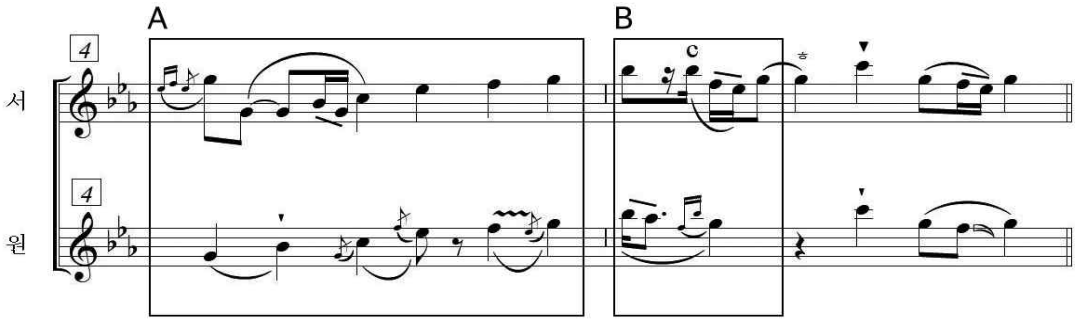
위〈악보73〉은 서용석류 제3장단과 원장현류 제3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서용석류는 6개 원장현류는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3가지이다. 첫 번째는 A부분(제1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A 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1박부터 제3박까지, 제4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원장현류는 A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1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두 번째는 B부분(제7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이 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7박, 제8박이다. 원장현류는 이 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7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세 번째는C부분(제10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이 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제10박, 제11박부터 다음 장단의 제1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이 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제 10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더 많은 호흡선으로 짧게 끊어서 구성한다면, 원장현류는 적은 호흡선으로 길게 구성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의 제 3장단은 총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의 호흡선은 총 3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3개 더 많다. 이 악보의 차

이점은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난다. A부분(제1박부터 제6박까지), B부분(제7박부터 제8박까지), C부분(제10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짧은 호흡선으로 많이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서용석류는 선율을 짧게 끊어 연주해 강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고, 원장현류는 선율을 길게 연결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악보74〉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4장단-원장현류 제4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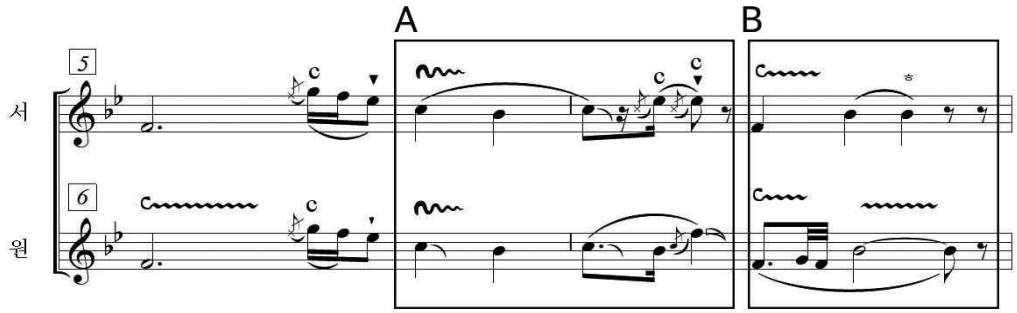
위 〈악보74〉는 서용석류 제4장단과 원장현류 제4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서용석류는 10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는 6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2가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A부분(제1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A부분을 5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제1박의 제1소박, 제1박의 제2소박부터 제3박까지, 제4박, 제5박, 제6박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A부분을 3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제1박부터 제2박까지, 제3박부터 제4박까지, 제5박부터 제6박까지이다. 두 번째로 B부분(제7박~제8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B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7박의 제1소박, 제7박의 제2소박부터 제8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B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

다. 제7부터 제8박까지이다. 같은 부분을 서용석류는 더 많은 호흡선으로 짧게 끊어서 구성한다면, 원장현류는 적은 호흡선으로 길게 구성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의 제4장단은 10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의 제4장단은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4개 더 많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부분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제1박부터 제6박까지이고 두 번째는 제7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짧은 호흡선으로 많이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서용석류는 선율을 짧게 끊어 연주해 강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고, 원장현류는 선율을 길게 연결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악보75〉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장단-원장현류 제6장단)



위 〈악보75〉는 서용석류의 제5장단과 원장현류의 제6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더하여, 두 악보는 전승선율[136] 중 우조 도입부 선율로 한주환류 제7장단과 동일하다.[137]

136)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137)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의 산조의 우조 도입부의 선율이 동일한 것을 확인

서용석류 제5장단은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고 원장현류 제6장단 또한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A부분(제 5박부~7박까지)의 부분이다. 서용석류는 A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첫번째가 제4박부터 제7박의 제1소박까지, 두 번째가 제7박의 제2소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첫 번째가 제5박부터, 두 번째가 제6박, 세 번째가 제7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다음으로 B부분(제9박~제12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B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가 제9박, 두 번째가 제10박부터 제11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B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제9박부터 제12박의 제1소박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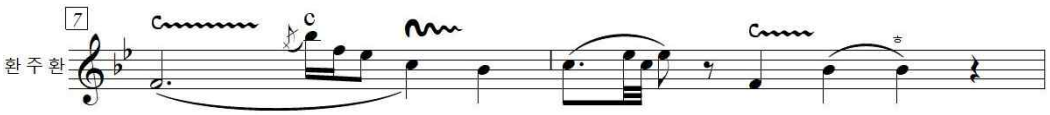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7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연주하였다.[138]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6개) 원장현류(6개) 모두 호흡선의 개수가 늘었다.(원장현=서용석〉한주환)

서용석류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A부분(제5박~제7박까지)와 B부분(제9박~제12박까지)이다. A부분(제5박부터 제7박까지)은 서용석류의 호흡선이 원장현류에 비해 길지만, B부분(제9박~제12박)의 경우 서용석류의 호흡선이 원장현류에 비해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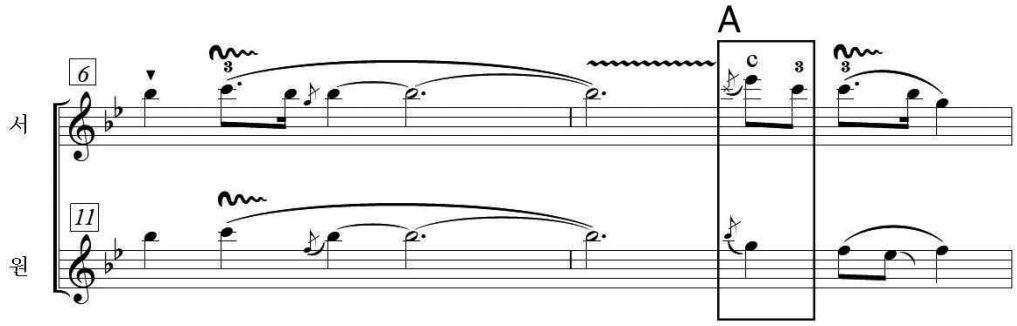
하였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187쪽.

138) 한주환류 중모리 제7장단은 전승선율 중 우조 도입부 선율에 해당한다.

〈악보76〉 한주환류 전승선율(제7장단)



〈악보77〉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6장단-원장현류 제11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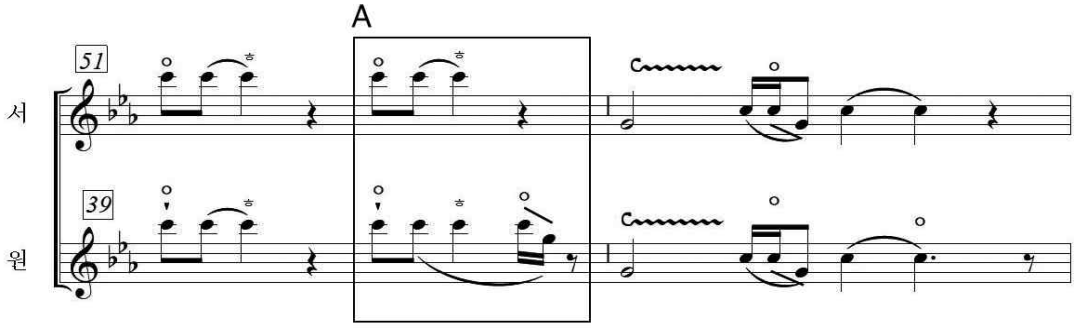


위〈악보77〉은 서용석류의 제6장단과 원장현류의 제11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서용석류는 제 6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류는 제11장단을 4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10박)이다. 서용석류는 B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첫번째가 제10박의 제1소박이고, 두 번째는 제10박의 제2소박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A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나눈다. 제10박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는 제6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류는 제11장단을 4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10박)에 있다.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비교적 짧은 호흡선으로 여러번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비교적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악보78〉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1장단-원장현류 제39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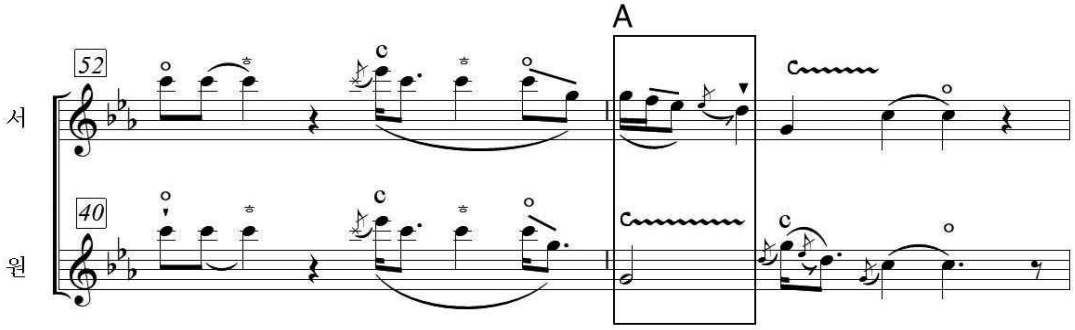


위 〈악보78〉은 서용석류 제51장단과 원장현류 제39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서용석류의 제51장단은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현류의 제39장단도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악보에서의 차이점은 A부분(제4박～제6박까지)이다. 서용석류의 이 부분의 호흡선은 제4박부터 제5박까지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제4박에 제6박까지로 더 길다. 서용석류의 경우 선율을 비교적 짧게 연주하고 원장현류는 길게 연결하여 연주한다. 이러한 차이로 서용석류는 선율을 짧게 끊어 연주해 강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고, 원장현류는 선율을 길게 연결하여 부드러운 느낌이다.

정리하면, 서용석류의 제51장단은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현류의 제39장단도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악보는 A부분(제4박～제6박까지)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용석류는 비교적 짧은 호흡선으로 연주하고, 원장현류는 비교적 긴 호흡선으로 연주한다.

〈악보79〉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2장단-원장현류 제40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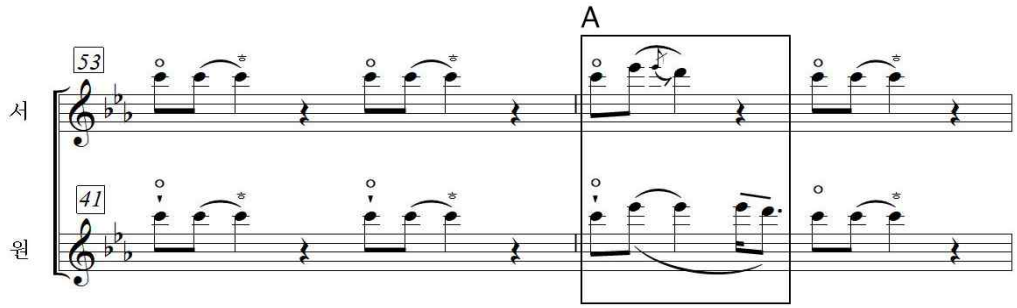


위 〈악보79〉는 서용석류 제52장단과 원장현류 제40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2장단은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 40장단은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7박~ 제8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의 A부분은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박, 제8박이다. 원장현류의 A부분은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박부터 제8박까지이다.

정리하면,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2장단은 총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0장단은 총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하나 더 많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7박~제8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짧은 호흡선으로 많이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서용석류는 선율을 짧게 끊어 연주해 강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고, 원장현류는 선율을 길게 연결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악보80〉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3장단-원장현류 제41장단)



위 〈악보80〉은 서용석류 제53장단과 원장현류 제41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더하여, 두 악보는 전승선율[139] 중 중모리 절정선율로 한주환류 제27장단과 동일하다.[140] 서용석류 제53장단은 8개 원장현류 제41장단은 8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한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6박～제8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의 이 부분은 제6박의 제2소박부터 제7박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원장현류의 이 부분은 6번째 호흡선이 제6박의 제2소박부터 제8박까지 구성되어 있다.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27장단을 8개의 호흡선으로 연주하였다.[141]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8

139)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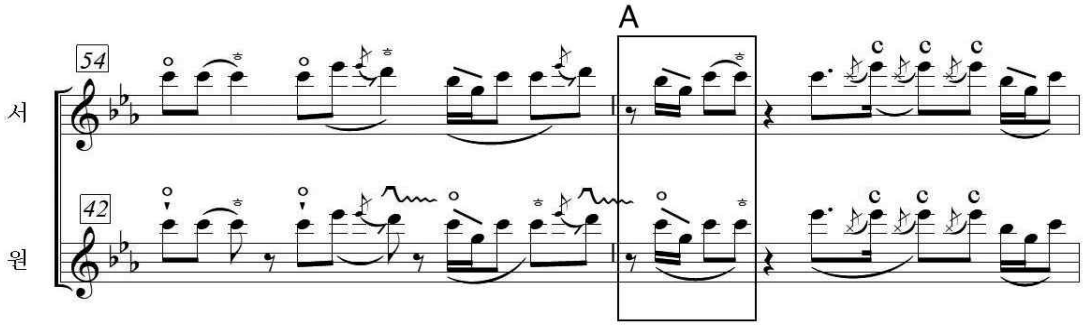
140)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 산조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선율을 중모리 절정선율로 간주하였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고 남성적인 분위기이다. 서용석류는 제53장단～제57장단, 원장현류는 제41장단～제45장단이 중모리 절정선율에 해당한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210쪽.

141) 한주환류 대금산조 중모리 제27장단은 전승선율 중 절정선율이다.

개 원장현류도 8개로 동일한 호흡선으로 나누어 연주하였다. (한주환＝서용석＝원장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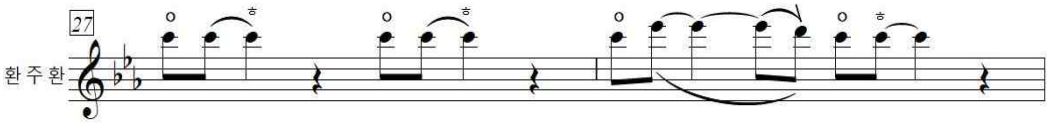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3장단은 총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 제41장단은 역시 총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6박부터～제8박)에서 나타난다.

〈악보82〉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4장단-원장현류 제42장단)



위 〈악보82〉는 서용석류 제54장단과 원장현류 제42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더하여, 두 악보는 전승선율[142] 중 중모리 절정선율로 한주환류 제28장단과 동일하다.[143] 서용석류의 제54장단은 1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고,

〈악보81〉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7장단)



142)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143)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 산조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선율을 중모리 절정선율로 간주하였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고 남성적인 분위기이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한주환류는 제 26장단～제 30장단, 서용석류는 제53장단～제57장단, 원장현류는 제41장단～제45장단이 해당한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210쪽.

원장현류 제 42장단은 10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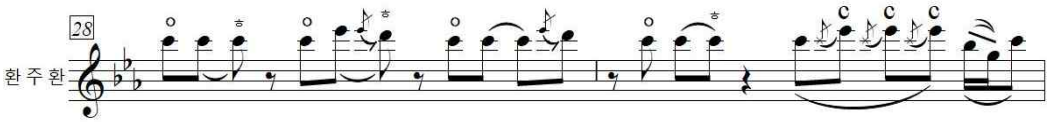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A부분(제7박～제8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A부분을 두 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제7박의 제2소박～제8박 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A부분(제7박～제8박까지)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했다. 두 번째는 B부분(제10박～제11박까지)의 부분이다. 서용석류는 B부분을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10박의 제1소박, 제10박의 제2소박부터 제11박의 제1소박까지, 제11박의 제2소박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B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하였다. 제10박부터 제11박의 제1소박까지, 제11박의 제2소박이다.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28장단을 11개의 호흡선으로 연주하였다.[144] 호흡선이 11개인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13개로 늘어났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10개로 줄어들었다.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정리하면, 서용석류의 제54장단은 13개의 호흡선으로 원장현류 제 42장단은 10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3개 더 많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7박부터 제8박까지)과 B부분(제10박～제11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짧은 호흡선으로 많이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이러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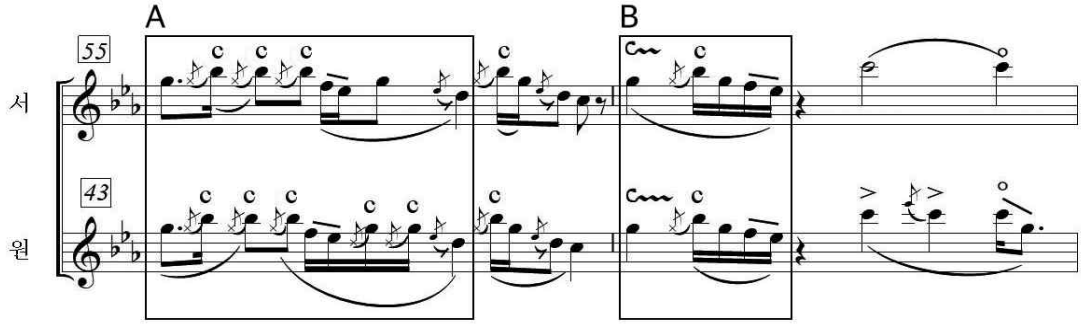
144) 한주환류 제28장단으로 전승선율 중 중모리 절정선율이다.

〈악보83〉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8장단)



이로 서용석류는 선율을 짧게 끊어 연주해 강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고, 원장현류는 선율을 길게 연결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악보84〉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5장단-원장현류 제43장단)



위 〈악보84〉는 서용석류 제 55장단과 원장현류 제43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두 악보는 전승선율[145] 중 중모리 절정선율로 한주환류 제29장단과 동일하다.[146] 서용석류 제 55장단의 호흡선은 6개이다. 원장현류 제 43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의 제53장단과 원장현류의 제43장단의 차이점은 두 부분이다. 먼저, A부분(제1박～제4박까지)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의 경우 A 부분을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제1박의 제1소박, 제1박의 제1소박부터 제2박까지, 제3박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A

145)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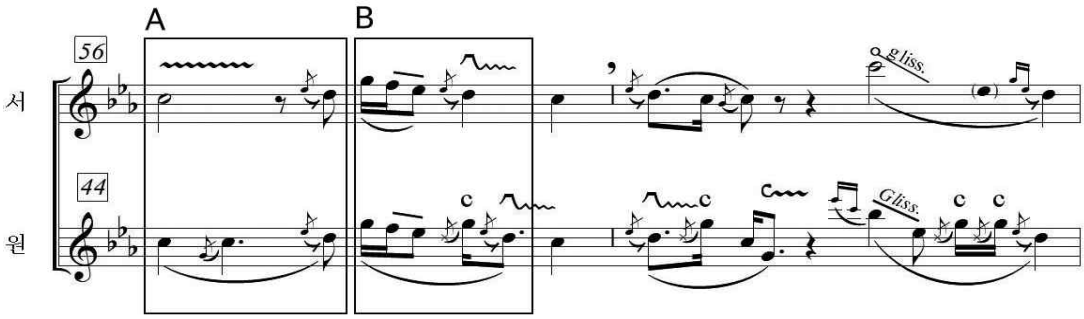
146)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 산조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선율을 중모리 절정선율로 간주하였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고 남성적인 분위기이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한주환류는 제26장단～제30장단, 서용석류는 제53장단～제57장단, 원장현류는 제41장단～제45장단이 해당한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210쪽.

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연주했다. 두 번째 차이점은 B부분(제7박에서부터 제8박까지)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B부분(제7박부터 제8박)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했다. 반면 원장현류는 B부분을 두 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했다. 제7박, 제8박이다.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28장단을 4개의 호흡선으로 연주하였다.[147] 호흡선이 4개인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6개로 늘어났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5개로 줄어들었다. (원장현〈한주환〈서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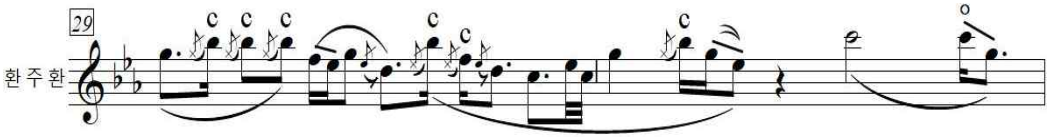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5장단의 호흡선은 6개이다. 원장현류 제43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하나가 더 많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로 A부분(제1박~제4박), B부분(제7박~제8박까지)이다. A부분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더 짧고 많은 호흡선으로 구성되었다면, B부분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더 길고 적은 호흡선으로 구성되었다.

〈악보86〉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6장단-원장현류 제44장단)



147) 한주환류 제29장단으로 전승선율 중 중모리 절정선율이다.

〈악보85〉 한주환류 전승선율(제29장단)



위 〈악보86〉은 서용석류 제56장단과 원장현류 제44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 밝힌 바 있다. 두 악보는 전승선율[148] 중 중모리 절정선율로 한주환류 제30장단과 동일하다.[149] 서용석류 제 56장단의 호흡선은 7개이다. 원장현류 제44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A부분(제1박～제3박까지)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A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1박부터 제2박까지, 제3박의 제2소박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A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1박부터 제3박까지이다. 두 번째는 B부분(제4박～제5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B부분을 두 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4박, 제5박이다. 반면, 원장현류는 B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4박부터 제5박까지이다.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30장단을 6개의 호흡선으로 연주하였다.[150] 호흡선이 6개인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7개로 늘어났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5개로 줄어들었다.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정리하면, 서용석류 제56장단의 호흡선은 7개이다. 원장현류 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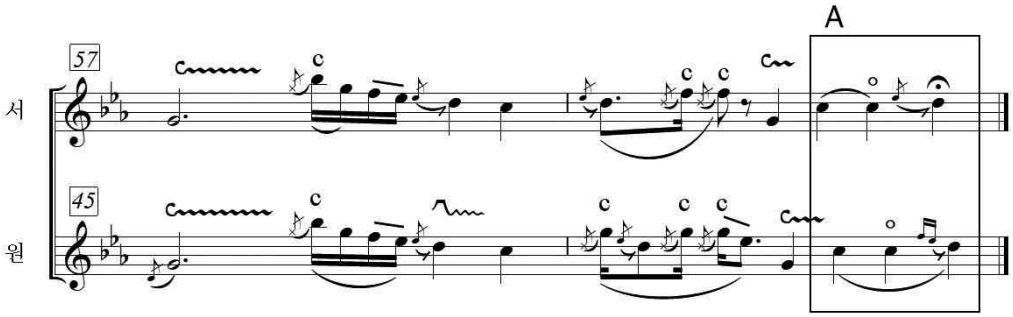
148)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149)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 산조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선율을 중모리 절정선율로 간주하였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고 남성적인 분위기이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한주환류는 제26장단～제30장단, 서용석류는 제53장단～제57장단, 원장현류는 제41장단～제45장단이 해당한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210쪽.

150) 한주환류 제30장단으로 전승선율 중 절정선율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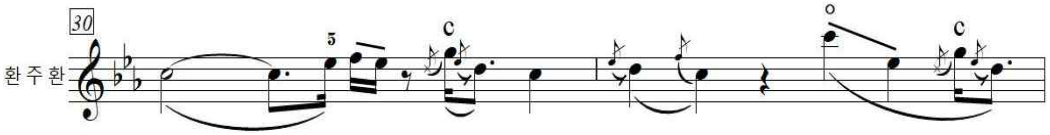
44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2개가 더 많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1박~제3박), B부분(제4박~제5박까지)이다.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짧은 호흡선으로 많이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악보88〉 동일선율 호흡선(서용석류 제57장단-원장현류 제45장단)



위 〈악보88〉은 서용석류의 제57장단과 원장현류의 제45장단이다. 두 악보는 앞서 동일선율로서 밝힌 바 있다. 두 악보는 전승선율[151] 중 중모리 절정선율로 한주환류 제31장단과 동일하다.[152] 서용석류의 호흡선은 7개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는 6개로 구

〈악보87〉 한주환류 전승선율(제30장단)



151) 전승선율은 앞 세대에서 형성된 선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연주되는 뼈대 선율을 의미한다. 현재 대금산조의 유파 형성이 제3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전승선율은 제1~2세대에서 형성되어 제3세대까지 연주되는 선율을 의미한다. 임재원, 앞의 논문(2015), 172쪽.

152) 임재원은 박종기 계보 5종 산조의 중모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선율을 중모리 절정선율로 간주하였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계면조임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고 남성적인 분위기이다. 중모리 절정선율은 한주환류는 제 26장단 ~제 30장단, 서용석류는 제53장단~제57장단, 원장현류는 제 41장단~제 45장단이 해당한다. 임재원, 위의 논문(2015), 210쪽.

성되었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10박～제12박)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는 A부분을 2개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10박부터 제 11박까지, 제12박이다. 원장현류는 B부분을 하나의 호흡선으로 구성한다. 제10박부터 제12박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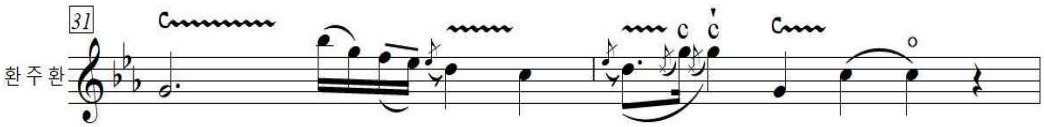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세대 산조의 모체가 된 한주환류는 제 31장단을 8개의 호흡선으로 연주하였다.[153] 호흡선이 6개인 한주환류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9개로 늘어났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7개로 줄어들었다.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서용석류의 제57장단의 호흡선은 6개이다. 원장현류 제 45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1개 더 많다. 두 악보의 차이점은 A부분(제10박～제12박까지)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서용석류는 한 장단을 짧은 호흡선으로 많이 나누어 한 장단을 구성한다. 반면, 원장현류는 긴 호흡선으로 적게 나누어 구성한다.

정리하면, 서용석류와 원장현류의 동일선율 호흡선을 비교하면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더 많은 호흡선을 가진다. 한주환류와 비교했을 때도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더 많고 원장현류는 더 많다.[154] 서용석류는 제1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

153)한주환류 제31장단으로, 중모리 전승선율 중 절정선율에 해당한다.

〈악보89〉 한주환류 전승선율(제31장단)



154) 전체 8개의 장단의의 전승 장단 중 6개의 장단에서 원장현류-한주환-서용석 순으로 호흡선의 개수가 늘어난다. 전승 과정에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표

류는 제1장단을 2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3개 더 많다. 서용석류는 제2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류는 제2장단을 3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2개 더 많다. 서용석류의 제 3장단은 총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의 호흡선은 총 3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3개 더 많다. 서용석류의 제4장단은 10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현류의 제4장단은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4개 더 많다. 서용석류는 제6장단을 5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고 원장현류는 제11장단을 4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 제5장단은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고 원장현류 제6장단 역시 6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었다. 서용석류의 제51장단은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현류의 제39장단도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제52장단은 총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제40장단은 총 7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하나 더 많다. 서용석류 제53장단은 총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유파별 호흡선 비교

전승선율	호흡선			비고
	한주환	서용석	원장현	
도입부 선율1	3	6	2	원장현〈한주환〈서용석
도입부 선율2	5	5	3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우조 도입 선율	7	6	7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절정선율 1	8	8	8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절정선율 2	11	13	10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절정선율 3	4	9	6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절정선율 4	6	7	5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절정선율 5	8	9	7	원장현〈한주환〈서용석

장현류 제41장단은 역시 총 8개의 호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용석류의 제54장단은 13개의 호흡선으로 원장현류 제42장단은 10개의 호흡선으로 나누었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3개 더 많다. 서용석류 제55장단의 호흡선은 6개이다. 원장현류 제43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하나가 더 많다. 서용석류 제56장단의 호흡선은 7개이다. 원장현류 제44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2개가 더 많다. 서용석류의 제57장단의 호흡선은 6개이다. 원장현류 제45장단의 호흡선은 5개이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호흡선이 1개 더 많다.

요컨대, 서용석류의 동일선율 호흡선은 총 92개이고 원장현류는 72개이다. 서용석류의 동일선율 호흡선이 20개가 더 많다.

〈표23〉 서용석류 원장현류 중모리 동일선율 호흡선 비교

장단 번호	서용석(호흡선 수)		장단번호	원장현(호흡선 수)
제1장단	5개	〉	제1장단	2개
제2장단	5개	〉	제2장단	3개
제3장단	6개	〉	제3장단	3개
제4장단	10개	〉	제4장단	6개
제5장단	6개	=	제6장단	6개
제6장단	5개	〉	제11장단	4개
제51장단	7개	=	제39장단	7개
제52장단	8개	=	제40장단	8개
제53장단	8개	=	제41장단	8개
제54장단	12개	〉	제42장단	10개
제55장단	6개	〉	제43장단	5개
제56장단	7개	〉	제44장단	5개
제57장단	6개	〉	제45장단	5개
합계	92개	〉	합계	72개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중모리를 비교 및 분석하여 두 산조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선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두 유파는 공통적으로 C청 계면조에서 가장 많은 상이선율이 나타난다. 두 유파의 차이점은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에 비해 C청 계면조에서의 상이선율 비중이 높으며, 원장현류가 서용석류에 비해 B♭청 평조의 상이선율이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악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는 내드름조 · 평조 · 계면조의 악조가 동일하게 사용되며, 조의 출현 순서는 내드름조-평조-계면조 순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서용석류 중모리는 C청 계면조 선율의 비중이 높고, 원장현류 중모리는 B♭청 평조 선율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장(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 장(章)과 원장현류 중모리 장(章)의 공통점은 기-경-결-해 유형의 4장단형 기본형식 장(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유파의 차이점은 확대형식 장(章)에서 나타난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확대형식 장(章)에는 기-경-경-결-해와 기 - 경-결-해-해 유형의 5장단형 장(章)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확대형식 장(章)에는 기-경-경-결-해-해 유형의 6장단형 장(章)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넷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변조와 변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돌장에는 C청 내드름조(우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나고 일시적 변청에는 C청 계면조와 F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난다. 반면, 원장현류 중모리의 돌장에는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나고 일시적 변조에도 B♭청 평조와 C청 계면조의 악조가 나타난다.

다섯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 중모리의 호흡선은 총 491개이고, 원장현류의 총 257개로 서용석류가 234개가 더 많다. 장단 별 평균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가 8.61개이고 원장현류가 5.71개로 서용석류의 장단 별 평균 호흡선 수가 2.9개 더 많다. 두 유파의 장단 중, 가장 적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의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 중모리가 4개, 원장현류 중모리가 2개이다. 반대로 두 유파의 장단 중, 가장 많은 수의 호흡선으로 구성된 장단의 호흡선 수는 서용석류 중모리가 14개, 원장현류 중모리가 10개이다.

여섯째, 두 유파의 동일선율 중 꾸밈음은 서용석류에 비해 원장현류가 더 많다. 서용석류 동일선율의 꾸밈음은 10개이다. 원장현류 동일선율의 전체 꾸밈음은 29개이다. 서용석류와 비교했을 때, 원장현류가 더 많은 꾸밈음을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의 동일선율 호흡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용석류의 동일선율 호흡선은 총 92개이고 원장현류는 72개이다. 서용석류 호흡선이 20개가 더 많다. 한주환류 대금산조를 기준으로 서용석류는 호흡선이 늘어나고, 원장현류는 호흡선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용석류가 원장현류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호흡선으로 연주하고, 원장현류는 더 적은 호흡선으로 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용석류 중모리와 원장현류 중모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흡선과 꾸밈음이라 할 수 있다. 서용석류 중모리는 많은 호흡선과 적은 꾸밈음으로 연주된 특징이 있다면, 원장현류 중모리는 적은 호흡선과 많은 꾸밈음으로 연주된 것이 큰 특징이다. 대금산조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구전심수로 전승되며 확장과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대금산조의 유파를 만든 명인들의 삶과 음악적 활동이 그들의 음악에 녹아들었다.

참 고 문 헌

1.사전

변미혜 외.『국악용어사전』, 서울: 민속원, 2012.

사전편찬위원회.『음악용어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2.단행본

김우진.『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

김해숙.『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박헌봉.『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시나위(도살풀이, 살풀이)』,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0.

백대웅·김해숙·최태현,『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1995.

원완철.『원장현류 대금산조』, 서울: 도서출판 무송, 2017.

이진원· 김가람.『대금산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3.학위논문

고보석.“김영철 철현금산조의 형성 및 전승에 대한 음악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학위논문, 2016.

고은현.“서용석류 해금산조 선율연구”, 전북: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권선정.“대금산조의 전승과 생성-박종기류와 비교한 한주환· 한범수의 생성된 가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학위논문, 2005.

권용현.“한주환류와 이생강류 대금산조 선율비교”, 서울: 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건형. “한주환류, 서용석류 대금산조 선율비교연구-자진모리를 중심으로-” 전북: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상연. “서용석류 산조 선율분석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순옥. “대금 산조의 조와 선율비교-한범수류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박세연.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지윤. “가야금산조 돌장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박희진.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선율비교연구〈자진모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변제남. “대금산조 유파별 선율비교-한주환류 진양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서정미. “원장현류 대금산조 연구”,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한주환 원장현의 선율비교 연구-자진모리를 중심으로-”, 대전: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경수. “남도살풀이 춤의 대금반주선율 연구” 경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오연경. “가야금산조의 기· 경· 결· 해 연구-김죽파 최옥삼, 강태홍, 김병호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용구. “大笒散調의 傳承過程에 나타난 變異에 관한 硏究- 朴鐘基·韓周煥·李生剛 大笒散調의 진양조를 中心으로 -” 경기: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용구. “추산 전용선의 단소 산조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재익. “영산회상 중 상영산의 대금 호흡점 및 선율 비교 연구 : 〈죽헌〉 김기수와 〈녹성〉 김성진에 기하여” 경기: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진용. “서용석류 대금산조에 나타나는 시김새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 보드만의 생성적 교수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재원. “大笒散調의 生成 및 傳承과 擴張”,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대금산조의 음조직과 청에 관한 연구: 한주환류의 진양조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장진엽. “서용석류 대금산조와 원장현류 대금산조의 선율비교 연구〈중중모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정은아. “영산회상 대금선율의 특징”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지영. “가야금산조 진양조 구성 원리-김창조계 가야금산조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황규일. “서용석류 대금산조 선율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학술지 논문

권도희. “산조 발생론 검토-시나위 발생론· 봉장취 발생론· 판소리 기악회론 재론- ”『한국음악연구』 제 63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18.
김세종. “전남 화순지역의 명인명창과 음악적 전승실태”『한국음악사학회 논문발표집』7권,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7.
김우진. “거문고 산조의 우조 평조 계면조”,『한국음악연구』제 62집, 서

울: 한국국악학회, 2017.
_____.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5집,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5.
류정연. “정악 해금 운궁법에 관한 고찰”, 『국악교육』 제 28집, 경기: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09.
문재숙. “김창조 가야금 산조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5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1997.
박환영. “대금산조의 변천 과정 연구”, 『한국학연구』 34권,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배병민. “김동진류 대금산조 연구” 『한국국악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14.
송혜진. “현대국악, 그 원형성과 변화생성”, 『한국음악문화연구』 제6집, 부산: 한국음악문화학회, 2015.
신은주. “판소리 우조와 평조에 대한 두 異論 －백대웅과 이보형의 판소리 악조론”, 『한국음악연구』 제 63집, 2018.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 24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1996.
_____.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 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음악연구』 제 30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_____. “판소리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창간호, 전북: 국립민속국악원, 2001.
_____.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의 개념수용에 관한 고찰”, 『국악원논문집』 제 10집, 1998.
이현창. “대금산조 연구사의 분석적 검토와 문제점 고찰”, 『음악과 민족』 27권, 부산: 민족음악학회, 2004.
최태현. “서용석 해금산조의 선율 구성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경기: 중앙대학교, 1997.
황준연.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 『민족음악학』 제 18집, 서울: 서울대

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96.

5.음반

〈뿌리깊은 나무 조선소리선집 7집 서용석 대금산조〉, 서울: 신나라레코드, 1989.
〈원장현(元長賢)대금산조〉. 서울: 신나라레코드, 1997.

Abstract

A Comparison of Seo Yong-Seok school and Won JangHyoen school Daeguem sanjo -fouced on Joogmori-

Lee Hun Joon
Major in Daegeum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sanjo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daegeum-sanjo and Won Jang-Hyeon school daegeum-sanj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following is a comparison of the melody of the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daegeum-sanjo and the ju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daegeum-sanjo. Both streams commonly have the biggest differential melody in the C-key gyemyeon-jo. The difference bet

ween the two streams is that Seo Yong-Seok school has a higher proportion of differential melody in the C-key gyemyeon-jo, when compared to Won Jang-Hyeon school, and Won Jang-Hyeon school has a higher proportion of differential melody in the B ♭-key pyeong-jo than Seo Yong-Seok school .

Secondly, the following is a comparison of the musical tones of the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daegeum-sanjo and the ju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daegeum-sanjo. The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and the ju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uses identical musical tones of Nadereum-jo, pyeong-jo, and gyemyeon-jo, and the order of appearance is identical in the order of Nadereum-jo, pyeong-jo, and followed by gyemyeon-jo. Through this, it is identified that the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has a high proportion of C-key gyemyeon-jo melody, and the ju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has a high proportion of B ♭-key pyeong-jo melody.

Third, when the jang(章) of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daegeum-sanjo and the ju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daegeum-sanjo are compared, it is as follows.

The common factor between the jang(章) of Seo Yong-Seok school jungmori and Won Jang-Hyeon school jungmori is that there is a four-changdan basic type jang(章) of 'Gi-gyeong-gyeol-hae' typ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shown in the expanded type of jang(章). The Seo Y

ong-Seok school jungmori's expanded type of jang(章) sh ows a 5 jangdan style jang(章) of 'Gi-gyeong-gyeong-gyeo l-hae' type and 'Gi-gyeong-gyeol-hae-hae' type. On the o ther hand, the Won Jang-Hyeon schooljungmori's expand ed type of jang(章) shows a six-changdan type jang(章) o f 'Gi-gyeong-gyeong-gyeol-hae-hae' type.

Fourth, when the modulation and transposition of jung mori of Seo Yong-Seok school daegeum-sanjo and the ju 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daegeum-sanjo are co mpared, it is as follows. In the doljang of Seo Yong-Seok school jungmori, the musical tone of C-key Nadereum-jo (u-jo) and C-key gyemyeon-jo appears, and in the temp orary transposition, the musical tone of C-key gyemyeo n-jo and F-key gyemyeon-jo appears. Meanwhile, in the doljang of Won Jang-Hyeon school jungmori, , the music al tone of B♭-key pyeong-joand C-key gyemyeon-jo app ears, and in the temporary modulation, the musical tone of B♭-key pyeong-joand C-key gyemyeon-jo appears.

Fifth, the following is a comparison of the breathing li nes of the jungmori of Seo Yong-Seok school daegeum-s anjo and the jungmori of Won Jang-Hyeon school daegeu m-sanjo. There are a total of 491 breathing lines in Seo Yong-Seok school jungmori, and a total of 257 in the Wo n Jang-Hyeon school. As can be seen, Seo Yong-Seok sch ool has 234 more breathing lines. Among the changdan of the two streams, the number of breathing lines of cha

ngdan, which has the least number of breathing lines, a re Seo Yong-Seok school jungmori with 4 lines and Won Jang-Hyeon school jungmori with 2 lines. On the contrar y, among changdan of two streams, the number of breat hing lines of changdan, which has the most number of br eathing lines, are Seo Yong-Seok school jungmori with 1 4 lines and Won Jang-Hyeon school jungmori with 10 lin es.

Sixth, Won Jang-Hyeon school has more grace note am ong the two stream's identical melody, when compared t o Seo Yong-Seok school . Seo Yong-Seok school 's identic al melody has 10 grace notes, whereas Won Jang-Hyeon school has 29 of them. It is observed that Won Jang-Hye on school plays more grace notes than Seo Yong-Seok sc hool .

Seventh, the following is a comparison of the breathin g lines of identical melody of the jungmori of Seo Yong-S eok school daegeum-sanjo and the jungmori of Won Jan g-Hyeon school daegeum-sanjo. Seo Yong-Seok school h as 92 breathing lines of identical melody in total, where as Won Jang-Hyeon school has 72. Seo Yong-Seok school has 20 more breathing lines. Based on Han Ju Hwan sty le daegeum-sanjo, Seo Yong-Seok school tends to increa se its breathing lines, whereas Won Jang-Hyeon school t ends to decrease its breathing lines. When Seo Yong-Seo k school and Won Jang-Hyeon school are compared, it i

s seen that Seo Yong-Seok school plays with more breat hing lines, whereas Won Jang-Hyeon school plays with l ess breathing lines.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Seo Yong-Seok school jungmori and Won Jang-Hyeon school jungmori are the b reathing lines and grace notes. While Seo Yong-Seok sch ool jungmori is characterized by many breathing lines a nd few grace notes, Won Jang-Hyeon school jungmori is characterized by less breathing lines and a lot of grace n otes. The daegeum-sanjo has experienced expansion and chang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it has been passed down in people's daily life. During this process, the lives and musical activities of masters who created the strea ms of daegeum-sanjo melted into their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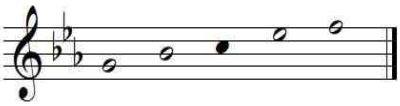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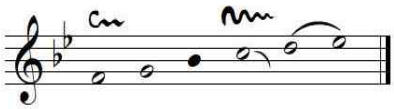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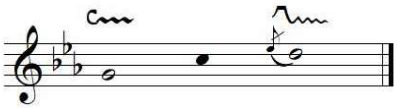
keywords : *S*eo Yong-Seok school Daegeum sanjo Won Jang-Hyeon school *Daeguem sanjo, breathing line*

Student Number : 2017-24829

〈부록 목차〉

1.악조 도표 ····· 147
2.현장조사 자료〈원장현과의 대담〉 ····· 148
3.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모리 악보 ····· 139
4.원장현류 대금산조 중모리 악보 ····· 145

1.악조 도표

악조명	악조악보	본청
1. 내 드 름 조 (우조)		미-솔-라-시-도 본청: 라(C)
1. B♭청평조		솔-라-도-레-미(파) 본청: 도(B♭)
3. C청계면조		마-라-도-시 본청: 라(C)

2. 현장조사자료

-원장현과 이헌준의 대담-

일시: 2020. 10 .18(일) 14시~16시
장소: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금현국악원 2층

이헌준: 선생님의 학습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원장현: 김용기에게 대금의 기초를 배웠고, 오진석에게 삼현을 배웠다. 오진석에게 풍류를 배울 때는 구음보를 사용하였다.(거문고 구음보로 추정) 김동진에게 대금산조를 처음 배웠고 이후, 한일섭에게 구음으로 배웠다.
이헌준: 민간풍류는 무엇인가요?
원장현: 요즘 말로하면 대풍류이다. 전라북도에는 전추산 선생님이 계셨고, 전라남도에는 오진석 선생님이 민삼현과 시나위를 연주하셨다. 오진석 선생님께 시나위와 민삼현을 배웠다.(시나위, 민삼현)
이헌준: 선생님 원장현류 대금산조를 처음 발표할 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장현: 국립국악원 재직 당시 대금산조를 연주해야 했었는데, 당시 국악원장인 이승열이 나의 학습과정을 듣더니 원장현류 이름을 붙여서 공연을 하라고 했다. 이승렬 원장은 원장현만이 하는 음악이니 원장현 이름을 붙이라는, 원칙주의자였다. 나는 젊은 시절 뭣 모르고 붙여 낸 감이 있다. 지금 발표하라면 오히려 못할 것 같다. 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85년도에 발표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산조들도 본인 이름을 붙여 나왔다. 유파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미 불 때 이미 산조가 있었고, 대금산조로만 불렸다.
이헌준: 산조를 만들 때 염두에 두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원장현: 음악에서 주관성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을 염두에 두었다. 김일구 선생님이나 박종선 선생님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다. 내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면, 냉정하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헌준: 객관성이라는건 음악적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대금산조의 악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원장현: 대금산조의 악조는 우조와 계면조 두개로 나뉜다. 우조와 평조는 구분하지 않고 우조로 부른다. 본청은 우조는 중려(b♭), 계면조는 임종(c) 두 개다. 마무리는 항상 본청으로 한다. 변청을 했다가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본청으로 돌아와 마무리한다. 산조는 글처럼 논리정연하고 이치에 맞아야한다.

이헌준: 그 이치에 대해 더 말씀해주세요.

원장현: 음악이 논리정연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부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상품으로서 팔리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다. 김일구, 박종선 같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산조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고, 음과 양의 조화를 갖춰야 한다. 하나의 기승전결의 구성을 한 장라고 한다.

혹자는 진양조 24박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진양조의 기승전결이 24박안에 딱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다. 가락을 짜다 보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할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24박에 맞추기 위해 어거지로 가락을 짜 넣을 수 없다.

이헌준: 중모리에서 계면조가 나오기 전에 잠깐 계면의 선율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원장현류 중모리 제 12장단 제 1박～제 9박)

원장현: 우조에서 계면조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9박까지 계면조처럼 연주하지만 10박부터 다시 우조로 돌아갔다가. 3장단 뒤부터(제 17장단) 본격적으로 계면조로 연주한다.

이헌준: 과거 인터뷰에서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한일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원장현: 서용석 선생님도 한주환의 영향을 받았으나, 서용석류 대금산조

를 들어보면 더늠이 다르다.

이헌준: 여러 악기를 하셨는데 대금산조에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원장현: 산조는 판소리의 좋은 부분을 각 악기에 맞게 연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조는 하나의 맥락으로 봐야한다. 세부적으로는 악기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소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이다. 오리지널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각기 악기 특성에 맞춰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가 산조에 비해 음악적으로 한 수 위라고 생각한다.

이헌준: 한일섭 선생님과의 학습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원장현: 구음으로 산조를 알려주셨다. 한일섭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명창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판소리를 잘했다. 산조는 판소리에서 나왔다. 경음악 하듯 가사를 빼고 악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소리가 산조와 비교했을 때, 한 수 위라고 생각한다. 산조도 가르치실 수 있었다.

한일섭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박종기의 대금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한주환과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6지공을 다 막은 임종과 지공을 모두 개방한 임종을 구별하실 정도로 대금에 대한 이해가 높다.

이헌준: 대금산조의 계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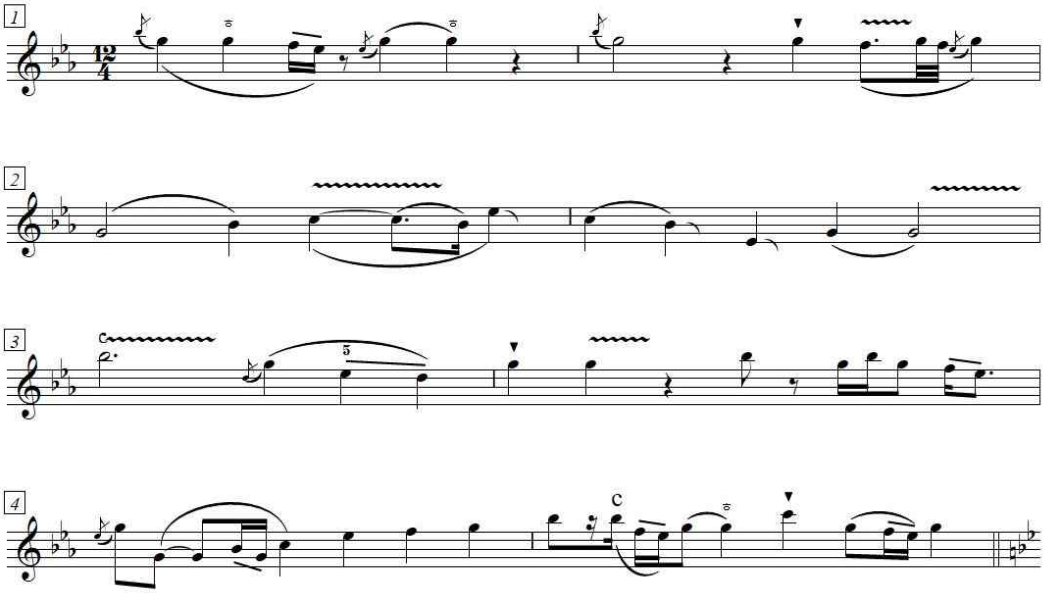
원장현: 산조의 원자재는 한숙구 (1850년생)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박종기와 강백천이 대금화 시켰다. 이후, 한숙구를 통해 그의 아들인 한수동과 한주환이 또 산조를 배웠다. 이후, 한주환과 같이 활동한 한일섭을 통해 산조들이 만들어졌다. 한일섭에게 가장 먼저 배운 사람은 김동진, 이생강 그리고 나(원장현)다.

서용석류 대금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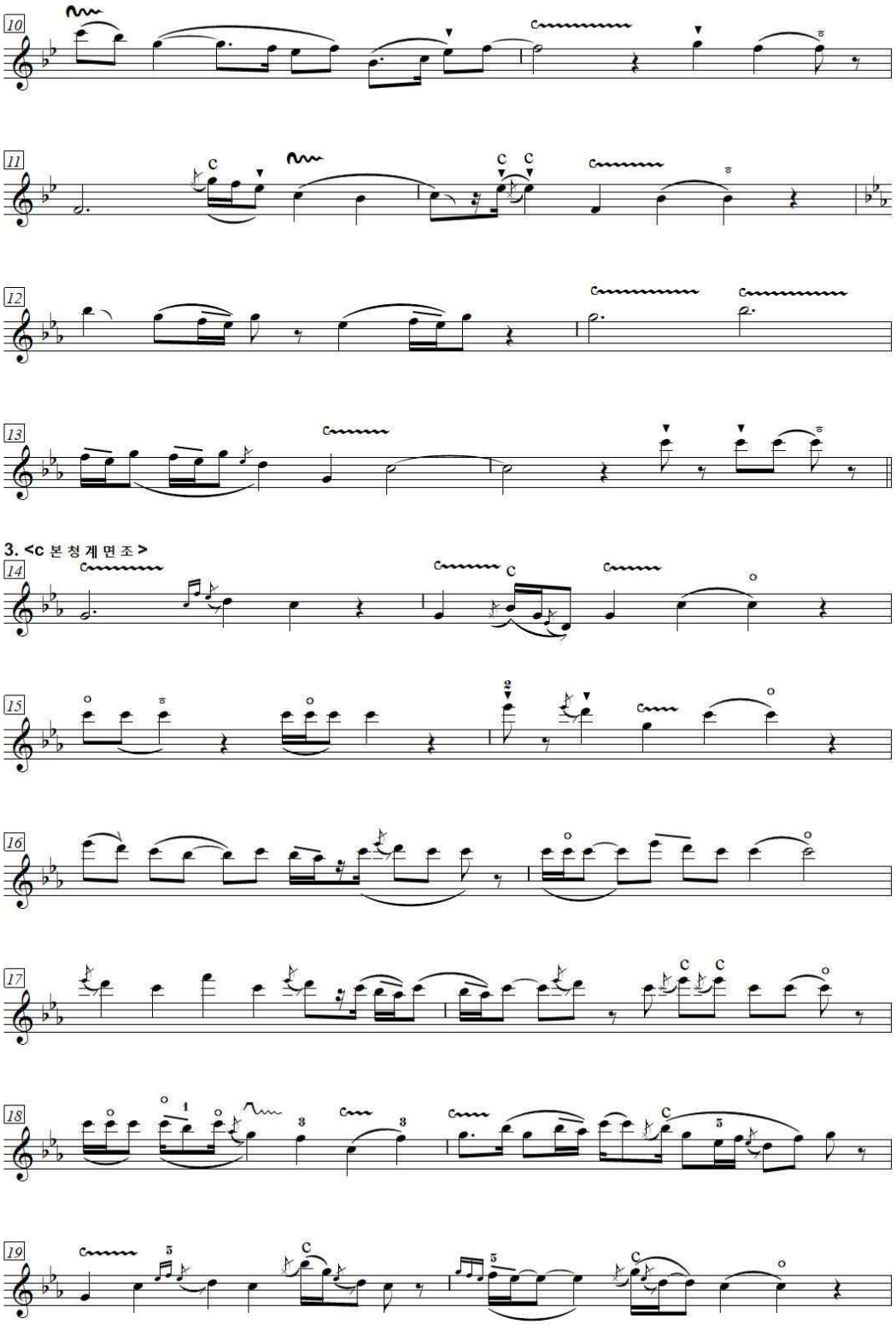
서용석 연주
임재원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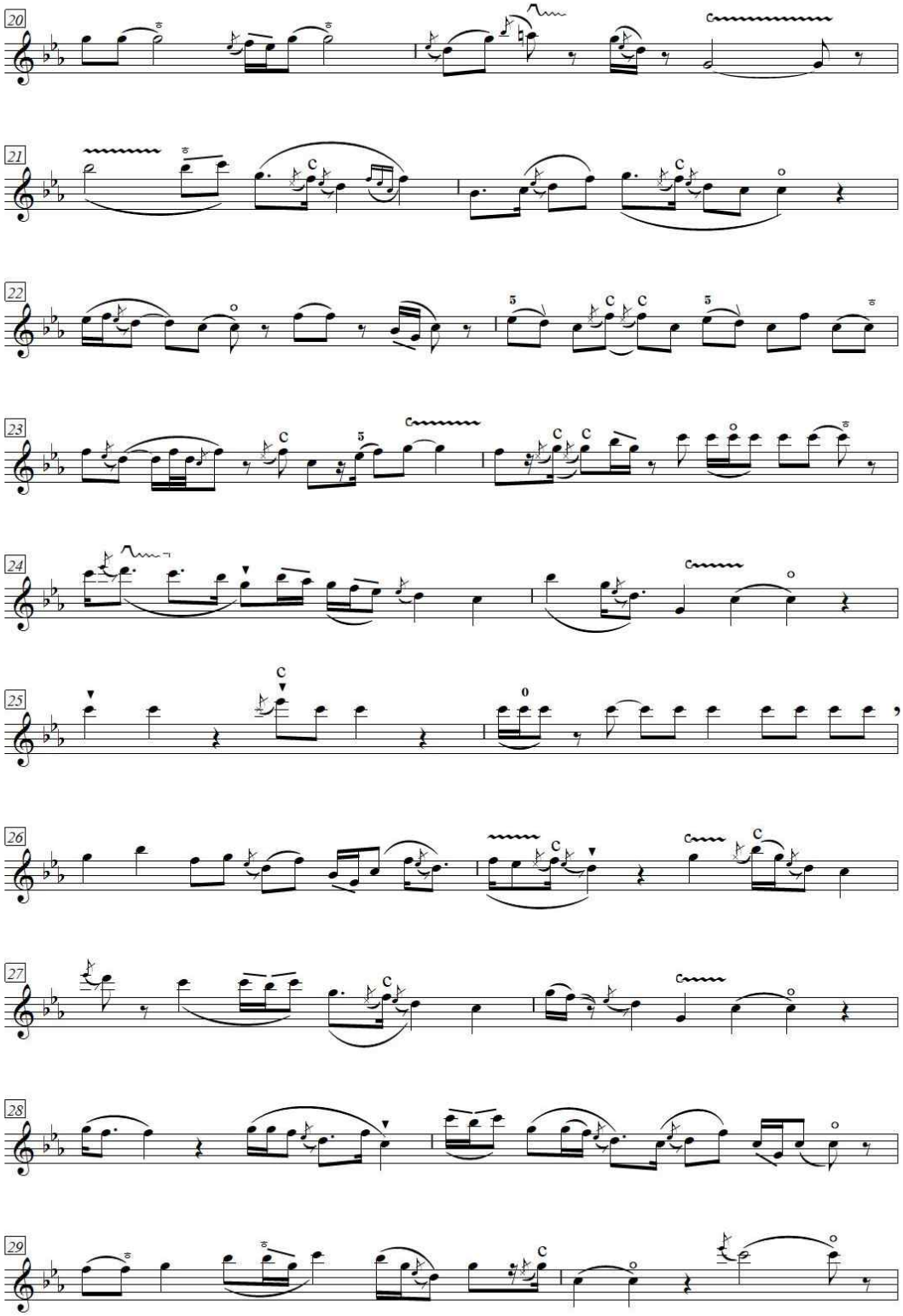
중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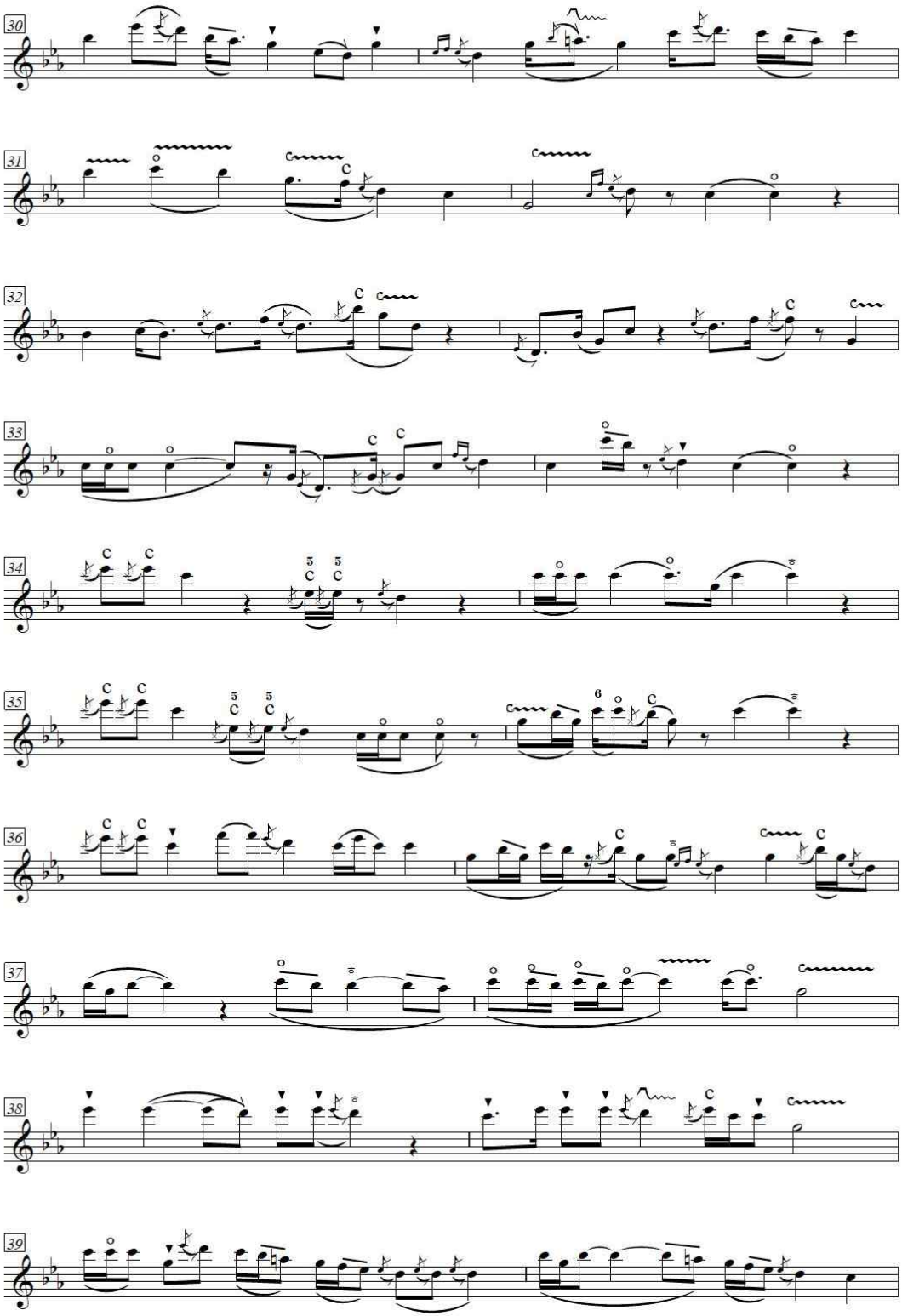
1. <c본청 내드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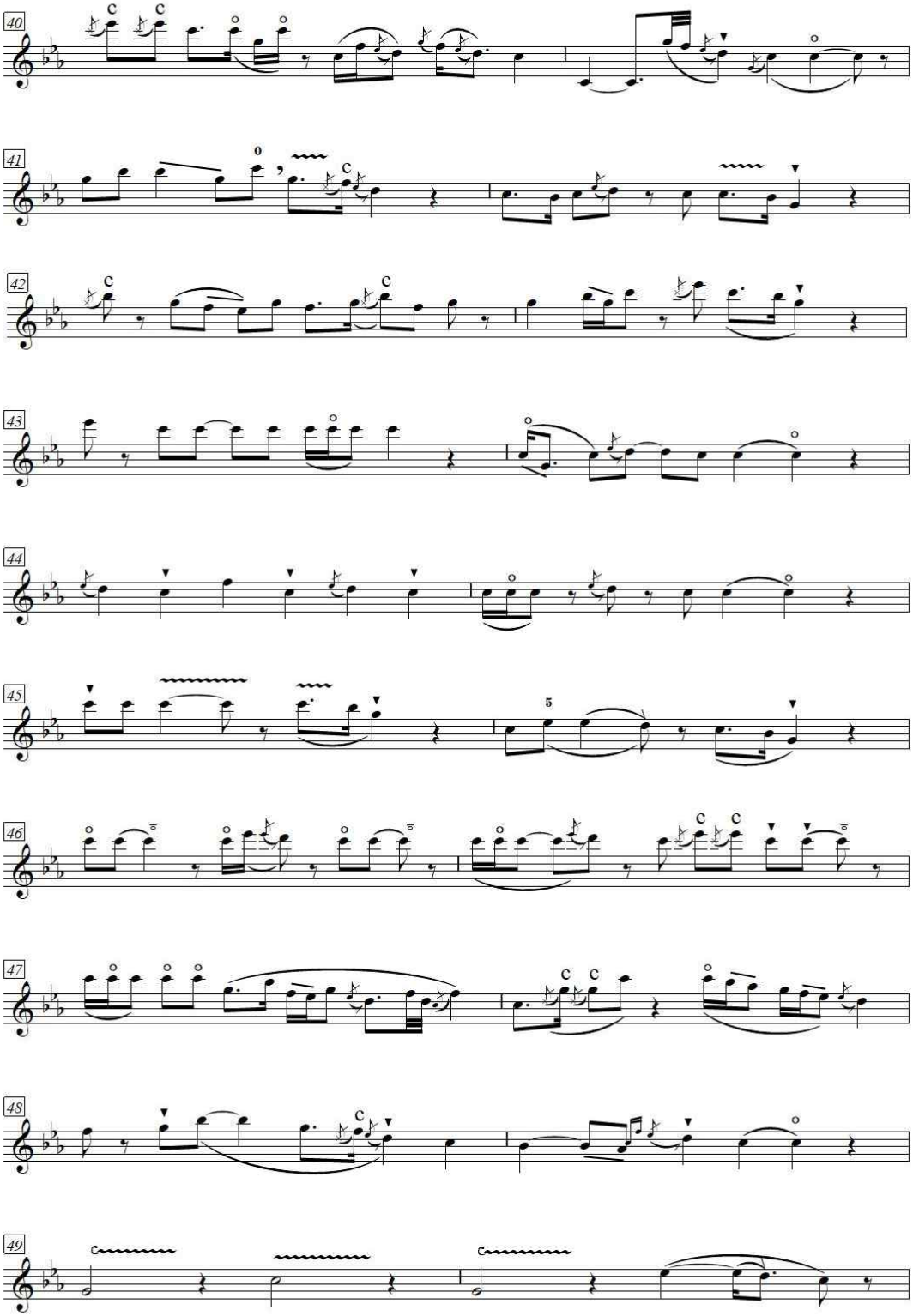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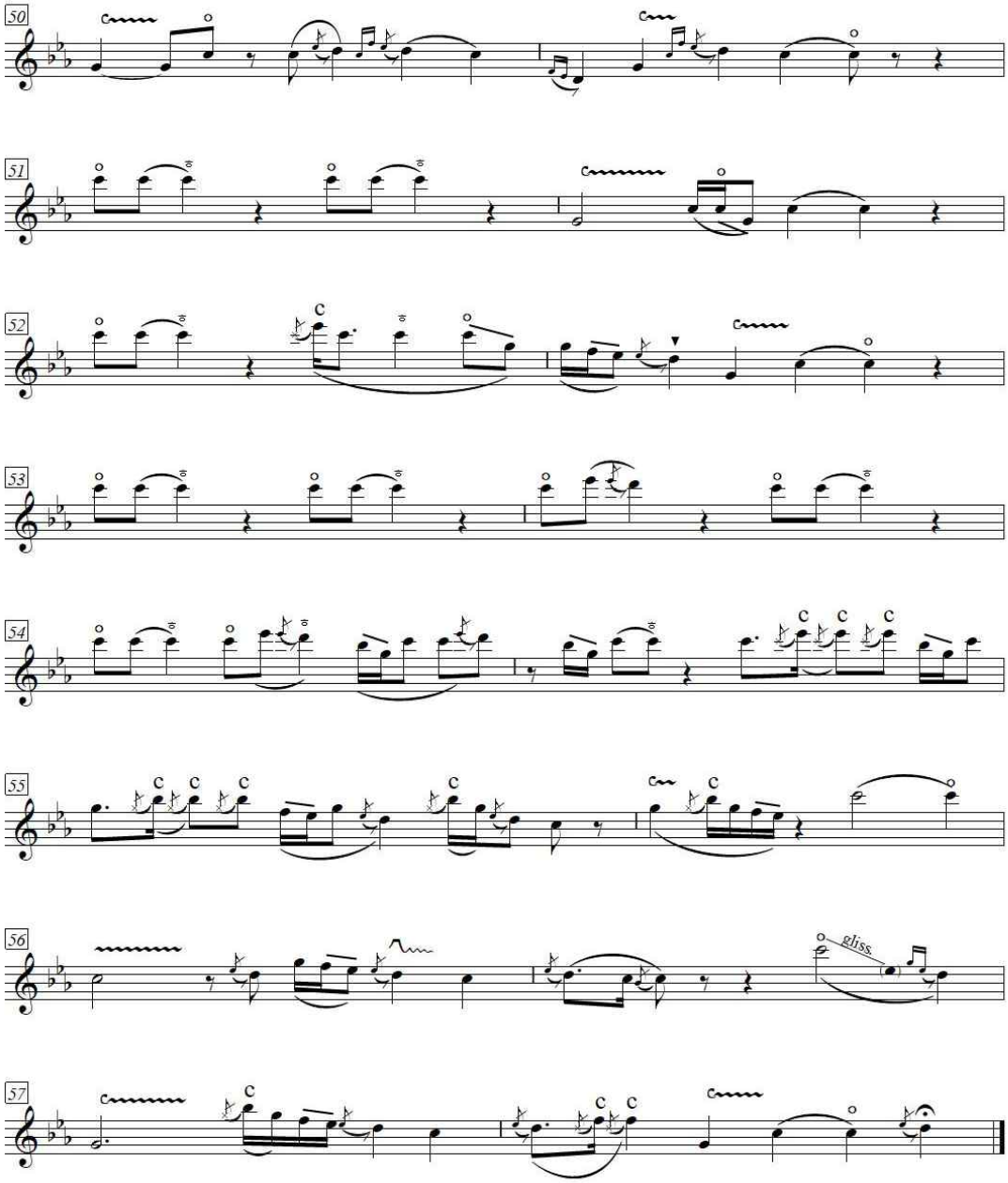
2. <b♭ 본청 평조>


10
11
12
13
3. <c 본청계면조>
14
15
16
17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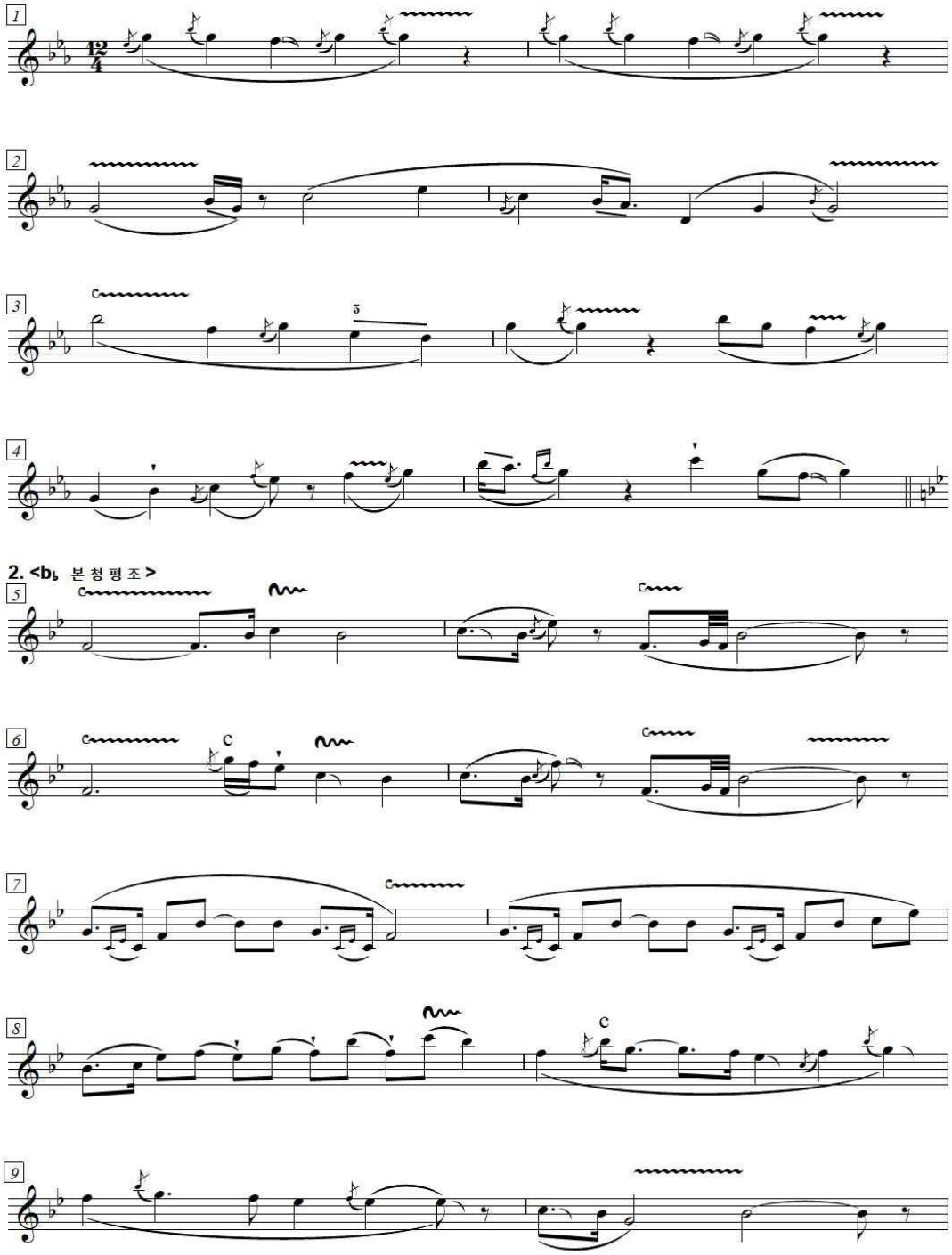

50
51
52
53
54
55
56
gliss.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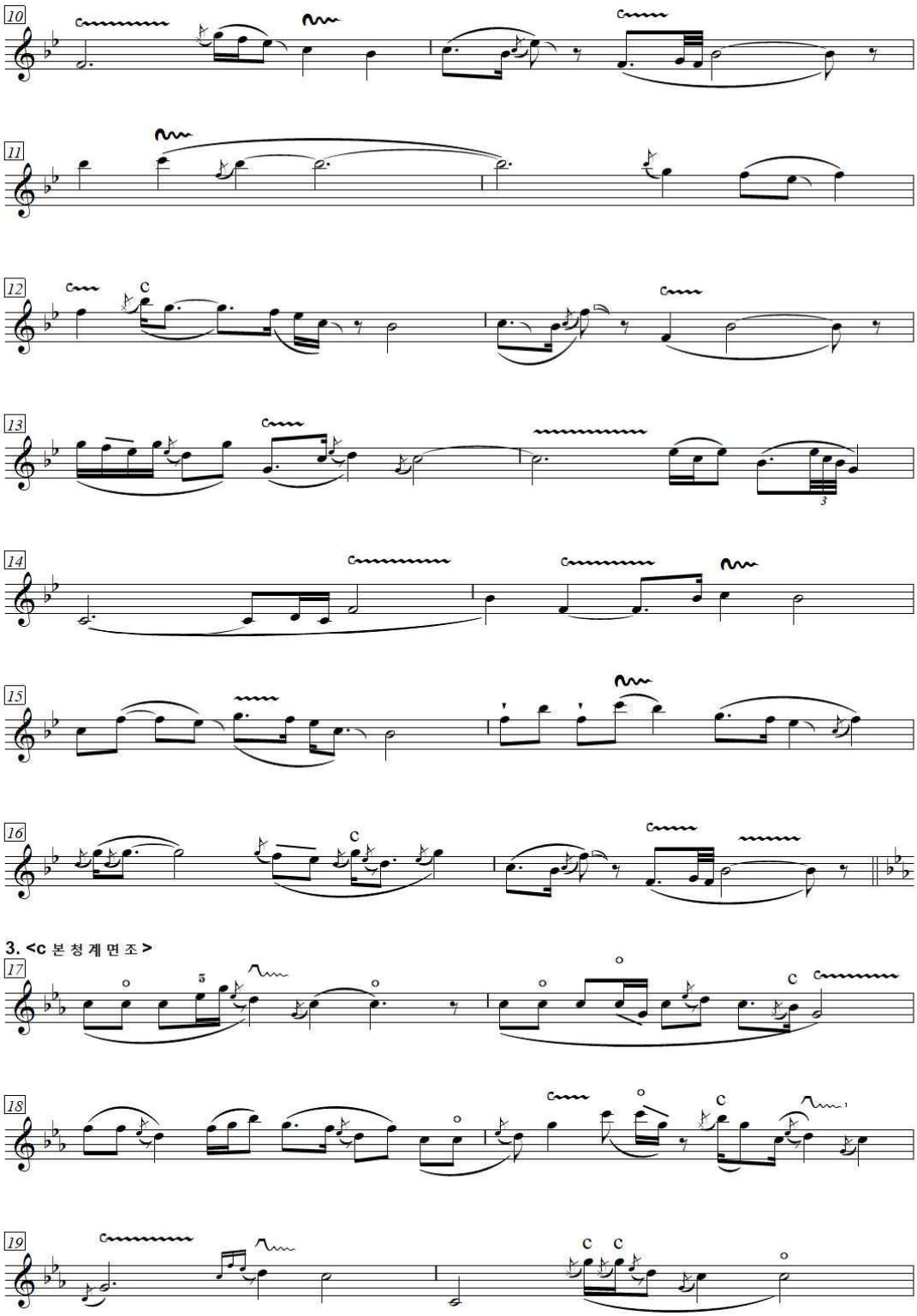
원장현류 대금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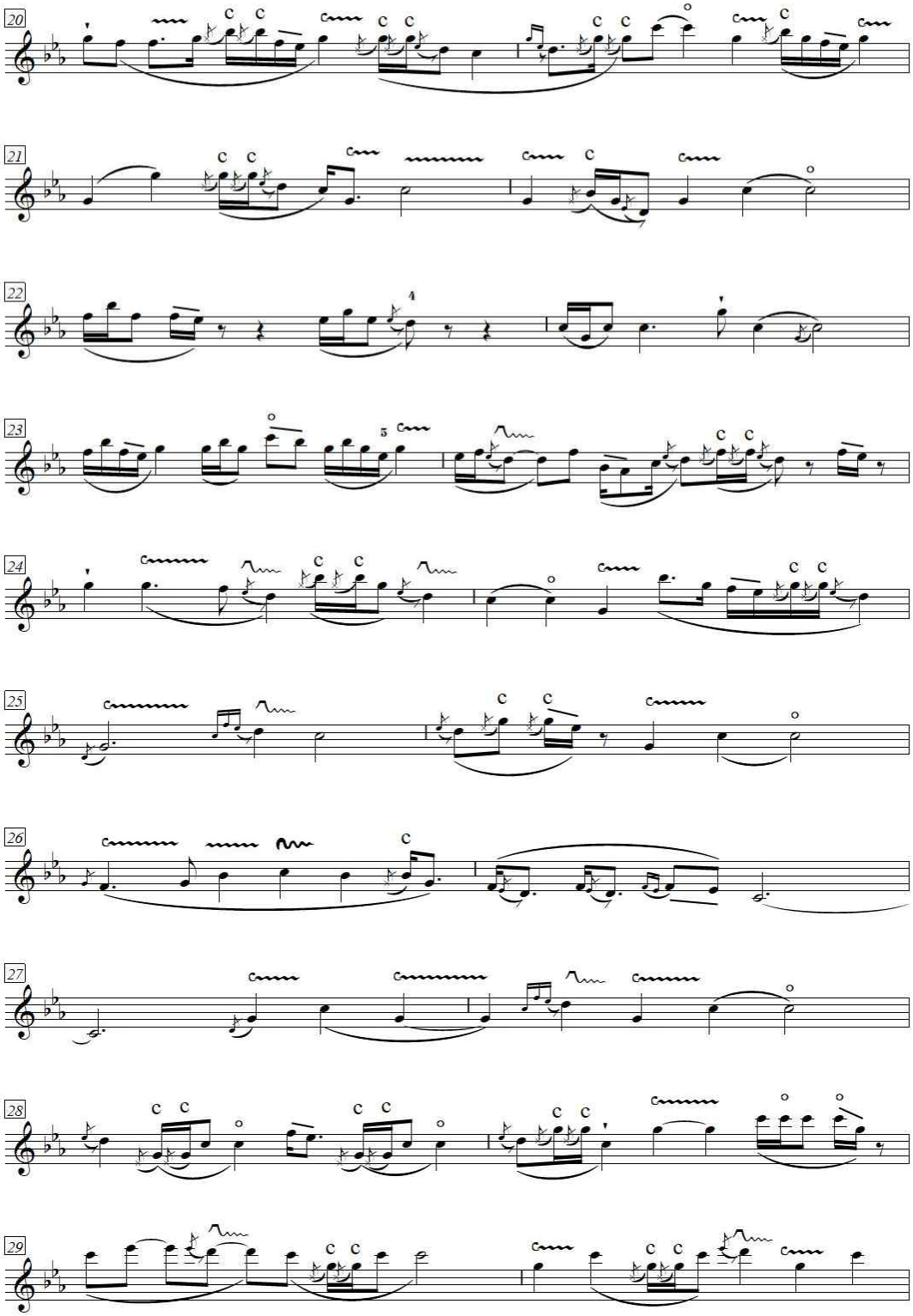
원장현 연주
임재원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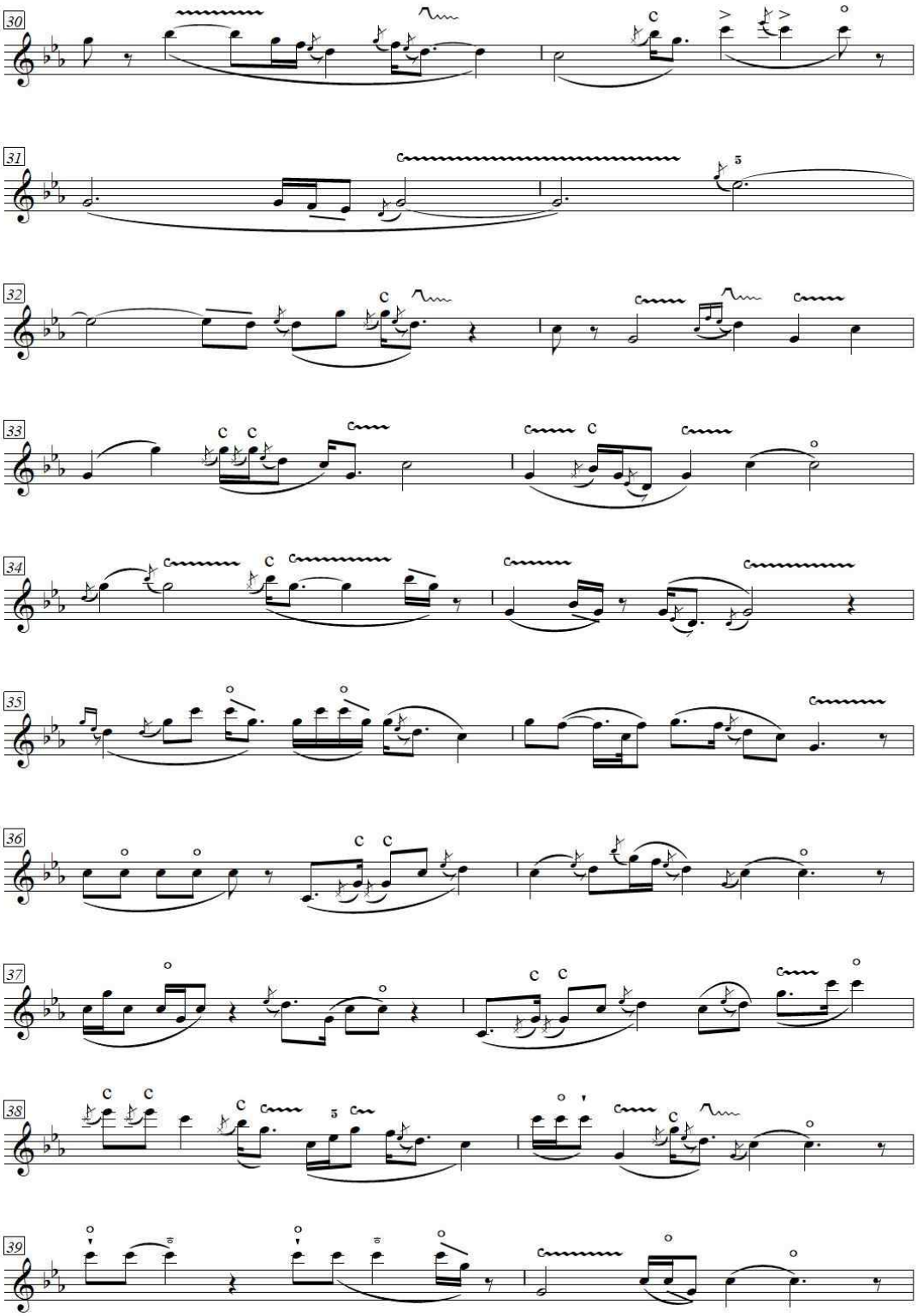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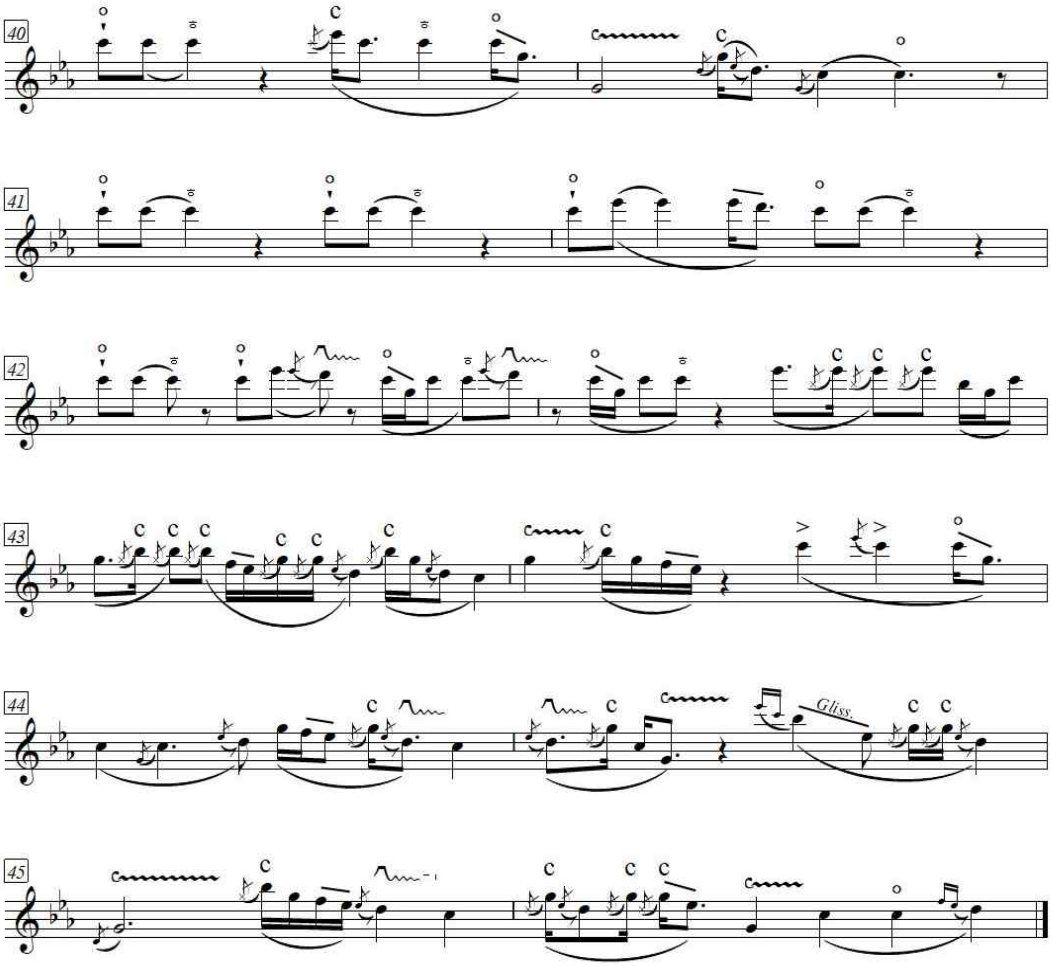
중모리

1. <c 본청내드름조>




10
11
12
13
14
15
16
3. <c 본청계면조>
17
18
19





원장현류 대금산조 - 5